

마을로  
간  
청년들

BLANK  
+  
문승규  
김동리  
김지연

## 1부. 지역에서 청년으로 산다는 것

- 1장. 지역과의 첫 만남 : 주민과 관계맺기
- 2장.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하기
- 3장. 지역에서 적절히 협업하기
- 4장. 자립을 위한 몸부림 : 실패를 통해 배운 것들
- 5장. 청년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것들
- 6장. 지역에서 사회로 : 공유의 가치

+

## 2부. 마을아카데미 대담집

- 1장. 건축 : 도시마을건축사사무소 + SUNLAB
- 2장. 주거 : 민달팽이유니온 + 서울소셜스탠다드
- 3장. 지역 : OO은대학 + 오늘공작소
- 4장. 문화 : 러닝투런 + 남산골해방촌
- 5장. 일 : 서울잡스 + 오픈콘텐츠랩

이 보고서는 2014년도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 연구/조사 사업의 결과물로 만들어 졌습니다.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부. 지역에서 청년으로 산다는 것

## 1장. 지역과의 첫 만남 : 주민과 관계맺기

/마을살이의 서막이 오르다

성대골 마을에 처음 방문한 것은 2012년 4월이었다. 당시에 우리는 대학원에서 건축과 도시를 공부하던 학생들이었고, 학생 신분으로서 마지막 공모전을 준비해보자며 의기투합하였다. 여러 공모전 중에서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은건 <서울시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공모전>이었다. 공모요강에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이 있었다.1)

1. 공모시 당해지역 주민들과의 면담을 갖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계획에 반영
2. 자치구(당해지역)와 충실히 협의하여 그 결과를 반영
3. 공모자가 왜 당해지역을 택했는가에 대한 설명(분석과 평가 포함)
4. 당해지역에 대한 미래상 설정(정책적인 부분과 공간적인 부분)과 이를 실현하게 위한 아이디어 및 구체적 수단 제시
5. 물리적 환경개선 방안과 사회적, 경제적 재생방안 등을 함께 제시

건축이나 도시와 관련된 기존의 공모전이 가상의 계획안 제시에 그치는 반면, 마을만들기 공모전은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안을 요구하고 있었다. 항상 만들어지지 않을 설계를 하면서 갈등을 느꼈던 우리는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미래상을 그려나 간다는 점에 크게 매료되었다. 하지만 '마을'이라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던 우리는 어떠한 관점으로 마을과 지역공동체를 바라볼지 고민에 빠졌다.

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272호, <제3회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학생공모전>

첫 번째로 던진 질문은 '도시에서의 마을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까?'였다. 과거 농경사회에서는 마을이 삶의 터전이었고, 마을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웃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반면 현대사회에서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내가 사는 곳이 크게 중요하지 않아져 버렸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주가 분리된 삶을 살고 있고, 스마트폰과 SNS를 통해 거리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은 소통이 가능하다. 이렇듯 도시는 이웃이 없어도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모른채로 사는게 더 편하다. 즉, 익명성이 도시의 가장 큰 미덕으로 여겨진다. <구경꾼의 탄생> 서두에 이런 문장이 나온다.

“농촌의 삶이 서사적이라면, 도시의 삶은 시각적이다. 공동체는 전설, 신화, 뒷이야기, 험담으로 가득 찬 수다스러운 서사의 공간이다. 익명성에 의해 보호받는 균중의 공간인 대도시에서 사람들은 서로 표면만을 본다. 도시의 상호작용은 시각적 상호작용이다.”2)

서로 표면만을 보는 도시에서 우리는 왜 다시 마을로 돌아가려는 것일까? 이웃의 정이 그리워? 도시에서의 삶이 삭막해서? 머리로의 공동체의 중요성이 이해되었지만 마음으로는 동네에 아는 사람들이 많아지는게 정말 좋을까하는 의문이 들었다. 함께 공모전에 참여하기로 한 세 명 중 두 명은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에서의 삶이 익숙한 반면, 고향이 제주도인 나머지 한 명은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삭막한 도시에서의 삶에 힘들어 하면서 정감 넘치는 마을에서의 삶을 그리워하고 있었다. 우리는 '서사적 삶'에 대한 기호와 상관없이 고독사, 층간소음, 은둔형 외톨이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이웃과의 소통 부재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계의 회복이 필요하고, 마을공동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2) 바네사 R. 슈와르츠, 「구경꾼의 탄생」, 노명우 옮김, 마티, 2006, 37-38p.

도시에 마을이 필요하다는 전제로 ‘그렇다면 마을은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는 두 번째 질문이 이어졌다. 우선 우리는 ‘마을만들기’라는 용어에 대한 고민을 하였다. 마을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인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만든다는 말이 불편하고 와 닿지 않았다. 특히 우리와 같이 마을과 전혀 상관없는 외부인들이 마을에 들어가 마을을 만들겠다고 주민들을 만나고 계획안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괜히 지역에 바람만 불어넣었다가 생각대로 잘 안되면 주민들의 상실감과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하물며 우리는 언제 취업해서 떠날지 모르는 청년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으로서, 그리고 청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이에 우리는 공동체가 어느정도 형성되어 있는 마을 중에서 우리와 같은 청년들의 역할이 필요한 곳을 찾아보기로 했다. 장수마을, 성미산마을 등 공동체 활동으로 이미 잘 알려진 마을을 답사하던 중 우연한 기회에 성대골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가벼운 마음으로 이 마을에 발을 들이게 되었다.

2년 6개월동안 청년들의 파란만장한 마을살이 서막이 시작된 것이다.

/주민의 이야기를 경청하다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에서 내려 성대골마을로 걸어 올라가면서 흡사 읍내에 온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 차도에는 사람들과 차들이 뒤엉켜 있었고, 인도에는 노점들이 정신없이 널려있었고, 시장에는 야채며 과일을 사기위해 사람들이 북적였다. 활기 넘치는 길을 지나 어느새 한산한 골목길에 접어들었고, 길 모퉁이에 성대골 어린이도서관 간판을 발견하였다. 미리 검색을 통해 주민들이 힘을 모아 만든 마을 도서관과 마을 학

교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느 도서관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다. 도서관에 들어서자 관장님께서 우리를 반겨 주셨다. 미리 연락을 하지 않고 불쑥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을에 방문한 이유를 설명해드리니 취지에 공감하시며 마을의 이야기를 하나 둘 풀어내기 시작하셨다. 우리가 처음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주민이었다.

쌍둥이 아이들을 키우며 마을활동을 하게 된 소박한 계기에서부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환경과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갖게된 이야기, 그리고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마을의 미래상에 대한 고민까지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어졌다. 무엇보다 우리의 관심을 끈 것은 마을학교와 관련된 이야기였다. 어린이도서관이 위치한 상도3동에는 등교하기 힘든 가파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언덕을 넘어 상도4동에 위치한 초등학교를 가거나 보다 가까운 관악구의 초등학교로 위장전입을 한다. 초등학교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치 선정 및 행정상의 이유로 학교 설립 추진이 매번 좌절되었고, 결국 어머니들이 힘을 모아 마을학교를 만들게 된 것이었다.

우리는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무엇이 어머니들을 움직이게 한 것일까? 보통 불편한 것이 있어도 참고 외면하기 마련이다. 문제가 문제인 것을 아는 건 쉽지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스스로 실천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편한 길을 갈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든 길을 선택하셨는지 여쭙봤을 때 관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뭐가 문제인지 모를 때는 사는 게 별로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문제라고 알게된 순간부터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더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마을에 새로운 에너지를 원하고 계셨다. 지금은 어머니들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지만 남녀노소 다양한 세대가 마을에서 소통한다면 더욱 더 즐겁고 의미 있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이번 공모전이 그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건네주셨다. 비록 우리는 이 마을에 오랫동안 살아온 주민은 아니지만 건축과 도시를 공부한 외부인의 시선으로 문제를 깊이, 그리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청년의 입장에서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이렇게 성대골 마을과의 인연은 우연한 기회에 만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처음 시작되었고,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의 열정을 알게된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한 공모전이 우리에게 점차 큰 무게로 다가오기 시작하였다.

#### / 마을의 자원을 발견하다

성대골 마을을 공모전 대상지로 결정한 뒤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목적없이 마을 걸어다니기'였다. 처음에는 지도를 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며 마을을 돌아다니려 했으나 이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마을이 마치 하나의 작은 생태계 같이 유기적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지형의 흐름에 따라 길이 만들어 지고, 길을 따라 집들이 뿔뿔하게 자리잡고 있다. 각각의 집들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삶을 이어나가고 있고, 제각기 다른 생각과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걸기를 통해 마을에 대해 막연히 가졌던 생각들을 하나씩 정리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마을에서 우리가 보고 느낀 것들을 일반화 시키지 말자'였다. 우리가 마을에서 발견하게 될 것들과 만나게 될 사람들은 지극히 일부일 뿐이다. 부분의 이야기로 전체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며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마을을 돌아다니며 하나의 주제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가령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는 공원의 필요성이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주변에 공원이 너무 없어 삭막하다며 평소에 운동도 하고, 아이들이 뛰어 놀 수 있는 공원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한 반면, 공원이 있으면 관리도 잘 안 되고 청소년들의 비행 장소가 되어 마을이 더 불안해 질 것이라며 반대하는 주민도 있었다. 혹은 좁은 골목길이 양방향에서 일방통행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주민이 있는 반면, 운전하기가 불편해 진다며 완강하게 반대하는 주민도 있었다. 이처럼 다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당연히 좋을 것이라 생각했던 주제에도 늘 반대의 입장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생각의 다름이 갈등의 대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며 대화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조율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두 번째는 '마을을 낭만적으로만 바라보지 말자'였다. 마을에는 햇빛조차 들지 않는 쪽방부터 넓은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까지 다양한 유형의 집에서 다양한 소득수준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낙후된 지역은 점점 더 낙후되어 섬처럼 고립된 지역이 되어 버린다. 보통 이런 지역에서는 환경 개선을 위해 나무를 심거나 벽화를 그리곤 한다. 하지만 이러한 치장만으로는 마을이 더 살기 좋아지지 않는다. 우리는 마을만들기가 그저 눈에 보이는 곳만 아름답게 가꾸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거주환경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를 위해 어떻게 하면 공공의 공간을 넘어 개개인의 공간과 생활 방식까지를 바꿀 수 있을지 고민하기로 하였다.

세 번째는 ‘마을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 멋대로 상상하지 말자’ 였다. 우리는 건축과 도시를 공부하며 어느 지역에 어떤 공간이 들어오면 좋을지 제안하고 설계하는데 익숙해져 있다. 하지만 공간이 일단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활발하게 이용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계획가들의 오만이라 생각한다. 도시를 채우는 것은 잘 설계된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실제로 많은 돈을 들여 만들었지만 이용할 사람이 없어서, 혹은 운영할 사람이 없어서 방치된 공간들을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어린이 도서관, 마을학교와 같이 이미 운영되는 공동의 공간들은 마을의 큰 자산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공간은 예산만 있다면 어떻게든 만들어지지만, 사람들의 이야기는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기존의 공동체와 마을 자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이것이 마을로 확장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마을은 우리가 생각한 것 보다 더 넓고 다채로운 곳이었다.

#### /마을의 미래상을 그리다

성대골 마을은 2012년에 서울시 에너지 자립마을로 지정되었다.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에너지 절약과 효율 향상, 지역에서 활용 가능 한 신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통하여 마을공동체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사업이다.<sup>3)</sup> 성대골 마을에서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에 에너지와 환경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왔다. 어린이 도서관을 처음 방문하였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한 쪽 벽

면을 가득 채운 ‘성대골 절전소’ 그래프였다. 30여 가구가 매달 에너지 소비현황을 기록하여 집집마다 에너지 소비량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었다. 주민 스스로 작은 부분에서부터 실천하며 마을의 미래를 고민해 왔다는 점에서 우리는 마을의 잠재력을 느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에너지자립마을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점은 단순히 마을만들기를 넘어 노후된 주거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에너지자립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추진내용 중 하나가 단열, 냉난방 등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에 대한 부분이다. 성대골 마을의 주택들은 대부분 70-80년대에 지어진 연와조 건물로 단열시공이 거의 되어 있지 않았다. 우리는 마을만들기를 통해 행정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동시에 주민이 스스로 개별적인 집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마을기업’을 통해 마을에서 지속가능한 자립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나아가 이 마을기업은 마을재단의 역할을 하여 자체적으로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 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는 자치모델로 성장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또한 기존의 마을학교가 가진 잠재력에 주목하였다. 기존의 학교는 폐쇄적인 공간구조를 가지고 있다. 지역의 특성과는 상관없이 동일한 수업이 동일한 장소에서 진행되고, 지역에 쉽게 열려있지 않다. 반면 어머니들이 직접 운영하는 마을학교는 어머니들이 직접 교사가 되고, 마을 곳곳이 강의실이 된다. 아이들의 수업이 없을 때는 주민을 위한 수업이 열리기도 하고, 손님이 오면 마을 사랑방 역할을 하기도 한다. 지금은 방과후 교실로 운영되는 마을학교가 초등학교와 같은 역할을 담당한다면? 마을학교가 기존의 학교처럼 한 공간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마을 곳곳에 퍼져 있다면? 그리고 이 마을학교가 마을기업과 결합되어 주민에게 열린 공간으로 운영된다면?

3)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990호, <2012년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지원 공고>

이러한 생각들은 우리가 마을에 필요할 것 같다며 새롭게 생각해 낸 것이 아니다. 마을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자원들만 잘 연결해도 기존의 마을이 가진 문제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문제는 어느 위치에 거점공간을 마련하는 가였다. 도시에서는 개발 가능한 땅이 거의 없고, 땅값이 지나치게 비싸기 때문에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상도 3동의 초등학교 역시 학교 설립 기준을 만족하는 마땅한 땅이 없기 때문에 들어서지 못한 것이다. 다행히 우리가 생각한 마을학교는 마을 곳곳에 퍼져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큰 땅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공간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공간들 사이의 네트워크였다. 이를 위해 우리는 구에서 둘레길로 지정한 '충효길'과 이를 가로지르는 '성대길'을 중심으로 공동체 길을 설정하였고, 비어있거나 방치된 공간을 공동체 공간으로 계획하여 연결하였다. 즉, 마을 전체가 학교이자 공동체 공간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상의 생각들을 정리하고 발전시켜 마을의 미래상을 설정하였고, 구체적인 그림을 그린 계획을 제출하였다.

'들술날숨 성대골 마을만들기'는 금상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그 해 겨울, 성대골 마을이 정비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

#### /마을살이의 계기를 만나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우리는 서울시 제안을 거부할 수도 있었다. 다들 학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이었고, 학업의 연장, 혹은 좋은 회사로의 취업 등 각자 미래에 대해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던 때였다. 따라서 서울시 사업에 약 4개월 동안 기초조사 연구원으로서 참여를 해 달라는 제안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 기초조사가 끝난 이후에 이 프로젝트에 계속

참여할 수 있을 것이란 보장도 없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선뜻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공모전 준비를 통해 이미 맺어진 주민과의 관계와 우리가 제출한 계획안에 대한 책임 때문이었다. 약 5개월동안 주민과 만나고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지역에서 청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주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기획자로서의 역할이었다.

실제로 주민은 필요한 것이 있거나 하고싶은 일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실행하기가 쉽지 않다. 어떤 사업들에 참여할 수 있는지, 어떻게 기획해야 하는지,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체화 시킬지 등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다. 반대로 행정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이 정말로 어떤 것을 원하는지 알기가 쉽지 않다. 만약 청년이 지속적으로 마을에 머물면서 활동의 주체로서 주민이 원하는 것을 발견하고, 매개자로서 행정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연결한다면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당시에 이것이 청년이 마을에서 자립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이라는 확신은 없었다. 나중에 이것이 '커뮤니티 디자인'이라는 건축과 도시의 새로운 영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70년대부터 마치즈쿠리라는 이름으로 시작. 「커뮤니티 디자인」, 「작은 마을 디자인하기」 등의 저서로 최근에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야마자키 료의 <studio-L>이나 오랫동안 방치된 쪽방을 개조하여 호스텔로 활용하고, 주민들의 평생교육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등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오카베 도모히코의 <고토크> 등 청년들이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지역쇠퇴, 청년실업, 삶의 불만족 등 사회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고자 하는 청년들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청년들이 마을에서 자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과 관 사이의 협력적인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서울시와 구청, 그리고 주민과의 협업은 우리가 마을살이를 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 2장.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하기

/행정과 소통하다

2012년 9월, 공모전 시상식 이후에 11월부터 서울시 주거환경과와 <학생공모전 당선작 주민의견수렴 기초조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당시 학생이었던 우리들은 사업을 직접 추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도교수님이셨던 고 이종호 교수님께서 연구 책임자를 맡으시고 우리는 연구원이 되어 과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과업의 목적은 ‘뉴타운, 재개발 등 공공 주도의 전면철거형 정비방식에서 원주민이 보호되고 지역특성과 공동체가 유지되는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사업추진주체 구성 지원’ 이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정비사업 중 하나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의하는 정비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나.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다.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마. 주거환경관리사업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바. 가로주택정비사업 :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sup>4)</sup>

서울시에서 2002년부터 추진된 ‘뉴타운 사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정비사업 등과 관련된 전면철거형 정비방식이었던, 2012년 이후에 뉴타운 출구전략의 대안 중 하나로 진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으로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 기존 도시구조를 유지하며 주민과 함께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주거와 삶의 질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정비방식이다.

공모전의 계획안을 실제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사업대상지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였다. 우리는 골목길을 중심으로 공간들의 네트워크를 제안했기 때문에 사실상 영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50,000m<sup>2</sup> 이하의 영역을 설정해야했다. 행정적인 처리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이해 했지만, 마을에 선을 그어 영역을 구분하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졌다. 특히 이 사업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공원, 공동체 시설, 골목길 등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인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경계 안의 주민만 참여하여 결정한다는 것이 마음에 와 닿지 않았다. 이에 우리는 공모전 계획안을 크게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눠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하였다.

1차 영역 : 학교, 유치원, 실버센터 등 주민편의시설 확충  
2차 영역 : 복지관, 공원 등 지역시설을 활용하여 1차 지구와 연결  
3차 영역 : 어린이도서관, 마을학교 등 기존의 공동체 공간과 연계

1차 영역은 학교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2차 영역은 지역시설을 활용하고 1차 지구와 연결 하여 공간들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그에 비해 3차 영역은 기존에 활발하게 활동하는 공동체와 함께 기존의 공간과 연계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원이 풍부하고, 주거환경관리사업 취지에 잘 부합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이 일대가 서울시 에너지자립마을로 지정되어 특색 있는 마을만들기가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논의 끝에 3차 영역부터 역순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는 사업에 대한 경험이 전무했기 때문에 산학협력을 통해 행정적인 부분의 도움을 받았고, 서울시와 계약이 무사히 마무리 되면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졌다.

순조롭게 진행될 것만 같았던 사업에 대한 기대감은 주민과 본격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곧 불안감으로 바뀌었다.

/행정과 주민 사이에서 방황하다

주민들은 서울시에서 별 다른 이야기 없이 사업을 시행한 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가지고 있었다. 시에서는 ‘마을만들기 공모전’이라는 과정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물론 주민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가 시와 주민 사이의 소통을 도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2항

와주는 역할을 했어야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행정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문제였다. 주민들은 이미 휴먼타운사업, 디자인빌리지 사업 등 다른 마을에서 선행된 정비사업이 관과 시행업체 중심으로 진행된 나머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지속되지 못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시행업체는 용역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마을과 관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 시행 이후의 책임은 온전히 주민의 몫이다. 하지만 웬만큼 결속력이 강한 공동체가 아닌 이상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 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 청년에 대한 불신도 문제였다. 행정과 주민 사이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우리 역시 주민 입장에서는 용역이 끝나면 언제 마을에서 나갈지 모르는 대상이었던 것이다. 청년이 지역에서 활동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취업, 학업, 결혼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언제든지 다른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주민들은 지역에서 직접 계획을 하며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 나갈 시민MP(Master Planner, 총괄계획가)를 선정하여 주민이 주체가 되는 사업이 되기를 원했다.

초기에 사업을 이끌어 나갈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큰 어려움이었다. 우리는 공모전 준비 단계에서부터 주로 도서관과 마을학교를 운영하는 어머니들과 소통하였다. 하지만 어머니들이 마을 전체를 대표한다고 할 수 없었다.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 내 통, 반장님들과 대표자 회의를 진행하였다. 가파른 골목길 때문에 겨울에 눈이 많이 내리면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다, 마을에 녹지공간이 부족한 것 같다, 쓰레기가 잘 수거되지 않아 지저분하다 등 생활에 밀착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 하지만 사업의 방향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도 적극적으로 나서려 하지 않았다. 특히 시청과 구청 사이의 애매한 관계 설정이 문제였다. 기초조사 연구용역이 표면상 시에서 대학 연구실에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구에서 책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동력이 없었던 것이다. 누구 하나 선뜻 나서려 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기존의 공동

체와 우선 소통하면서 관심을 가지는 주민들을 천천히 늘려나가는 전략을 세웠다. 기존의 공동체가 주민 전체를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필요에 의해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공동체가 사업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공동체보다 더 건강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렇게 2013년 1월부터 3월까지 총 13번의 대표자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 초반에는 마을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미래상을 설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에너지자립마을이라는 주제가 부각되었고, 이와 관련된 논의가 회의의 중심내용으로 흘러갔다. 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기술자, 마을에 거주하는 건축가, 환경단체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회의에 참여하였다. 그러다 보니 사업의 본래 취지를 넘어서는 전문적인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는 '주거환경관리사업'과 '에너지자립마을사업'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고 생각하였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공공이 공유하는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개별 주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사업 대상 지역 내 주택을 대상으로 담장허물기, 옥상녹화, 리모델링 등과 관련된 연계 사업이 있긴 하지만, 사업비 일부 보조, 저리 용자 지원 등을 통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그치기 때문에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한다. 반대로 '에너지자립마을사업'은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활용, 단열 기능 개선 등 개별 주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거환경관리사업'과 연계가 된다면 확장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다. 하지만 각 사업의 주관 부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을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실제로 중간보고에서 단열사업 진행이 가능한 마을기업이 중심이 되는 주민협의체를 제안하였지만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구청과 협조가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또한 사업 추진의 어려움으로 공동체 사이의 복잡한 관계망도 논란의 대상이었다. 성대골 마을에는 어머니들 모임 이외에도 다양한 공동체가 존재하였다. 주민복지 확대와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 사회안전망 구축과 생태환경 조성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교회 등 지역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온 공동체가 있었다. 하지만 회의가 거듭되면서 서서히 여러 단체들 사이에 쉽게 보이지 않는 미묘한 긴장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공모전 당시에는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의 관계망이 사실은 굉장히 복잡했던 것이다. 처음에는 이러한 갈등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 3자의 입장에서 서로 생각을 모으고 힘을 합친다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 오히려 다양한 관점을 만들어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갈등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의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마을만들기가 성공하기 쉽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을을 너무 낭만적인 것으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은 것처럼 관계와 관계 역시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마을은 만들어질 수 없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는 것이 마을이다.

/공동체의 입장에서 생각하다

13번의 대표자회의가 끝나고 4월 초로 예정된 연구 마감에 결국 6월로 연장되었다. 대표자 회의만으로 연구를 마무리할 수 없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동의서 50%의 벽이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

우, 구역 내 거주자 중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문제는 본 사업이 마을에 직접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는 점이었다. 사업 대상지는 세입자 비율이 70%를 넘기 때문에 동의서 수령의 어려움을 겪었다. 소유자의 경우 재개발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에, 그리고 세입자의 경우 환경이 개선되면 집세가 오를 것이란 걱정 때문에 쉽게 동의를 하지 않았다. 또한 소유자 중에 그 집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심지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보통 동의서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구청의 협조와 통, 반장님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우리가 집집마다 들어가 아무리 문을 열어 달라 한들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 때문에 쉽게 열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애초에 시청과 구청 사이의 애매한 관계 설정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았다.

결국 4월까지 동의율이 30%를 채 넘지 못했다. 우리는 어떻게든 5월 말까지 동의율 50%를 넘겨야 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공동체의 어머니들 여섯 분과 통장님 두 분과 함께 팀을 이뤄 주중 야간과 주말 오후, 야간 시간을 활용하여 3주 동안 거의 매일 같이 거의 모든 집을 돌아다니며 동의서를 수령하였다. 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집이 계속 비어있거나 이사를 가고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온 경우가 많았다.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 중복방문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밤늦게 남의 집에 벨을 눌렀다며 화를 내시는 분도 더러 계셨다.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어머니들은 마치 자신의 일인 것처럼 열정적으로 도움을 주셨다. 특히 도움을 주신 분들 중에 사업 대상구역 내에 직접 살고 계신 분이 단 한 분도 없었다. 단지 구역 내에 어린이 도서관과 마을학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것이다. 이러한 열정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궁금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사업이 한참 진행되던 어느 날, 주민 대표에게 한 구의원이 찾아와 현재 마을에서 기초조사를 진행 중인 학생들을 털어내고, 주민-구의원-구청의 관계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자는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니 대상 구역을 줄여서라도 사업을 진행하자는 의견도 제시했다고 하셨다. 주민의 입장에서 그동안 우리의 위치가 주민과 시청, 그리고 구청 사이에 끼어 관계 설정이 애매하였기 때문에 거리를 유지하였고,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도록 시민MP를 제안하는 등 주민이 주체가 되는 마을을 위해 고민하였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구의원이나 시의원들이 활동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어떻게든 다음 선거의 공천에 활용하기 위해 마을을 이용하려 한다는 것에 너무나도 서운하고 화가 난다는 것이었다.

반면에 우리는 연구와는 별개로 자체적인 지역 활동을 이어나가기 시작하면서 주민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었다. 사업기간 연장 이후에 본격적으로 주민 설명회를 열어 더 많은 주민을 알게 되었고, 총 11번의 주민 참여 워크숍을 통해 문화, 경제, 주거 등 다양한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었다. 또한 주민과 함께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참여하였다. 결정적으로 사업 대상 지역 내에 빈 공간을 임대하여 현장 사무실로 쓰기 시작하면서 주민과 한층 더 가까워졌다. 주민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주민과 소통이 가능한 공간을 직접 운영하라는 고 이종호 교수님의 말씀이 큰 영향을 주었다. 당시 준공기한이 연장되면서 연구비를 받지 못해 생활비조차 마련하기 힘든 우리를 위해 6개월분의 월 임대료를 선뜻 빌려주셨다. 보증금은 각자 분담하였다. 덕분에 우리는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대료 30만 원의 공간을 임대할 수 있었다. 우리에게는 적어도 2년이라는 계약기간 동안 지역에 있을 것이라는 일종의 선언 같은 것이었다. 공간이 생긴 이후에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 우선 그동안 카페를 전전하며 작업을 진행하던 우리에게 거점공간이 마련되었고, 포스터, 설문지, 인터뷰 등을 통해 비정기적으로 주민과 소통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지역과 주민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과 태도가 달라졌다. 그동안 외부에서 온 연구자의 시선이었다면, 이제 정말 세입자로서 주민의 마음이 된 것이다.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니 우리를 대하는 주민의 태도도 달라졌다. 더 많은 주민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셨고, 동의서를 받기 위해서 밤낮으로 우리와 함께 뛰어다니셨다. 구의원이나 시의원의 태도는 오히려 강한 자극이 되었다. 공동체라는 것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 개인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 같다. 내 아이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 이를 위해 직접 도서관을,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고, 이와 관련된 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참여하는 것이다. 물론 무관심이 가장 편한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문제가 문제라고 알게 된 순간부터 문제를 외면하는 것이 더 불편한’ 그 마음이 우리를, 그리고 주민을 움직였다. 덕분에 소유자 517가구 중 260가구, 세입자 719가구 중 420가구의 동의서를 수령하여 전체 1236가구 중 55%의 동의를 받을 수 있었다. 이것이 사업에 대해 완전한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이 과정이 우리에게 의미 있었던 이유는 사업 시행 여부와 상관없이 공동체 입장에서 마을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점이다. 오히려 이를 통해 행정이 주도하는 사업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고, 공동체의 의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 때의 경험은 청년으로서 지금까지 마을살이를 하고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 때부터 우리는 사업을 위한 연구원이 아니라 마을에 사는 청년으로서 공동체와의 협업을 펼쳐 나갔다.

### 3장. 지역에서 적절히 협업하기

/청년 기획자가 되다

성대골 어린이 도서관에서는 2010년 10월에 문을 연 이후에 마을장터, 음악회, 연극공연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다. 마을학교에서는 2012년 4월에 문을 연 이후에 20여 명의 아이들을 위해 어머니들이 직접 일일교사가 되어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공간들이 마을로 확장되기 위해서 지역의 자원을 연결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체계화하고, 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기획이 필요하였다. 마침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사업> 공모를 발견하였다. 공고문을 보니 도서관과 마을학교에 적합한 지원사업이었다. 특히 마을만들기 공모전 때 제안했던 대안학교의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어머니들과 회의를 하였다. 다행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다. 문제는 기획서를 누가 작성하느냐는 것이었다. 어머니들은 부모커뮤니티, 에너지자립마을 등 이미 참여하고 있는 일들이 많아 책임지고 기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또한 사업 특성상 지역 특성에 어울리는 신선한 기획이 필요하였다. 다행히 이 사업은 기획자의 인건비를 별도로 책정할 수 있었다. 우리는 직접 기획을 맡기로 결정하였다. 우선 마을의 자원을 엮어 이야기를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씩 살을 붙여 나가기 시작했다. 기존의 마을에서 진행된 활동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위해 어머니들로부터 아이들을 위한 교육과정 작성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연극 연출가, 기타 연주자, 시인 등 지역의 예술가들을 발굴하여 어른들을 위한 강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활동들을 종합하는 축제를 기획하였다. 이

렇게 큰 그림이 완성되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채우고, 이에 따른 예산을 산정하였다. 총 2,700여만 원이 소요되었다. 우리가 처음으로 힘을 모아 작성한 기획안이었다. 다행히 이 기획안은 선정되어 시행되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사업은 뒤로 갈수록 힘을 잃었다. 사업이 지속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책임감이다. 하지만 사업에 참여하는 모두가 동일한 책임감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문화재단 사업에서 주체가 주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기획자가 되어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간 것이 문제였다. 우리는 사업을 통해 지원받는 주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안을 직접 작성했기 때문에 행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반면에 주민들은 사업의 주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수동적으로 받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처음에 가졌던 계획이 흐지부지 넘어가기 마련이다. 이 사업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기획자였던 우리가 주체의식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했다. 하지만 당시 기초조사 연구가 동시에 진행 중이었고, 동의서 수령과 사업 기간 연장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한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였다. 결국 일을 벌려놓고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꼴이 되어 버렸다.

우리는 이 사업을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리고 책임질 수 없는 일은 하지 말자란 교훈을 얻었다.

5) 지역별 특성에 기반 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생활권 내에서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연극, 무용, 음악, 시각예술 등 다양한 문화예술 분야의 체험, 학습, 창작프로그램을 지원한다.

## /청년 디자이너가 되다

다음으로 우리는 ‘에너지카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동네에 작업할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어머니들의 생각에서 출발하였다. 처음에는 근처에 저렴한 공간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공간이라 하더라도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과 에너지가 소모된다. 어머니들은 이미 도서관과 마을학교 운영을 통해 공간을 유지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다. 문득 주차장 이야기가 나왔다. 공영 주차장 한 칸을 빌리는데 한 달에 10만원이기 때문에 주차장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면 부담이 적지 않겠느냐는 의견이었다. 하지만 관련 법규가 문제였다. 아무리 컨테이너 박스라 하더라도 땅에 설치되는 순간 건축물로 분류되어 건축법이 적용된다. 주차장에는 건축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는 순간 불법 건축물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동 가능한 구조물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트럭을 개조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모아졌다. 트럭에 날개를 달아 한 면은 이동식 카페로, 다른 면은 공구들을 수납하여 이동식 작업공간이 되는 아이디어였다. 날개에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도록 하였다. 트럭 자체가 이벤트 공간이자 에너지에 대한 교육 공간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들을 종합하여 디자인과 시공을 진행하였다. 우리의 첫 디자인 프로젝트였다.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렴한 중고 트럭을 구입하였고, 디자인은 재능기부로 진행되었다. 여러 차례 회의와 수정을 통해 디자인이 결정되었고, 인천을 왔다 갔다 하면서 태양광 패널 설치 업체와 특장차<sup>6)</sup>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해바라기 에너지카(이하 에너지카)’가 탄생하였다.

6) 특수한 장비가 설치된 차량

에너지카는 이후에 여러 축제를 돌아다니며 성대골의 대표적인 상징이 되었고, 마을기업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우선 애초에 생각했던 것 보다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었다. 차량 보험 비 에서부터 기름 값, 수리비 등 공간을 임대하는 것 못지않은 비용이 소모되었다. 무엇보다도 낡은 트럭에 무거운 구조물을 올린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노후 된 트럭에 지속적으로 하중이 가해지면서 브레이크가 마모되고, 배기구가 변형되었다. 실제로 브레이크 미 작동으로 여러 번 아찔한 순간을 경험하였고, 정기적인 차량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수리비용이 과다하게 청구되었다. 행사 때마다 누가 운전하느냐도 문제였다. 비용절감 차원에서 수동을 오토로 전환하지 못한 나머지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초반에는 우리 중 한 명이 운전을 도맡아 하였다. 행사가 있는 날에는 운전 이외에 다른 일을 할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운전에 대한 스트레스가 점점 누적되었다. 어머니들 사이에서도 에너지카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었다. 에너지카를 통한 수익이 도서관 운영의 큰 부분을 차지하면서 본래의 작업공간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린 채 행사를 위한 차량이 되어버린 것이다. 행사 참여의 빈도가 계속 늘어나면서 운영에 대한 스트레스는 늘어났고, 에너지카는 성대골의 애물단지가 되어 버렸다. 이제는 초반에 비해 운영에 대한 노하우도 많이 쌓였고, 운전에 대한 문제도 해결됐지만 에너지카를 둘러싼 고민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카는 청년과 주민이 함께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는 성취감을 처음으로 안겨주었다. 이러한 성취감은 어머니들에게 마을기업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고, 우리에게 청년으로서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일련의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는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였고, 연구 이후를 고민하게 되었다. 4월이면 끝날 줄 알았던 기초조사 연구가 6월로 연기되었다. 2개월 동안 추가 보수 없이 마을에 있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

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점차 '주거환경 관리사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아갔다. 우리는 그저 사업 시행 전에 기초 조사를 맡았을 뿐이었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전문성을 갖춘 설계사무소와 엔지니어링 업체가 마을에 들어온다. 마을만들기 공모전 당선작이 사업으로 추진된 다른 마을의 경우, 연구를 진행한 학생이 설계사무소에 취직을 해 사업을 이어 나갔다는 이야기가 들려왔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였다. 실제로 연구가 끝나던 시점에 이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업체들과 만나 협업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공동체와 협업을 통해 관계를 맺으면서 다른 생각을 갖게 되었다. 경험이 부족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리고 관에서 주도하는 사업의 특성상 행정예, 그리고 정쟁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 그럴 바에는 작더라도 우리가 주체가 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낫다. 청년이 마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고유한 영역을 구축해야한다. 청년의 역할을 넘어서는 일을 그저 의무감과 책임감 때문에 억지로 끌고 나가는 것은 당장은 좋을 수 있어도 오래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가 내린 결론이었다.

BLANK는 그렇게 결성되었다. 청년으로서 마을에서 주체가 되어 살아남기 위한 우리의 생존전략이었던 것이다.

/자립을 위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다

BLANK는 씨즈(seed:s)이라는 단체를 만나면서 처음 시작되었다. 마을기업과 관련된 자문을 위해 마을에 방문했다가 우리를 알게 되었고, 우리에게 많은 관심을 보여 주셨다. 마을에서 청년들이 활동한다는 것이 신선했던 것이다. 우리도 청년을 지원해주는 사업과 이를 위한 단체가 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생활비 마련조차 쉽지 않은 창업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었는데 창업을 고민하는 청년들을 위해 생각보다 많은 기회가 있었던 것이다. 마침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고 씨즈가 위탁, 운영하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sup>8)</sup>> 모집공고가 곧 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우리는 이 사업에 지원해 보기로 결정하고, 마을만들기를 통해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사업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었다. 회의를 반복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이 나왔다.

1. 재산으로 여겨지는 '땅'과 '집'의 의미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2. 갑-을 관계인 소유주와 세입자의 관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3. 도시에서 공동체 활동은 항상 목적이 수반되어야 하는가?
4. 도시를 개발하는 방식에 대안이 없을까?

우리는 사고파는 재산으로 여겨지는 '땅'과 '집'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지 않는 이상 마을만들기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였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거친 콘크리트 옹벽, 쓰이지 않는 공원, 비어있는 주차공간, 건물이 없는

---

7) 씨즈(seed:s)는 청년 사회적기업가를 키우며 사회적기업의 혁신모델을 만들고 미래를 연구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청년 사회적기업가 양성, 한국형 사회적기업의 발전 모델 개발, 사회적기업을 위한 시민 기반 조성, 사회적기업 실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http://www.theseeds.asia>

8) 사회적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창업비용, 창업공간, 멘토링 등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사회적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1년 미만의 기업에 최대 4,000만원의 창업비용과 멘토링 서비스, 사무공간 등이 제공된다. 권역별로 지원이 가능하며, 서울의 경우 2014년 현재 씨즈를 포함, 총 6개의 위탁기관이 있다.



나대지, 건물의 옥상,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등 땅과 집 사이의 경계 속에서 무의미하게 버려진 공간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주민들과 이야기 하면서 이러한 공간들을 사용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 있었다. 우리는 버려지거나 방치된 공간을 소유한 사람과 공간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를 연결해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또한 단순한 임대 연결을 넘어 기획과 디자인을 통해 공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면 도시를 개발하는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이러한 공간들이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유공간이자 일상적인 생활공간이 되기를 바랐다. ‘우리동네 생활공간 되살림’이란 사회적 미션을 갖고, 비어있다는 뜻의 BLANK를 팀 이름으로 정하여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PT 심사를 거쳐 3기 지원팀으로 최종 선정되었다. 이 사업을 통해 우리는 마을에서 자리 잡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비록 인건비나 임대비 지원은 안 되었지만 활동비, 교육비, 사업화 개발비 등 사업 초기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청년 팀들을 많이 알게 된 것이 이 사업을 통해 얻게 된 가장 큰 성과였다. 도시마을건축사무소, 어반소사이어티, 우리동네사람들, 청년기획자네트워크, OO은 대학 등 마을과 청년에 대해 고민하는 팀들과 함께 소통하며 서로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었다. 이 때의 인연은 협업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힘들었던 시기에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료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안이자 희망이었고, 신선한 자극을 주었다.

그럼에도 사업은 아무나 하는게 아니었다. BLANK란 팀이 만들어지고 우리는 연속적인 실패와 깊은 좌절을 경험하게 된다. 자립을 향한 몸부림이 시작된 것이다.

#### 4장. 자립을 위한 몸부림 : 실패를 통해 배운 것들

/책임질 수 있는 힘을 키우자

기초조사 연구 기간이 연장되고, 우리는 닥치는 대로 공모사업에 참여하였다. 경험이 없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그리 많지 않았다. 사업 계획서에서 우리가 제안한 아이디어는 단 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성격의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버려진 땅과 건물을 사업의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유자와의 큰 신뢰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마을에서 형성된 관계와 벌려놓은 일들도 당장 사업을 시행하기 힘든 이유 중 하나였다. 우리는 우선 당장 해야 하는 일을 하나씩 하면서 사업에 대한 생각을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가장 시급한 일은 기초조사 연구를 마무리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1주일에 한 번씩 주민 워크숍을 준비하고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커뮤니티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하는 한 사회적기업의 대표님을 알게 되었다. 함께 마을만들기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우리에게 프로젝트를 하나 같이 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의를 하셨다. 명동 근처에 애니메이션 거리를 조성하는 현상공모 프로젝트였는데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곳곳에 퍼져있는 공간들을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우리는 거리 조성을 위해 지역의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개념이 흥미로웠다. BLANK라는 팀을 만들면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갈증도 있었다. 사실 그보다 당장의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매력적이었다.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지급이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처음 며칠은 즐거웠다. 답사를 가서 지도에 맵핑을 하고, 상인과 주민을 만나 이야기 나누었다. 게스트하우스와 봉제 및 출판업체가 많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우리는 흩어진 게스트하우스를 연합하여 네트워크를 만들고, 지역의 식당, 세탁소, 카페

등을 연계하여 활기 넘치는 골목길을 제안하였다. 또한 애니메이션이라는 콘텐츠와 봉제 및 출판이라는 산업을 연결하여 지역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미래상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마감이 다가오면서 서로 작업방식의 차이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다. 우리가 소프트웨어와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결과물을 만들고자 했다면, 사회적기업의 대표님께서는 당선율을 높이기 위해 시각적인 부분을 강조한 결과물을 요구하셨던 것이다. 처음에는 우리가 주체가 되어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로 이야기 했었지만,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며 힘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결국은 마감 당일까지 밤을 새워가며 억지로 대표님께서 원하시는 이미지 작업을 진행하였고, 가까스로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결과는 2등이었다. 사업은 1등 작만 시행되기 때문에 현상공모에서 2등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2등을 했다는 아쉬움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였다. 보통은 순위에 상관없이 결과물에 만족하면 후회가 없는데, 밤낮으로 고생하며 만든 결과물에 별로 애착이 가지 않았다. 우리가 생각했던 결과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제안했다면 2등조차 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왜 우리는 프로젝트의 주체가 될 수 없었을까? 결국 중요한건 책임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프로젝트에 BLANK의 이름은 없었다. 인건비를 받고 작업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반면 회사의 이름을 걸고 제안하는 입장에서는 결과물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제안한 결과물이 곧 그 회사의 얼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조직의 형태, 방향, 체계, 실적 등 모든 것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BLANK의 이름으로 당장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협업을 통해 프로젝트의 주체가 되겠다는 생각은 지나친 오만이었다. 동등한 관계에서 하는 협업이 아닌 이상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책임의 정도만큼 결정의 자유도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책임질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사소한 것이라도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다. 책임질 수 없는 일에 우리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만큼 무책임한 일은 없다.

마을에서 협업을 통해 ‘책임질 수 있는 일만 하자’ 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책임질 수 있는 힘을 키우자’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돌고 돌아 다시 마을로 오다

책임질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외부활동을 이어나갔다. 우리의 이름을 걸고 대기업에서 주관하는 아이디어 공모에 버려진 공간을 맵핑하는 어플을 제안하기도 했고, 마을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버스정류장을 디자인하기도 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를 경험하며 현실의 벽을 체감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위탁기관이었던 ‘씨즈’의 소개로 금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의 미팅을 갖게 되었다. 빈 공간을 발굴하여 개발하고 싶어 하는 BLANK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다는 먼저 연락을 준 것이다. BLANK라는 이름을 걸고 본격적으로 우리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센터에는 마을 건축 팀도 있었고, 공동체와 연계된 다양한 프로젝트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었다.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였다. 마침 구청에서 소유한 땅 중에 개발 가능성이 낮아 방치된 땅의 리스트가 있었다. 우리는 답사를 통해 가능성 높은 땅을 직접 찾아 나섰다. 그 중, 어린이집이 이전하면서 방치된 건물과 그 옆의 버려진 땅을 발견하였다. 실제로 구청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 중인 건물이었다. 우리는 근처에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청년 팀과 함께 건물 및 땅 활용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기획하였다. 빈 땅에서 텃밭 및 정원

을 키우고, 이를 활용한 음식들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공간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도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갔다. 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고, 함께 기획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하는데 우리의 역할이 문제였다.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대골 마을에서 했던 것처럼 주체가 되어야 했다. 하지만 성대골 마을에서 이미 형성된 관계를 뒤로 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은 불가능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둘 다 놓쳐버리는 것이 불 보듯 뻔했다. 그렇다고 기획만 하고 빠져 나오기에는 책임에 대한 부담감이 컸다. 주체가 아니라 결국은 객체가 될 것이고, 이는 우리의 지향점과는 거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마을과의 협업을 통해 '책임질 수 있는 일만 하자'는 교훈을 얻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프로젝트는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다면 BLANK로서 '책임질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결국 우리는 성대골 마을에서의 활동에 집중하기로 했다. 마을에서 주체가 되어 책임질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동안 쌓여진 신뢰와 관계의 끈을 이어 나가는 끈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함께 한다는 것의 의미 : BLANK에 위기가 찾아오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BLANK라는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고 이렇다 할 수입이 발생하지 않았다. 지인의 사무실을 설계한 것이 유일한 수입이었다. 이마저도 처음으로 진행한 설계였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설계뿐만 아니라 기초조사 연구, 문화재단 사업, 사회적기업

가 육성 사업과 관련된 행정처리만 해도 정신이 없었다. 다들 서서히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했다. 사무실로 임대했던 공간은 여름이 되자 찜통이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우리는 각자 역할을 나눠 일을 처리하였고, 함께 만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다. 자연스럽게 BLANK라는 팀에 대해 이야기 나눌 시간도 줄어들었다. 눈에서 멀어지니 오해가 늘어났다. 그러던 어느 날, 팀원 중 한 명이 저소득 주거지 집수리 및 거리조성 참여를 위해서 지역 내 NGO단체에 두 달 정도 취업을 하면서 BLANK에 본격적으로 위기가 찾아왔다.

첫 번째는 수익 배분의 문제였다. 일의 경계가 애매해 지면서 BLANK로 하는 일과 개인으로 하는 일 사이에 오해가 생기기 시작했다. 두 번째는 역할 배분의 문제였다. 역할을 동등하게 나눌 수 없었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일이 몰리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 세 번째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문제였다. 분명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일이 진행되는 속도나 방향에 서로의 생각과 입장이 달랐던 것이다. 여러 번 대화를 해도 서로의 오해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다. 결국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의견까지 나오게 되었다. 누군가가 일을 맡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고 진행해야 한다. 일은 결정의 연속이다. 주도적으로 역할을 맡은 사람이 그 일에 대해 가장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순간의 선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모든 결정을 합의를 통해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그러다 보면 서로 말하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오해가 쌓이게 된다. 아무리 역할을 나누고 일을 분배한다 해도 내가 맡지 않은 일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단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일 하면 함께 일한다는 생각이 들까?

우리는 함께 일한다는 의미를 찾기 위해 매주 회의 날짜를 정하고, 실시간으로 소통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소통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BLANK라는 팀의 방향에 대해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었다. 경험의 부재를 밑에서부터 스스로 채워 나가는 것과 이미 경험한 사람으로부터 터득해 나가는 것 사이에서 입장의 차이가 있었다. BLANK라는 팀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전자가 필요하였고, 개인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후자가 필요하였다. 팀의 입장에서 일을 바라보는 것과 개인의 입장에서 일을 바라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생각의 차이가 함께 일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는 감정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은 같은 입장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유대감에서 비롯된다. 우리는 기나긴 대화 끝에 2명은 BLANK의 입장에, 1명의 개인의 입장에 서게 되었다.

그렇게 3명이 함께 시작했던 BLANK는 결국 2명이 되었다. 이 때의 위기는 우리에게 청년으로서 마을에서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고민을 던져 주었다. 그리고 마을에 남겨진 우리 둘은 이사를 왔다. 진정한 마을살이가 시작된 것이다.

## 5장. 청년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것들

/함께 공간을 공유하다

2013년 6월, 학생공모전 당선작 주민의견수렴 기초조사용역이 공식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그 즈음에 BLANK라는 팀을 만들고 건축설계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여러 실패와 위기의 순간을 경험하며 BLANK는 두 명이 되었고, 마을의 주민이 되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위해 새로운 설계사무소와 엔지니어링 업체가 마을에 들어왔다. 우리는 이제 연구자가 아니라 주민으로서 사업에 참여하였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연구 당시 추상적이었던 공동체에 대한 생각이 연구가 끝나면서 확고해졌다. 쉽게 만들어진 공동체는 그만큼 쉽게 해체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느냐이고,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왜 하느냐이다. 새롭게 들어온 업체들은 기존 공동체의 내실을 다지는 방향이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려는 시도를 하였다. 공동체에 속해있는 사람보다는 마을에 필요한 것들을 먼저 생각했고,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보다는 방법에 더 초점을 맞췄다. 용역사가 주도하는 워크샵에 한계를 느낀 주민들은 결국 직접 주체가 되어 사업을 이끌어 나가기로 하였다. 서로의 관심사에 따라 마을문화, 에너지자립, 주거복지, 거주환경, 사회적경제 등 총 다섯 개의 분과 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이를 중심으로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었다. 우리는 에너지자립과 거주환경 분과에 주로 참여하였다. 하지만 이 사업이 우리의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해 주지는 않았다. 우리는 스스로 마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했다.

연구용역 당시 임대했던 공간은 연구가 끝나면서 말 그대로 BLANK가 되어 버렸다. 처음에는 한쪽 벽면에 기부 받은 책장을 채우고, 마을에서 주워온 폐 파레트와 버려진 문짝, 그리고 물류창고에서 빌려온 플라스틱

쥬스상자에 봉제하는 아저씨께서 주신 폐천을 덮어 소파와 의자를 만들어 사무실로 활용하였다. 하지만 외근을 나갈 일이 많아지면서 사무실에 오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었다. 빈 공간을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 BLANK라는 팀을 만들었지만 정작 우리의 공간을 방치시킨 것이다. 공간 운영에 대한 부담감과 회의감을 느끼던 중 지역에서 활동 중인 청년회를 만나게 되었다. 이 때 청년회는 NGO단체로 등록하여 지역에서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싶은데 공간이 없어서 활동의 제약이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그러면서 가능하다면 월세를 함께 부담하여 공간을 공유하고 싶다는 제안을 하였다. 우리는 당장이라도 공간을 공유하고 싶었지만 함께 사용하기에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공간 운영에 대한 계획이 불확실하였기 때문에 결정을 보류하였다. 이후 우리는 청년회와 함께 집수리 봉사도 나가고, 함께 벽화도 그리면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갔다.

그러던 중, 우리는 ‘청년허브’와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하고, 연세대학교 조한혜정 문화인류학과 교수님의 발의로 진행된 <동네나눔부엌 추진모임>에 참여하게 되었다. 성대골 마을에서 주민들과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 활동가 대표로서 우리의 이야기와 고민을 나눴고, 이웃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느슨한 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나눔부엌’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다. 마침 청년회에서 노량진의 청년들과 독거노인을 위한 ‘희망도시락’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청년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발견한 것이다. 사실 처음 계획은 주민센터 지하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나눔부엌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다.

‘동네 나눔 부엌’이라는 장소를 상상해보자. 동네마다 주민자치회관이나 동사무소가 있고 그곳에 직원 식당이 있다. 점심시간에만 사용하는 그 공공공간을 주민들에게 개방한다고 생각해보자. 독점이 아닌 공유의 원리를 삶 속에서 뿌리내려 보자는 것이다. 여유가 생긴 주부들과 요리에

취미가 있는 프리랜서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동네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생각해보자. 아마도 동네에 사는 대학생들이 가장 환영할 일일 것이다. 4년 내내 공짜로 밥과 술을 얻어먹으며 대학 시절을 보냈다는 이야기는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돈이 없어서, 또는 바빠서 밥을 대충 때우거나 아예 못 먹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모두가 ‘집밥’을 그리워하게 되었고, 대학가에는 ‘함께 밥 먹자’는 동아리까지 생겨났다. 반찬 만드는 법을 가르쳐준다면 동네 부엌은 더욱 붐비지 않을까? 국을 제대로 끓일 줄 모르는 나도 배달 온 꾸러미 채소를 가지고 회식이 없는 날이면 그곳에서 밥을 얻어먹고 부지런히 설거지를 할 것이고 끼니를 제때 챙겨 먹지 못하는 절먹이 아기 엄마가 오면 엄마의 식사시간 동안 아기를 돌볼 것이다. 방과 후에 마을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나 딱히 갈 곳이 없는 아이들이 동네 부엌에서 밥을 먹고 정이 가는 동네 형과 언니들에게 숙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도 벌어지지 않을까?9)

성대골 마을의 주민 센터 역시 지하에 직원들이 이용하는 구내식당이 있었다. 하지만 이 곳은 점심시간에만 식당으로서 제 기능을 했다. 100평이 넘는 이 대공간에서 가끔 큰 행사나 주민을 위한 강좌가 열리지만 4층에 비슷한 목적의 다목적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빈 공간이었던 것이다. 우리는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과 미팅을 갖고 이 공간을 공유부엌, 세미나실, 연습실 등 주민들을 위한 대안공간으로 활용하는 제안을 하였다. 가변적으로 공간을 구성하면 기존의 프로그램을 충분히 수용하면서도 주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제안은 실현되지 못했다. 첫 번째는 공간 활용에 대한 ‘절차와 권한’이, 두 번째는 공간운영에 대한 ‘관리와 책임’이 문제였다. 과거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주

9) “조한혜정 칼럼, 동네 나눔 부엌에서 시작하는 세상”, <한겨레신문>, 2013년 4월 23일.

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공간 활용 및 운영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민간의 영역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필요에 의해 작은 도서관, 북카페, 공방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공간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하지만 행정의 도움 없이는 이러한 공간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쉽지 않다. 공공공간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행정 차원의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주민센터를 활용에 대한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른 방법을 고민하였다.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던 우리의 공간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처음에는 10평 남짓한 공간에서 공유부엌, 세미나실, 연습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100평에서 하던 상상을 10평에서 하기가 쉽지 않았다. 자금도 문제였다. 다달이 월세를 지불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상황 속에서 시설비에 투자할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다행히 서울시에서는 2012년 9월,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해 오고 있다. 여러 지원 사업 중에 <주민제안사업<sup>10)</sup>> 중 공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주민제안사업>에 지원하여 우리의 공간을 마을의 공유공간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통해 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공간을 공유하면서 동시에 주민들과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제안서를 작성하면서 문득 마을에서 청년으로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던져 보았다.

아직까지 마을과 청년, 일과 생활 사이에서 우리는 방황하고 있었다.

10) 주민들이 함께 모이고, 함께 기르고 돌보며, 함께 먹거리를 찾고, 함께 일자리를 만들고, 함께 즐기는 활동과 이를 위해 주민들이 모일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전 과정을 주민들이 수립해 추진하는 주민주도 사업이다.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역인 3인 이상 주민 및 단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활동 부문에 최대 2천만원, 공간 부문에 최대 5천만원의 지원이 가능하다.

/마을에서 청년으로서 산다는 것

마을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대학원 막바지에 각자 나름대로 미래를 고민하고 있었다. 하지만 취업과 학업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그렇게 넓지 않았다. 청년으로서 지역과 사회를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기 보다는 그저 어떤 회사에 들어가야 하는지, 아니면 학업을 더 이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을 할 뿐이었다. 하지만 마을에 들어오면서 부터 우리는 새로운 역할을 발견하였다. 마을에서는 주로 어머니들과 어르신들이 중심이 되어 마을을 가꾸어 나간다. 보통 아버지들은 일터로, 청년들은 취업전선으로 나가기 때문에 주로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들과 은퇴를 하시고 마을살이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마을의 구심점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마을의 네트워크가 잘 순환하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를 고려한 세대 간의 소통이 중요하다. 어머니들과 어르신들은 마을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은 많으시지만 실제로 실현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가령 우리에게 익숙한 문서작성이나 피티 제작 같은 것들이 마을에서 활동을 하는데 진입장벽이 되는 것이다. 또한 에너지와 추진력은 있지만 이를 구체화 시키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청년들은 젊은 시각을 통한 창의력과 도전의식을 가지고 있다. 반면 어머니들과 어르신들은 앞선 경험을 통한 통찰력과 추진력을 가지고 있다. 청년들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일을 하기에 적합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마을 일을 통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학교에서 이론으로만 배웠던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이 마을과 청년의 결합을 통해 가능할 것 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다. 마을을 거점으로 활동하면서 다양한 청년 모임과 사회적기업, NGO단체를 만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지역을 기반으로 자신의 길을 스스로 찾아 나서는 청년들, 혹은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청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청년들이 모여 서로의 고민들을 나누고, 지역 주민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다양한 일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공간이 마을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고민을 모아 청년과 주민을 연결하는 거점공간으로서 '청춘플랫폼'을 제안하였고, 공간조성 지원을 받게 되었다. 우리는 이 작은 공간을 통해 마을과 청년, 일과 생활이 하나로 엮여지기를 기대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공간을 상상하기 시작하였다.

### /공간을 상상하고 만드는 것

청년과 주민이 모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청춘플랫폼'이란 공간이 마을에 생겼을 때 발생 할 장면들을 상상하는 것이 공간을 상상하는 첫 걸음이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함께 모여 밥을 먹으며 담소를 나누는 장면이었다. 직접 요리를 하고, 남은 반찬들은 나누고, 마을을 오고가는 사람들이 가볍게 차라도 한 잔 할 수 있는 공간. 그렇다고 이 곳이 식당이나 카페가 되기를 바라지는 않았다.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집 안의 거실이나 부엌과 같이 일상 속의 편안한 공간으로 사람들과 관계 맺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처음 생각과 달리 청춘플랫폼에서 <나눔부엌>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졌고, 독립적인 공간의 비중을 최소화 하였다. 다음으로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면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장면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 이왕이면 마을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다양한 경험을 한 주민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 주민이 직접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고, 생활의 노하우를 나누고, 좀 더 배우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함께 배울 수 있는 공간. 이를 위해서는 열 명 남짓한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과 의자, 빔 프로젝터, 책꽂이 등이 필요했다. <인생배움터>는 청년과 주민의 이러한 모임들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었다.

이렇게 기획된 <나눔부엌>과 <인생배움터>는 기본적으로 공간 안에서만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우리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정해진 공간 안에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을단위를 아우를 수 있는 이벤트를 상상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현재 마을에서 운영 중인 이동식 마을카페 '해바라기 에너지카'를 활용하여 반찬나눔을 하는 <해바라기 나눔카> 프로그램과 동네를 돌아다니며 동네의 기억과 이야기를 수집하여 기록하는 <동네 탐험대>를 기획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청춘플랫폼'이라는 공간과 마을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고, 다양한 이야기가 담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우리는 이러한 기획을 토대로 공간을 설계하기 시작하였다. 기본적으로 부엌공간, 거실공간, 사무공간이 필요하였다. 10평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서로 다른 성격의 세 공간들을 어떻게 조합하고 구성할까에 대한 고민을 이어 나갔다. 마을에서 주체가 되어 진행한 첫 번째 프로젝트이자 BLANK라는 이름으로 진행한 첫 번째 프로젝트로 설레는 마음을 갖고 즐겁게 작업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공간을 만든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게다가 우리가 직접 주체가 되어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선하나 그리는 것조차 부담스러웠다.

처음에는 '누구나 쉬었다 갈 수 있는 마을의 평상'이라는 컨셉으로 좌식 공간을 계획하였다. 커다란 마루를 설치해 편하게 앉아 밥도 먹고 차도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접이식 문을 활용해 완전히 열린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 하지만 그리 넓지 않은 공간에 커다란 마루를 설치하고 나니 부엌공간과 사무공간이 협소해졌다. 그렇다고 부엌을 넓게 쓰자니 동선 때문에 마루가 작아져 거실공간이 협소해졌다. 결국 공간활용이 좀 더 용이한 입식공간으로 방향을 정하고, 부엌과 거실 공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설계를 수차례 수정하였다. 기존의 벽체와 바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도 설계의 주안점이었다. 30년이 넘는 세월을 버티면서 건물은

많이 노후 되어 있었다. 단을 높이고 가벽을 설치해 온돌방을 만들고 다락이 설치되어 있었다. 문과 창문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었다. 우리는 최대한 기존의 분위기를 살리고 싶었다. 하지만 방이 애매하게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 공간 활용이 비효율적이었다. 우리는 결국 효율을 선택하였다. 기존의 벽체를 최대한 철거하고, 단을 일부만 남겨 사무공간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부엌공간과 사무공간, 거실공간의 경계를 애매하게 나눠주는 가벽을 설치하여 각 공간들 사이의 위계를 설정하였다.

문제는 예산이었다. 넉넉하지 않은 예산으로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다. 접이식 문은 가격 때문에 유리문으로 변경하였다. 책상, 벤치, 선반 같은 가구들은 산업용 파이프를 조립하여 직접 제작하기로 했다. 가장 중요한 부엌공간의 싱크대 역시 제작 단가가 너무 비싸 직접 제작할 수밖에 없었다. 궁여지책 끝에 콘크리트 블록을 쌓고, 직접 재단한 나무를 올려 싱크대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처음 해보는 시공이라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5년 동안 건축학과에서 배운 수업들은 실제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철거공사부터 전기공사, 목공사, 도장공사, 바닥공사, 창호공사, 가구공사 등 각각의 공정을 유기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 서툴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도장공사나 가구공사는 비용절감 차원에서 직접 진행하였다. 우리가 생각한대로 진행된 공정은 하나도 없었다. 시행착오의 연속이었다. 한 달 동안의 설계와 한 달 동안의 시공을 거치며 '청춘플랫폼'이란 공간이 완성되었다. 청춘의 33에서 사람들이 손잡고 있는 모습을 떠올려 로고를 만들고 간판을 달았다,

청춘플랫폼이 완성되었다는 기쁨도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우리는 공간 운영이라는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하였다.

/공간을 운영한다는 것, 또 다른 어려움

2013년 10월 17일과 24일, 두 번에 걸쳐서 오픈파티를 열었다. 오픈 이후에 연말까지 총 38번의 모임이 진행되었고, 346명의 누적 인원이 모임에 참여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가 청춘플랫폼이 마을의 중요한 공동체 공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공간을 운영한다는 것은 공간을 만드는 것 이상으로 힘든 일이었다. 우리는 처음에 제안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1주일에 한 번씩 '나눔부엌'과 '인생배움터'를 운영하였다. '나눔부엌'은 어머니들과, 그리고 '인생배움터'는 청년회와 함께 진행하였다. 하지만 새로운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가 쉽지 않았다. 행사에는 매번 오는 사람들만 오고, 소모성 행사로 끝나버렸다. 지나다니면서 관심을 보여주는 주민은 많았으나 선뜻 들어오지를 못하였다. 공간의 애매한 성격이 문제였다. 카페도, 식당도, 사무실도 아닌 모호한 공간구성 때문에 자연스럽게 문턱이 높아진 것이다. '청춘플랫폼'이란 이름만 들어서는 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지 감을 잡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상한 종교단체인줄 알았다는 이야기까지 듣게 되었다.

공간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를 함께 제안한 어머니들 및 청년회와 함께 운영에 대한 고민을 나뉘어야 했다. 하지만 어머니들은 이미 마을에 두 개의 공간을 운영하고 계셨고, 청년회 구성원들은 각자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간 운영에 대해 함께 고민하지 못한 채 프로그램이 있을 때만 만나는 관계가 되어버렸다. 결국 공간 운영에서 프로그램 진행, 그리고 행정적인 처리 까지 우리가 주도적으로 맡게 되었다. 공간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았다. 주기적으로 바닥을 쓸고, 창문을 깨끗이 닦고, 냉장고를 정리해야 했다. 매 달 나오는 월세와 공과금을 처리해야 했으며 손님이 올 때 마다 환대해야 했다. 이러한 일상적인 행위들이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 '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월세를 함께 부담했던 청년회와 이러한 부분에서 서로 오해가 쌓이



기 시작하였다. 공간을 ‘관리’하는 우리의 입장과 공간을 ‘공유’하는 그들의 입장이 서로 달랐던 것이다. 열쇠를 공유하는 문제를 가지고 각자가 공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를 나누었고, 함께 역할을 나눠 공간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하지만 청년회에서는 일정 시간동안 상주하면서 공간을 관리할 여유가 없었다. 결국 우리가 공간을 운영하기로 하고, 월세는 우리가 부담하며 공간이 필요할 때만 공간을 공유하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우리 역시 BLANK라는 팀으로서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였기 때문에 공간 운영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고, 청년회와는 서서히 멀어지게 되었다. 자연스럽게 ‘청춘플랫폼’은 소수를 위한 공간이 되어 버렸다.

그럼에도 공간이 주는 힘은 컸다. 함께 주기적으로 밥을 먹으며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다. 우선 기초조사 연구 당시 제안했던 마을기업에 대한 고민을 이어 나갔다. 어머니들과 함께 마을기업 ‘마을닷살림’을 설립하고, ‘에너지 슈퍼마켓’을 기획하였다. ‘마을닷살림’은 성대골 에너지자립 마을의 자립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BLANK를 비롯한 지역 내 5개의 단체가 추진하고, 40여 명의 개인 출자자가 모여 설립한 협동조합이다. ‘에너지 슈퍼마켓’은 이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제품을 홍보, 판매하며, 집수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BRP 사업(Building Retrofit Project, 에너지효율화사업<sup>11)</sup>)을 연결해주는 거점공간이다. 마을기업 추진을 위해 어머니들과 우리는 ‘청춘플랫폼’에서 회의를 거듭하였고, ‘에너지 슈퍼마켓’의 브랜딩과 공간 설계를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마을의 기술자 분들과도 관계가 만들어져 지금까지 협업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주민들과 신뢰가 생기면서 크고 작은 설계를 의뢰받기도 하였다.

11) 단열 보강, 창호개선, LED조명 설치, 보일러 교체 등 건물의 에너지 손실과 비효율적인 부분을 개선하여 에너지 사용량 절감과 에너지 이용 효율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일반 주택에 8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최대 1천만원의 융자 지원이 가능하다.

2013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지원은 끝났다. 우리는 지원 없이 공간이 자립할 수 있도록 공간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청춘플랫폼’은 청년으로서 마을에서 지속가능한 삶을 살기위한 공유의 시작이었고, 공간을 넘어 마을로, 그리고 사회로 공유의 가치를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이어 나갔다.

## 6장. 지역에서 사회로 : 공유의 가치

### /프로젝트를 통한 경험 쌓기

‘청춘플랫폼’이 완성된 이후에 우리는 지속 가능한 수익구조를 만들어야 했다. 간단한 커피나 차를 만들어 판매하기도 하고, 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대관을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월세를 마련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운영을 위한 비용을 다른 방식으로 마련해야 했다.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설계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우리에게 믿고 일을 맡길만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경험이 별로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설계 프로젝트를 맡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가 필수적이다. 그동안 했던 작업들로 신뢰를 얻고 설득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트럭을 개조한 ‘에너지카’와 10평짜리 ‘청춘플랫폼’, 그리고 5평짜리 ‘에너지 슈퍼마켓’을 설계한 것이 보여줄 수 있는 전부였다.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위탁기관이었던 ‘씨즈’를 통해서 대안학교 리모델링, 옥장정원 만들기, 게스트하우스 설계 등 몇 개의 일이 들어왔지만 번번이 었어졌다. 무엇보다도 설계를 의뢰받을 때 우리가 세운 몇 가지 원칙들이 큰 걸림돌이 되었다.

첫 번째 원칙은 ‘계약 없이 제안서 작업을 진행하지 말자’였다. 일반적으로 설계를 의뢰하면 계약하기 전에 제안서를 요청한다. 제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된 사례를 조사하고, 컨셉을 정하고, 공간 구성에 대한 제안을 해야 한다. 설계는 크게 기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단계를 거쳐 완성되는데, 기획설계 단계가 바로 이러한 제안서 작업이다. 즉, 제안서 작업도 엄연한 설계의 과정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관행적으로 대가 없이 제안서를 작업해준다. 심지어 공간의 전체적인 이미지가 완성되는 기본설계까지 진행해서 제안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일을 따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설계를 의뢰하는 사람이 굳이 계약을 하고 제안서를 부탁할 필요가 없다. 계약 없이도 다양한 제안서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안서에는 설계가의 생각이 담겨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이 보호되어야 한다. 설계가로부터 제안서를 받고, 더 저렴한 업체에게 동일한 설계를 의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가계약을 통해 적은 금액이라도 제안서에 대한 비용을 책정하여 미리 받고, 계약이 성사되면 설계비에 그 비용을 포함시키는 원칙을 세웠다. 일종의 계약금 같은 개념인 것이다. 이렇게 하면 설사 계약이 성사되지 않더라도 서로 기분 상하지 않게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은 우리만 고수한다고 지켜지지 않는다. 설계하는 사람과 설계를 의뢰하는 사람들 모두가 이러한 원칙을 지켜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할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은 ‘설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자’였다. 보통 인테리어 설계의 경우 총 공사비의 10%, 건축 설계의 경우 총 공사비의 5% 내외의 설계비가 책정된다. 만약 설계자가 공사 감리까지 진행된다면 5%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하지만 관급공사가 아닌 이상 표준 설계비가 지켜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 눈에 보이는 시공과 달리 설계는 도면 밖에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더 낮게 인식되는 것이다. 예산이 넉넉한 프로젝트는 거의 없기 때문에 설계비는 늘 우선순위의 제일 마지막에 있다. 하지만 설계는 결코 쉽게 완성되지 않는다. 설계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도면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이용할 사람들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고, 전체적인 예산과 시공과정을 고려하여 최적의 결과물을 뽑아내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공간을 둘러싼 모든 것들을 하나의 결과물로 조율하는 과정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설계비를 정당하게 받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공사기간이 늘어나 인건비가 더 부과될 수 있고, 남는 재료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 혹은 이윤을 더 많이 남기기 위해 설계와 상관없는 부분에 비용을 더 책정할 수 있다. 정당한 대가는 곧 공정한 과정을 의미한다.

세 번째 원칙은 '프로젝트에 공공의 가치를 담자'였다. BLANK라는 팀을 처음 만들 때 우리는 건축의 공공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공간은 목적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사용하고, 주변과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 자체로 공공성을 가진다. 아무리 상업적인 공간이더라도 어떻게 설계했느냐에 따라 공간의 성격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는 개인이 점유하는 공간 보다 함께 공유하는 공간에 더 큰 우선순위를 두고 작업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공간의 효율을 우선시 하는 분위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쉽지 않다. 예산도 문제다. 한정된 예산 내에서 공공의 가치를 담기란 힘든 일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든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렇지 않으면 건축은 말 그대로 서비스업으로 전락해 버릴 것 같다. 사업자등록증에 건축이라는 업종은 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누군가가 설계를 의뢰하면 요구 조건에 맞게 설계라는 행위를 서비스해준다는 것이다. 일방적인 1:1 방식의 관계에서 공공의 가치를 녹이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넘어서기 위해 '청춘플랫폼'과 같이 우리가 스스로 주체가 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더 많이 진행하기로 하였다.

'동네실험실'은 소비되는 공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공간을 만들어 이상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 프로젝트였다.

#### /동네실험실, 동네와 건축에 대한 생각들

'동네실험실'은 마을에 방치된 공간을 임대 가능한 공간으로 바꿔달라는 건축주의 설계 의뢰에서 처음 시작하였다. 원래 야채가게로 활용되던 공간이었는데 2년 전부터 임대가 되지 않아 방치된 채로 남아 있었다. 샌드위치 패널로 대충 만들어 진 이 건물은 도저히 그냥 사용할 수 없

을 정도로 노후 되어 있었다. 우리는 이 공간이 단순한 임대공간이 되기를 바라지 않았다. 공간이 계속 버려지고 방치되는 이유는 1:1 방식의 임대 시스템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건물이 비어있어도 언젠가는 임대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쉽게 가격을 내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는 임대료와 2년 계약이라는 부담감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선뜻 공간을 임대하지 못한다. 공간을 임대한 이후에 감당해야 할 위험부담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임대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건축주와 사용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되어 단기임대 공간을 제공하는 '동네실험실'을 기획하였다.

"떴다 사라진다는 의미의 팝업스토어(pop-up store)는 독특한 디자인과 아이디어로 짧게는 하루에서 일주일, 길게는 한두 달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2002년 미국 대형할인점 타깃(target)이 신규 매장을 설치할 공간을 마련하지 못해 임시로 설치한 매장에서 유래된 팝업스토어는 사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1평 남짓 공간에서 재철 과일이나 야채를 파는 노점, 새벽에 떼어 온 꽃이나 나무가 가득 실려 있는 트럭, 폐업으로 재고가 된 옷이나 생활용품 같은 잡화를 떨이로 판매하는 상점 등 팝업스토어는 우리의 일상생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네실험실(town-lab)은 팝업스토어의 장점을 동네에 빈 공간에 적용한 우리동네 새로운 생활공간입니다.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은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장기 계약에서 오는 부담감을 줄일 수 있고, 공간을 방문하는 사람은 짧은 시간 동안 동네에서 색다른 경험을 하며 장소에 대한 새로운 기억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공간의 공유가 단순히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시, 작업, 디자인 등 다양한 창작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공동체 중심 공간으로서 동네실험실은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누구든지 동네를 무대로 자신의 꿈을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sup>12)</sup>"

우리 주변에는 부동산 시장의 시각지대에 위치한 다양한 유형의 빈 공간들이 있다. 또한 전시, 판매, 작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빈 공간을 쓸모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획, 설계, 시공, 홍보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공간을 점유하기 위해서는 2년이라는 계약기간과 보증금, 권리금 등 만만치 않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우리는 공간을 바꾸고자 하는 소유자와 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자 사이를 연결하는 커뮤니티 디자인 플랫폼이 되어 공간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고 싶었다. 건축주를 설득하였고, 우리가 설계를 하고 직접 임대하여 재임대 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리모델링 비용은 2년 동안 우리가 내야하는 월 임대료를 계산하여 2년 손익분기점이 되도록 건축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공간이 방치된 채 버려지는 것 보다 공간에 투자를 하여 2년 이후에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이 더 낫다. 우리는 견고한 목구조로 설계를 하였고, 3평이라는 협소한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락을 설치하였다. 지붕에는 태양광을 설치하고, 단열을 보강하여 에너지 효율에 대한 부분도 고려하였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아쉽게도 실패하였다. 설계가 마무리되고 시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옆집의 민원이 들어왔다. 알고 보니 기존의 건물이 불법으로 증축된 것이다. 방법이 없었다. 결국 기존의 시공한 것들을 모두 철거해야 했고, 현행 법규에 맞춰 설계를 다시 진행해야 했다. 3평이었던 공간은 1평이 되어 버렸고, 목구조는 철골구조가 되어 버렸다. 공간이 너무 좁아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단기임대 공간으로 적합하지 않았다. ‘동네 실험실’ 프로젝트는 기획만 남은 채 표류중이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마을에서 기존의 시스템을 종종하며 공공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12) <http://www.blankin.net/townlab>

기획이 아무리 좋아도 실현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좋은 설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많다.

기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좋은 설계 이전에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공감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행동이 필요하고, 우리는 공모전과 연구를 통해 가치를 확산시키려 노력하였다.

#### /공모전과 연구를 통한 실험들

아름지기 재단<sup>13)</sup>에서 주최하는 <헤리티지 투모로우 프로젝트> 공모전이 있다. 주로 한옥이나 마을과 같은 한국적 공간에 대해 제안을 하는 공모전인데, 2014년 주제는 ‘한옥의 경계, 이 시대의 집합도시한옥’이었다. 우리는 공모요강을 보고 우리가 마을에서 하는 활동을 떠올렸다.

“첫째, 건축에서 필연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몇 가지 요소는 시간, 공간, 그리고 그곳에 담겨지는 삶에 대한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대한 생각, 이것은 건축의 본질을 기본으로 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가치를 의미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터에 대한 생각, 물리적 환경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대응해야 하는가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기반으로 할 때, 그곳에서 살아갈 삶의 형식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13) ‘아름다운 우리 것을 지키고 가꾸는 사람들’로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고루한 관습이나 생명력 없는 형식에 가려 잊히지 않고 현대 한국인의 삶에 올바른 전통으로 스며들어 아름다운 문화적 자산이 될 수 있도록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우리 문화의 정수를 탐구하여 모범이 되는 사례를 하나하나 만들어나가고 있다.  
<http://www.arumjigi.org>

둘째, 한옥이 한국인의 삶 속에서 만들어 진 집이라 볼 때,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옥을 어떻게 정의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시대의 한옥이라 부를 수 있는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더욱이 도시 속에서의 한옥은 어떻게 보여 져야 하는가.

셋째, 도시의 밀도 변화는 주거 형식에 차이점을 만들어 왔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밀도의 변화가 만들어 내는 집합의 방식이다. 첫째, 둘째 항의 개인적인 고민과 대답은 이러한 집합의 방식에 차이점을 만들어 내리라 본다.”

‘건축의 본질을 기본으로 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가치’라는 말에서 ‘건축의 공공성 회복을 통한 공유의 가치를 떠올릴 수 있었다. ‘우리동네 생활공간 되살림’이라는 목표를 한옥에 적용시켜 이러한 형태의 삶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부엌, 거실 등 공유 가능한 공간이 집에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마을 단위로 공유될 때 집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프로젝트를 ‘관계’라 정의하고 한옥의 방 단위로 개인공간과 공유공간을 중첩시키는 제안을 하였다. 다음은 우리가 제안한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이다.

### 관계 [關係]

문승규+김동리+구중정

정주현상 v.s 정주공간 : 직업과 라이프스타일의 다변화, 이동성의 발달, IT기술의 혁신 등, 현대의 도시성은 사람들을 더 이상 한곳에 머무를 수 없도록 만들었다. 또한 공공영역의 폭발적 증가는 집의 역할을 축소 시켰으며 그에 따라 도시민들은 도시를 끊임없이 이동하며 다양한 패턴으로 공간에 정주하며 장소와 관계를 맺는다. 이러한 현상은 주거의 의미

를 축소시켜 결국 주거는 사회적 의미를 상실한 채 원시적 형태(shelter)로 되돌아감으로서 우리시대의 ‘정주공간’은 ‘정주현상’을 반영해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주거의 의미를 은신처 (shelter) 밖으로 확장시킴으로서 정주현상(삶의 형식)과 정주공간(주거건축)의 관계를 재설정하고자 한다.

집의 집합에서 방의 집합으로 : 고밀도의 도시일수록 공간의 공유는 필수적인 삶의 조건이다. 하지만 단지로 대변되는 현대 우리도시의 상황은 양질의 물리적인 환경 제공을 넘어서 도시 전체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Tower in the Park’ 이상은 한국 도시에서 단지화로 구현되고 있으며, 이는 도시를 파편화 시키는 주범이 아닌가? 그렇다면 바람직한 도시공간의 공유형태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집합의 개념을 ‘완결된 집들의 집합’이 아닌 ‘방들의 집합’으로 재정의 하고자 한다. 이러한 재 정의는 ‘공간의 다양한 공유방식’과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함이다.

한옥 ‘우리’네 삶의 공간 : 우리 도시에서 한옥은 크게 두 가지로 인식된다. 재개발이 필요한 낙후 주거와 개인의 가치를 향유하기 위한 주거, 현 대상지의 한옥은 전자에 가깝다. 이 도시한옥들은 단순히 보전을 통해 ‘새집’이 되는 것 뿐 아니라, 누구에게나 가치 있는 우리 도시의 유산이 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가치’를 넘어 ‘공동의 삶’을 위한 건축으로 재정의 되어야 한다. 또한 한옥공간의 사회적 기능을 회복함으로써 사람과 사람, 집과 집, 집과 마을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수단으로써 이 시대 도시한옥을 재정의 해보고자 한다.

이 공모전에서 우리는 3등 상을 수상하였다. 현업에 종사하는 젊은 건축가를 대상으로 한 공모전이었기 때문에 더 의미가 깊었다. 1등 작 역시 공유공간의 회복이 주된 내용이었다. 우리는 이 공모전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마을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이 의미 없는 실험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비슷한 맥락에서 연구도 함께 진행하였다. ‘청년허브’에서 “청년, 자기 삶의 연구자가 되다<sup>14)</sup>”라는 주제로 연구공모를 하였다. 우리는 다음 연구배경을 바탕으로 “지역밀착형 청년활동 리서치”를 제안하였고, 본 책은 이 연구공모를 통해 탄생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청년실업은 가볍지 않은 문제다. 지금의 청년들은 바름을 추구하며,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무한 경쟁의 사회 속에서 정해진 것 하나 없는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약육강식의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웃과 담을 쌓은 채 자신의 성공을 위해 스펙을 끊임없이 쌓고 있으며, 나날이 늘어나는 학자금을 내기 위하여 알바를 하거나 대출을 받는 구조로 하나의 페러다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후 취업의 시기가 다가오면 직면되는 현실은 신자유주의 확산으로 인해 실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낮은 임금으로 인해 비정규직은 빈곤을 재생산하고 빈익빈 부익부를 만들어 낸다. 청년들이 비정규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먹고 살기위해 일을 할 수 밖에 없어진다. 이에 따라 빈곤은 가속화되고 기업은 계속해서 커지지만, 비정규직은 계속 가난해 지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직무가 자신의 꿈과 적성에 맞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없이 바로 일터로 투입되고, 이직률 또한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이다. 그 결과 한국인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OECD 회원국 36개국 가운데 하위권 수준이며, 일과 생활의 균형에서는 최하위에 가까운 것으로 발표되었다. 결국 국가 경제력이 삶의 행복지수와는 별개라는 역설적인 반응들을 발견할 수 있다.

14)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에서는 자기경험을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들여다보고, 이를 탐구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확장하고픈 청년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4년 청년허브 연구공모사업’을 진행하였다. 연구기간은 최대 6개월, 지원금은 최대 1,000만원이며 연구결과물 형식에 제한이 없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현재 청년들은 주체적으로 일을 하기 힘들고 일터와 삶이 분리되어 괴리감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를 통해 청년이 객체가 아닌 주체로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고 이를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은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반이자 풍부한 자원을 제공해 준다. 지역을 기반으로 청년들이 활동하는 것은 일과 삶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높은 경제성장은 이루었으나 실업의 구조화, 고용의 불안정, 빈부격차의 심화, 낙후지역의 발생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대안’ ‘생활대안’ ‘지역재생대안’을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연구하고자 한다.

현재 BLANK는 2012년 4월에 동작구 성대골 마을과의 인연을 통해 관계를 맺으며 활동하고 있다. 2년 동안 현장에서 많은 경험들을 통해 지역에서 청년으로서 가져야 할 사회적 역할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할 수 있었다. 지역 주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마련하여 관계를 회복하고, 도시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역 내 상실된 생활공간을 되살려 도시와 건축, 동네와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생활을 공유하는 <청춘플랫폼>을 기획, 운영하였고, 이 곳에서 맺어진 관계를 통해 마을기업, 빈집프로젝트 등 다양한 일이 만들어 지고 있다. 이처럼 지역과 청년의 결합은 청년의 주체적인 삶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사례분석은 앞으로 대안을 만들어 나가는데 꼭 필요한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의 <마을살이 작은연구<sup>15)</sup>>에도 참여하였다.

15)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에서는 마을현장을 기반으로 한 마을공동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전반 연구와 실행모델개발을 위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14년 마을공동체 연구공모사업’을 진행하였다. 연구기간은 최대 5개월, 지원금은 최대 500만원이며 종합보고서가 발간 및 배포된다.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공동체 공간에 대해 느낀 점들을 바탕으로 “주민주도형 공동체시설에 대한 연구, 성대골 마을을 중심으로”를 제안하였고, 우리와 함께 관계를 맺은 어머니들이 어떠한 생각으로 공간을 만들어 나가셨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청년연구와 마을연구 모두 현장에서 우리의 활동을 기초로 한다. 청년연구를 통해 마을에서 청년으로서 자립하며 살아가는 것의 의미를, 마을연구를 통해 마을에서 공유공간이 갖는 의미를 발견하고, 기록하고 싶었다. 연구가 없으면 현장에서의 활동들은 그저 사례에 그칠 뿐이다. 사례가 하나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활동의 의미를 밝히고 이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춘플랫폼’에서 2014년 여름동안 진행된 <마을아카데미, 마을학개론>은 활동의 의미를 공유하는 자리였고, <마을대학>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마을아카데미에서 마을대학으로

청년실업 100만 시대를 맞이하여 일자리 문제는 공통의 관심사이다. 대기업, 공무원 등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매년 수많은 청년들이 스펙 쌓기에 열중하고 있다. 이렇게 청년실업이 심화되고 있는 시기에 마을과 관계를 맺으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청년들이 있다. 이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에 산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체를 만들고 지역과 소통하며 다양한 일을 만들고 있다. <마을아카데미, 마을학개론>은 건축, 주거, 지역, 커뮤니티, 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스스로 일을 만들어 나가는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였다. 우리는 우리의 사례를 넘어 다른 활동을 하는 청년들이 직접 들려주는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 대해 고민해 보고, 새로운 관계와 일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 하였다. 세부 주제와 참여한 청년팀은 다음과 같다.

“건축 : 마을을 살리는  
건축과 청년의 역할은 무엇일까?”

1. SUNLAB : 우리 동네 어려운 이웃의 생활공간에 도움주기, 우리 동네 버려진 공간을 필요한 공간으로 재생하기, 우리 동네 집수리 전문가 네트워크 만들기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

2. 도시마을건축사무소 : 도시와 마을, 그리고 모두를 위한 건축을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의기투합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며, 인증을 목표로 하지만 사회적기업을 지향하고 있고, 스스로를 사회적건축가그룹으로 정의하고 있는 단체

“주거 : 관계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1. 민달팽이유니온 :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새롭게 주거취약계층으로 대두된 청년층의 당사자 연대로 비영리 주거모델을 실현하고, 제도 개선을 실천해 ‘청년주거권 보장’주거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단체

2. 서울소셜스탠다드 : 빠르고 밀도 높은 성장의 역사를 가진 서울(Seoul)을 배경으로 사람과 시간, 공간이 만드는 다양한 관계(Social)속에서 우리가 지지해야할 표준(Standard)은 무엇인지 발굴하고 만들어가는 단체

“일 : 지역에서 새로운 일감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지역 : 지역커뮤니티 기반으로  
청년들이 스스로 어떻게 자립할 수 있을까?”

1. OO은대학 : 대학가기 위해, 취직하기 위해 하는 공부가 아닌 정말로 살면서 꼭 필요한 삶의 지혜를 나누는 대학, 청년과 주민들 간에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마음 깊이를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인생의 대학

2. 오늘공작소 : 지금 이 순간의 가치를 깨닫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를 위한 세상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한 소셜 플랫폼. 청년들 스스로 자립하며, 그 힘을 바탕으로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일감들을 만들기 위한 실험의 일환으로 목표하는 단체

“문화 : 지역과 관계를 맺으며  
어떻게 새로운 마을문화를 만들어 가는가?”

1. 러닝투런 : 인근의 봉제공장들과 협력하여 지역의 자투리들을 활용한 예술 프로그램과 디자인 제품을 기획함. 주변의 잉여물을 통해 삶을 재발견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이 000간이 제안하는 공공성

2. 남산골해방촌 : 사람과 사람, 사람과 환경 그리고 시공간을 이어주는 다리역할. 우리가 만드는 잡지를 통해 이웃과 한 마디를 더 나누고, 해방촌을 한 번 더 생각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지금을 기록하는 데에 진정한 의미를 발견

1. 서울잡스 :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강소기업들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회 혁신 분야의 일자리. 스펙은 좀 부족하지만 성실하게 일하고픈 구직자들과 새로운 일의 가치를 발견하고픈 청년들. 주변에 존재하지만, 발견되지 않는 ‘그곳’과 ‘그들’이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 플랫폼

2. 오픈컨텐츠랩 : 역삼동에 새롭게 시작된 코워킹 공간 오픈컨텐츠랩은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 팀들이 모여 서로 소통하고, 또 자신의 프로젝트를 오픈된 공간에서 서로 공유하는 멤버십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특별한 코워킹스페이스

총 다섯 번의 시간동안 각 주제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모여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2부의 대담집에서는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마을과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 나누면서 몇 가지 공통된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었다. 자립과 협업, 그리고 공유였다. 이러한 키워드는 <동작청년 마을대학<sup>16)</sup>>으로 발전하여 ‘공간공유학’이라는 학과를 개설하고, 대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때 나눈 이야기들은 BLANK의 방향을 정하는데도 큰 도움을 주었다. 우리는 기획을 통해 가치를 발견하고, 설계를 통해 경험을 축적하며, 운영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청춘플랫폼’을 마을로 확장하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다.

16) 지역에서 사회혁신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해 동작구청, 관내대학 학생단체(중앙대 SEN, 송실대 Enactus), 마을단체(희망나눔동작네트워크, BLANK)가 힘을 모아 소셜비즈니스학, 마을복지학, 공간공유학 등 세 개의 학과를 마을의 공간에서 운영한다. 단순히 강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담임제를 통해 실제 프로젝트나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년 6개월 동안 쉽 없이 달려온 청년들의 마을살이의 1막이 끝나고 2막이 곧 시작될 것이다.

/청춘플랫폼의 새로운 시작, 청춘 네트워크의 구상

2014년에 '청춘플랫폼'은 주간에는 작업 공간으로, 야간에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커뮤니티 시간에는 문화 활동에 경험이 많은 다른 청년이 공간 운영을 맡아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많은 주민들과 청년들을 알게 되었다. 주민이 직접 재능을 공유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였고, 빈 벽을 예술가들에게 공유하여 전시와 공연이 주기적으로 열리기도 하였다. 점심에는 주민과 함께 서로 돌아가면서 식사를 함께 준비하고 나누고 있다. 하지만 한 공간에서 작업과 커뮤니티의 기능을 함께 수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작업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선뜻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 역시 작업에 집중하기 힘든 상황이 많이 발생한다. 시간이 거듭될수록 공간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는 두 개의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2015년부터는 이를 위해 마을 내에 새로운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일명 '청춘캠프' 프로젝트이다.

'청춘플랫폼'이 부엌과 거실을 공유하는 공간이라면, '청춘캠프'는 청년들과 주민들의 베이스 캠프같은 공간이다. '청춘플랫폼'이 일상적인 여가를 위한 생활공간이라면, '청춘캠프'는 일상적인 생산을 위한 생활공간이다. 우리는 '청춘캠프'가 마을에서 자립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아지트이자 베이스캠프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청춘플랫폼'에서 밥을 먹고, '청춘캠프'에서 프로젝트 회의를 하고, 마을에서 하나씩 프로젝트가 실현되는 것을 상상한다. 아마 그 다음은 실패로 끝난 동네실험실 프로젝트가 되지 않을까? 공모전으로 처음 시작된 우리의 활동은 어머니들과 함께 일

하고, 공무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청년들과 함께 연대하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리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을만들기'도, '청춘플랫폼'도 아니다. 우리는 힘든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활동을 지속한다는 것에 가장 큰 자부심을 느낀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왜 마을에서 그러고 있어?'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청년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마을을 선택했다고. 청춘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는 청년으로서 지속적으로 마을에서 살아가기를, 그리고 살아남기를 희망한다.

## 2부. 마을아카데미 대담집

## 1장. 건축 : 도시마을건축사사무소 + SUNLAB

“마을을 살리는 건축과 청년의 역할은 무엇일까?”

### 1. 도시마을건축사사무소 / 박성은

저희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동네가 좋아졌으면 좋겠다고 시작한 것 같아요. 목숨 걸고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나 라는 질문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알까? 라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강연을 들으면 좋아 보일 순 있지만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경험한 것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3명이 대학원에서 만났고요, 각자 다른 설계사무소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히 그만둔 시기가 맞아서 같이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꿈 꿔던 일들과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화려한 설계와 판넬과 모형을 만들지만 실제로 지어지고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 이후에는 인테리어를 쪽 하게 되었어요. 왜냐면 월급을 벌어야 되었어요. 인테리어를 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이 끊이지 않았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인테리어를 10건 정도 하면서 제가 받은 대답은 현장에서 배우는 것이 많이 있구나. 라는 거였어요. 지나고 나니 실수했던 부분들을 보완되고 있는 점도 발견할 수 있었구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 버려진 공간을 발견하고 거기서 목요책방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책방을 예전부터 하고 싶어서 시작되었어요. 동네에서 어머니들 마을활동가들과 같이 제안을 해서 서울시에서 하는 우리마을프로젝트에서 지원을 하게 돼서 시작되었는데, 결국에는 실패사례가 되었

죠. 목요일 밤에 여는 책방이었는데, 나중에는 무리가 되었고, 결국에는 문을 닫게 되었죠. 실패를 통해 얻은 게 무엇이나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대답은 마을일은 혼자서는 힘들다 라는 거였어요. 물리적인 공간을 중요 하게 보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운영이 문제였어요. 만드는 거까지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이미지에 사로잡히지 말아야겠다고였어요. 디자이너는 이후에 것 들을 더 생각해야겠다고 들었죠. 사진 때문에 이미지 때문에 전화가 오는 것에 대해 양심에 걸리더라고요.

다음은 보람찬 건축학교라고 청소년들 대상 중학생, 고등학생. 서울시전역 중학생들 하자센터에서 손을 잡고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토요일 마다 9개월 동안. 성곽 길 걷기, 경동교회, 목공을 실제로 학생들과 같이해봤었어요. 단열재 같이 넣는 작업. 워크숍을 동네에서 지원하였고, 구에서 지원받은 프로젝트였어요. 대상은 초등학생이었는데 타일에 벽을 만드는 것. 가르치는 일은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생각을 바꿔주는 것은 공간보다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교육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교육은 같이 얘기하면서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정말 중요한 거라 깨닫게 되었죠.

그래도 저희에게 중요한 것은 도시마을의 철학이라고 생각해요. 사회적 기업이라는 시작이 아니라, 고민하면서 만들어가는 팀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도시마을만의 본질을 찾아가는 고민을 요즘 들어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 2. SUNLAB / 현승현

정제 되지 않는 생각들을 얘기해서 시작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막연하게 갖고 있는 꿈들은 이뤄질지 잘 모르겠고, 서울시 사회적 경제 아이디어에 참가하면서 들어오게 됐어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지원

받아서 사회적 기업이 된 후 건축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는 팀입니다. 건축은 법적으로 공공성의 실현이 목적이예요. 그렇다면 현재 상황은 그러한가? 건축의 공공성에 수반되는 구체적인 행동방향은? 이라고 했을 때 개선되지 않는 열악한 환경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헤드앤직 2006 자원봉사를 시작했었는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실질적인 방법론들을 찾는 작업을 현실적인 첫 번째 목표로 잡았고, 마을 만들기 업체와 조인, 인테리어 공사 현장, 자원봉사단체와 저희가 가진 소스들을 어떻게 서비스화 할 수 있는가를 고민했었어요. 마을과 건축과 별개인 건축에 일관된 얘기일 수 있지만, 건축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굉장히 수동적인 역할이었어요. 능동적인 일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렵다는 걸 깨달았죠. 그들이 하는 고민들은 근본적인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으나 묻히는 현실이었죠.

첫 번째는 직접적인 마을 만들기였어요. 과정의 중요성을 느꼈어요. 건축이라는 것이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하지만 개인적인 의미들이 다르게 반영이 되는 것을 볼 수도 있었어요.

두 번째는 자원봉사단체와 한 달에 한번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활동을 했었는데, 2006년부터 오랫동안 했었죠. 집 수리 활동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걸 발견했었는데, 보일러 창호 단열, 실제로 문제는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집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집의 문제점들에 대한 관계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었죠. 대부분 세입자였고 저희가 너무 잘해주면 쫓겨나는 일들이 비일비재 했었어요. 그럼 쫓겨나지 않을 정도로 해야하는가?라는 의문이 들었고요, 집의 가치가 상승하고 전세금이 올라가는 현실을 보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살고 계신 분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으려고 하고 있고, 이것은 비즈니스는 아니고 활동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품이 들지 않은 작업이 원칙이에요. 집수리 가구당 100-200정도 들고, 인건비가 들지 않고. 자재비가 들지 않는 상황들이 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는 넓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돼요. 자원봉사자들이 자신이 쓰지 않으시는 자재들을 저희에게 주시는데 잘 모아 두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그때그때 쓰고 계량화 되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들었고, 지향하는 바는 궁극적으로 자재비는 최소화, 인건비는 들지 않고, 지역사회에 건축 활동이 하나의 흐름으로 잡히길 원하고 있어요. 자원봉사자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고, 필요한 정확한 시스템에 대한 의문이 조금 드네요. 조직에 대한 체계적으로 된다면 좋을 것 같아요.

건축이 지역성을 뗄 수밖에 없는데, 마을에 대한 한계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쓸 수 있는 소스가 없는 것 같아요. 다 비용이고 품이고, 자재 관계들을 어떻게 설정하는가라는 게 중요하고, 조금 다른 방법의 모델들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시작은 자원봉사 활동 시작하였고, 로스의 사례를 통해 자제는 규격화되어 있는데, 쓰고 남은 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라는 것에 고민이 시작점이었어요. 지금은 다 버리고 있는게 현실인데, 그 기능으로서 수명이 다 하였지만 다른 기능을 부여하면 다시 살아 날 수 있으나 비용이 발생했어요. 어떻게 시스템화 되었나? (리사이클프로세스 피티보기) 재사용했을 때 가치가 생길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작업 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 어느 정도는 재활용 되고 있어요. 상태별 크기별 구분하고 수집하고 있어요. 업사이클링 캠프를 하고 있고, 지역의 버려진 공간에 공공공간을 꾸미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으면 상황들은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사회를 위해서 쓰라는 돈은 많이 있는데 잘 쓰고 있지 않은 게 문제

인지,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는 산발적인 작업들을 했었는데, 좀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집중을 해서 성과를 만들 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무엇을 하는 사람들 이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작업들을 두 가지 재생, 즉 자재재생, 공간재생 이라고 생각해요.

### 3. 질의응답

박혜민 : 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박성은 : 회사를 그만둔 시기에 다른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가고 싶었던 공기업이 있었는데, 시험에 떨어졌죠. 후회는 없었지만, 방향하던 시기에 건축사무소에 들어가기 싫다는 감정이 자연스럽게 들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일을 시작하고, 목이동에 자리잡게 되었죠.

박혜민 : 목이동을 선택한 이유 무엇인가요?

박성은 : 처음에 일하고 있었던 하자센터와 가까웠었고, 월세가 25만원으로 저렴했어요.

현승헌 : 건축에서 흥미를 느낀 이유는 남에게 무언가를 준다는 개념이 흥미있었던 것 같아요. 만들어 주는거 아닌가? 제공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흥미를 갖게 되었어요. 생각하고 있던 거 하고 현장 일 회사일이 다 상이하다는 것을 느꼈어요. 멋있는 것을 의미 있게 할 수 있을줄알아야 했죠. 좁혀가는 과정에서 있었고 과정 중에 목적이 다르고 주체가 다르구나라고 느꼈고, 그러면 내 꿈에 대해서는 내가 주체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같이 일하는 분이 같은 회사에 다니던 분

이었는데, 건축하는 사람이 술 먹다가 시작한 일들이 이야기로 시작해서 박람회와 관련된 세미나로 진행됐었죠. 그런데 세미나가 산으로 가서 사회적 경제 아이디어로 돌아왔고, 함께 창업을 하게 되었죠. 마땅히 해야 할 일 이라고 생각하고 설계사무소처럼 일을 하지 않아도 건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어요.

박혜민 : 어떻게 자립하고 계시나요?

박성은 : 돈 되고 안 되는 일을 같이 할 수 있는가? 라는 고민을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공간은 DIY 목공소와 사무실을 겸해서 쓰고 있어요.

현승헌 : 힘들게 일하니까 겨우 먹고 살고 있어요. 돈 되는 일 돈 안 되는 일 분리가 실제로 되어있어요. 돈 되는 일을 하되 돈 되는 일을 하는 과정을 좋게 만들어보자라고 생각했어요. 전체 큰 틀은 아니더라도 부분들은 최소한 자신만의 틀에서 남기자라고 했고, 그런 것들이 모이면 큰 자산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죠. 공간의 자립은 사회적 기업육성 사업 후속지원으로 가능했어요. 구청에서 공간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 조만간 창고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저렴하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고, 공간 구하는건 어렵지 않은데 공간을 다르게 활용하는 방법이 어려운 것 같아요.

박혜민 : 왜 마을이어야 했나요? 마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승헌 : 건축이 모여서 마을이 되고 마을이 모여서 도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하나가 중요하죠. 하나하나의 집과 환경들인 거죠. 왜 마을이었냐면 거기 밖에 저희가 할 일이 없었어요. 동네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고. 서비스처럼 하고 있다 보니, 저희가 잘하는 것을 해야 했었죠. 그럼 우리가 하는 것들을 서비스화 시키자는 의견이 나왔고, 케이스를 많이 만들고, 케이스를 진중하게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데이터

를 축적하였고 데이터 토대로 작업이 완성됐었던 것 같아요.

박성은 : 마을이 친구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실제로 목이동으로 이사 와서 친구들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부동산 아주머니랑 친해졌죠. 친구들을 끌어들이므로써 더 친해졌고요, 아는 사람이 많은 동네가 마을이 아닐까요? 내가 마을에 살고 있다고 문득 느낄 때가 길가는 아주머니랑 인사할 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인사하는 순간에 내가 이 동네에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이를 낳고 생각이 변한게 갑자기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목이동은 주택가이고, 사람들이 일생에 한번 갈만한 곳이 건축사 사무소 이다보니, 그 일들이 자주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도시마을 창작공방이라고 크게 해봤죠. 조금씩 주민들을 만나는 접점을 늘려가고 있어요. 아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분들과 재밌는 작당을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박혜민 : 일반 건축 작업과 마을 속에서의 작업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현승헌 : 다르게 하면 안 되는데 다르게 하는 이유는 기존이 잘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일반 건축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설정이 잘못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건축 작업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작업을 원하고 누구한테 말하고 싶은지 라는 것을 먼저 정해야 질문에 대한 답이 되지 않을까요? 마을작업에 대한 이해도가 먼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박혜민 : 전공자가 아니다보니. 일반적인 집이 지어지는 과정과 마을과 차이점이 커뮤니케이션에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설정이 중요하구나 생각이 되네요.

박성은 : 쉽게 이해한대로 얘기하면 일반 건축은 강남에 가서 인테리어를 한다 하면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아는 척을 하면서 오히려 전문가로서 그분이 인정하고 서로 인정되는 것 같아요. 반면에 마을로 들어가면 건축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고, 어려웠던 부분은 커뮤니케이션 아주머니들 안에서 하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박혜민 : 요즘 이것만 잘되면 참 좋을 텐데 싶은 게 있을까요?

박성은 : 수익부분을 생각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소한 행복은 에어컨을 설치해서 행복감을 느끼고 있어요.

현승헌 : 분신술이 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하는 작업이 맹목적으로 돈이 많이 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취지에 공감하지 않으면 적극성이 나오지 않고 한계성이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는 필요한 점은 사업성을 분석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해요. 그것이 잘 안돼서 매일 엑셀 파일 들고 다니면서 밤을 세고 있죠..

박혜민 : 지내온 시간동안 가장 잘했다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박성은 : 교수님을 만나고 회의를 참석하다보니 우연치 않게 하자센터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지금도 가끔 그 얘기를 하는데 그 때 들어가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생각해요. 그 계기로 일도 생기고 네트워크도 넓어졌어요. 이후도 사회적 기업 가치를 지닌 사업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하자센터에 들어간 게 신의 한수였다고 생각해요.

현승헌 :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요. 매일 매일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박혜민 :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내일/3개월/1년'

현승현 : 내일은 잠을 자고 싶은데 못 잘꺼 같고, 3개월은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싶어요. 일 년은 그래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비즈니스가 되면 좋겠네요.

박성은 : 3개월 뒤쯤에는 철야를 하고 싶고 내일은 결혼식 2개있어요. 일 년 뒤에는 도시마음이 커졌으면 좋겠어요. 같은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풍부한 얘깃거리들이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서슬기 : 회사를 운영 하시는 것에서 마음을 맞는 사람을 뽑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현승현 : 원래는 둘이서 다했었는데 1월에 처음 뽑아봤어요. 모든 걸 다 하는 것이 한계가 되었고. 비즈니스 경험들이 많이 있지 않다보니, 사업 마인드를 키워주게 됐어요. 우리는 추상적이고 모호한거를 좋아하는데, 지금은 열심히 하고 계셔서 흥미로워하고 있음.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박성은 : 아직 채용을 하지 않았어요.

문승규 : BLANK는 의사소통에 대한 화두가 있어요.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해도 각자 방법론적으로 다를 수가 있는데 대표와 의사소통이나 단체와 팀과 주민들의 소통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요.

박성은 : 초반에는 잦은 갈등으로 힘들어하다가 중간에 워크숍으로 mbti 조사를 했는데, 그 후에 이해가 됐어요. 내가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된 거죠. 그러나 여전히 갈등은 존재하죠. 3명이 수평구조로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어요.

현승현 : 저희도 자주 갈등이 있어요. 그러나 그 것이 큰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처음 시작이 재밌게 하자, 두 번째는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면 두서없이 찢어지자였어요. 하고 싶은 게 다르면 하지말자였죠. 아직 이 틀에서는 크게 갈등이 없어서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커뮤니케이션이 고민이에요. 문제는 분업하기 시작하니깐 왜 그렇게 됐는지 서로 알 수 가 없으니깐 의사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회의는 많이 하려고 하는데 길어지고 산으로 가고. 효율적인 분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서슬기 : 건축사라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소장님이 있는데, 자격증을 갖고 건축가와 건축사로 나눈다는 것이 잘 모르겠다 라고요. 건축사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현승현 : 저는 건축사는 제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따라 되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건축가가 맞는 표현이지 않을까요? 건축사가 없다고 건축가가 아닌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건축사는 제도 안에서만 얘기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건축에 의미에 맞춰서 하는 분만 건축가라고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박성은 : 이러한 시선들이 우리나라 건축의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일반 사람들이 보는 건축가가 별로인 사람이라는 인식을 보고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건축하는 사람들이 일반사람들에게 열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성은 : 8월에 건축학교를 했는데, 놀공 발전소를 찾아보면서 이 책을 발견하게 되었죠. 책에서 사진이 3분의 2이고, 이 사람들이 보드게임을

만드는 사람들이예요. 공동체게임을 만들어서 워크숍에서 진행하는 건데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로마인 이야기 읽고 있는데 굉장히 사업적인 이야기 (천기누설이야기) 재밌게 일하는 방법을 말하는 회사예요. 저는 경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예를 들어 직장인 게임은. 경험을 하고 게임을 만드는 과정이 소개되어있어요. 고전소설을 보드게임화 만드는 회사예요. 굉장히 재밌어요.

현승헌 : 서점에서 보다가 우연히 끝까지 다 읽게 된 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현재 건축의 방향과 상황들에 대해 얘기해주고 있죠. 건축 사업 시스템, 건축 설계 사무소 다니신 분들이 이해가 될거 같아요. 서구에서는 건축이 문화로 자리잡아왔는데 우리나라는 건축문화가 없고, 건축을 제공하는 제도자체도 없죠. 건축하는 분들이 또 다른 비즈니스를 생각하시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박혜민 : 대표님들이 여기 계신 분들에게 궁금한 2가지 / 듣고 싶은 분들에게 [발제자질문]

박성은 : 돈이 아니라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

원가영 : 저는 뭔가를 배우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요. 어떤 일을 하고 싶은 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 같고, 발로 뛰어서 많은 것들을 접해 보고 싶어요.

박가을 : 직장생활 일찍 하고 싶지 않아요. 많은 것들을 하고 싶어요.

현승헌 : 오늘 오신 이유, 마음속에 궁금한 것들.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최일수 :광주에서 살다가 대학원 때문에 올라왔는데, 처음에 받고 들었던 생각은 마을 공동체, 지역, 마을 안에서 무얼 하면서 즐거워하시고 재밌어하시면서, 또한 무엇을 하면서 사회적 의미를 찾나 궁금해서 와봤어요. 서울에서 무엇을 하나?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 아직은 생소한 분야라서 그런지 재밌기도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있고, 차차 더 수업을 들으면서 배우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성빈 : 친구들 만나는 자리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왔어요. 저는 조경 일을 하고 있는데 부러운게 많았어요. 조경가로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고 있어서. 공간을 자세히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저도 2년 뒤의 모습이 어떨지 궁금하고, 일한지 3개월이다 보니. 저한테는 고수를 만난느낌이고 진정성을 느낀 것 같아요.

박성은 : 저는 감정적인 사람이어서 안하고 싶을 때 말을 하거든요. 우리 그만하자. 몇 달 전에도 그랬었어요. 그런데 저는 '하다 말면 남이 웃는다.' 이 문장이 제 문장이 된 것 같아요. 최근에 마음에 박힌 한 구절이 있으신가요?

김동리 : '내일의 건축'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책은 원전사고 때문에 피해를 받은 지역에 건축가로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잘 풀고 있어요. 한 구절이 생각나는데 건축은 '관계를 통해 감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현승헌 : 저는 실천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 않으면 바뀌는 게 없고, 해야 시행착오고 나오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상하기 때문에, 예상하는데 익숙해져있고 그 안에서 포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해야 하는 것인 거죠.



무언가를 하실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그리고 어떤 실천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서슬기 : 사람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일들을 계획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건축쪽에서 설계를 하지만 기술만 있지 구체적인 세부적인 것들은 잘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최초의 시도이고 저한테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현승헌 : 같이하면 시행차고는 좁고, 협업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일들이 어떻게 보면 작을 수 있지만 갑자기 확 커지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고민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같이 고민하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돼요. 가능성이 있을 꺼라 생각되고 좋을꺼 같아요. 그런 분들이 더 계시면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꺼 같아요.

박혜민 : 이 자리가 실천이 되는 것 같아요.

박혜민 : 저는 작년에 흑석동의 모든 것이라는 커뮤니티를 활동하면서 내년엔 복학을 하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대학생들이 주거 관련해서 연계한다던지. 페이스북으로 묶어낼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어요.

동네에서 무엇을 하고 싶은데, 아파트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예전에는 동네친구가 많이 있었는데, 동네친구가 없는 거죠. 내년 내 후년에는 아파트의 숨은 공간을 찾아서 아파트에서 소통이 불가능하지 않더라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기획해보려구요.

최일수 : 나에게 맞는 공간이 무엇일까? 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봤는데. 처음 과제는 자기 방을 그려 보라 이었어요. 건축을 하신 분이 아닌데

도면을 그린 분들, 투시도를 그린 분들, 자기만의 철학들이 있는 것을 보고 배웠죠. 그런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다보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이어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박혜민 : 건축을 전공했는데 도시재생 매니저를 하신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채륜 : 저는 전공이 도시계획을 했었는데, 작은 것들이 아니라 조감도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조금한 공간을 바꾼다는 것은 배우지 못하고, 제가 변화를 제일 많이 겪었어요. 도시재생학교가 무지했던 사람들을 많이 바꾼 계기라고 생각하고, 서울시에서 말한 도시재생이 무엇인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하신다면 다음 세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느낀 부분은 교육은 참 중요하고, 사람의 관심을 끄는 이해와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1. 서울소셜스탠다드 / 김하나

김하나 : 건축전공을 하고 설계사무소에 다니다가 대학친구 3명과 서울 소셜스탠다드를 만들게 되었어요. 설계사무소를 그만 두게 되고, 집에 대해 고민을 하면서 좋은 건축을 하려면 부동산 정보를 바꾸어야 하는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한국은 부동산의 프레임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공간과 마을에 대한 이야기도 바꾸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자연환경, 역사, 이웃 등의 구체적인 동네의 거주성을 정보로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정보가 담겨있는 부동산 사이트를 만들려고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지원을 했어요. 사이트 카테고리가 평형이 아니라, 마당이 있는 집 혹은 창고 등이 있는 집 이라든지 이렇게 가열차게 발표를 했지만 실패를 하게 돼요. 이 모델은 저희의 생각이 아니라 일본에 R부동산이라는 곳에 힌트를 얻었어요. 그리고 쉐어하우스만을 소개하는 전문미디어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많은 도움을 얻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주택의 사회화 제3의 공간의 발견에 대해서 카페 정보 사이트 개설을 하게 돼요. 비하인드를 말씀드리면 부동산 정보를 수집하는데 2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첫째로 집이 사적인 공간이어서 온라인 사이트로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외국은 세입자가 나간 후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에 상품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하루라도 공실을 줄이기 위해 보통 나가기도 전에 매일 집을 보러오죠. 그래서 사생활이 담긴 모습을 담기 힘들었어요. 두 번째로 좋은 매물들을 소개시켜주지 않은 부동산이었어요. 좋지 않은 매물만 소개시켜주시기 때

문에 그런 곤란한 점이 조금 있었어요. 특히 집이 사적인 공간이어서 담기가 어려웠는데, 어떻게 하면 집에 대한 정보를 단기간에 담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어요. 전의 저의 삶은 일주일동안 설계사무실에서 책상에서 자고 일하는 것이 저의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일상을 보면 서초창의허브에서 친구들을 만나서 일하기도 하고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한강에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식당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밥을 먹기도 해요. 어디에 거점공간을 두는 것이 아닌, 여러 곳에 거점공간을 두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공간과 프로그램 그리고 커뮤니티가 있는 사이트 개설하게 됩니다.

‘엔트러사이트’라고 합정에 있는 카페인데 원래 신발공장을 리모델링한 것이고, 목조트러스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대공간이에요. 사실 이 지역은 골목길 사이에 공장의 소음으로 잠을 못 잔다는 서교동 일대예요. 서울 근교의 공장지대였고 그게 카페로 쓰이면서 서울의 이전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장소예요. 동교동 ‘약다방 본동’이라는 곳은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한 곳이에요. 한의사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약차 판매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집에 들어가면 옛날 주택의 모습을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옛 서교동의 모습의 단서를 발견 할 수 있어요. 서교동에 있는 ‘카페콘하스’는 옛 주택 앞에 컨테이너를 쌓아서 카페를 하고 있어요. 카페오너가 프로덕션 일을 하고 있어서 복합문화공간으로 뜻하지 않은 공연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상수역 바로 앞에 있는 ‘미래광산’이에요. 일식적산가옥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고, ‘신해철의 고스트스테이션’ 피디님이 운영하는 카페예요. 마지막으로 커뮤니티로 운영되는 카페 ‘수카라’예요. 지역에 사는 음식을 가지고 요리를 연구하고, 채색테이블을 운영하고 있어요. 채식이나 로컬푸드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자연적으로 찾아주는 공간이에요. 공간이 화려하진 않지만 관심이나 취향으로 모이는 공간이구나 라고 알 수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1인 도시를 누리는 방법과 도시 공간에 대해 함께 말해봤는데요, 이런 보통의 공간을 주택 화 하면 어떻게 해서 쉐어하우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1인 가구의 문제 3가지를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로 높은 주거비에요. 사진을 보시면 서울대입구역 11평의 오피스텔가격과 타워팰리스 67평 가격입니다. 평 단가는 오피스텔 가격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객관적으로 봐도 1인이 공간 지불 가격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창문이 없는 방이거나 곰팡이가 있거나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보다 작은 공간에서 생활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주차장 바닥보다 작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대학생들이 39%정도 되는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의 품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초 아파트가 지어지고 난 후 최고의 자산으로 발전하였지만, 1인 가구들이 살고 있는 다세대, 다가구는 미발전을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런던 감옥의 평면과 대전 기숙사의 평면을 비교해서 보시면, 1인가구를 위한 기숙사마저 최대용적과 수익을 위한 건축적으로는 감옥과 다를바 없는 평면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쉐어하우스를 정리하면 최소의 독립공간을 갖고 있고 주방과 거실을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단지 좋은 시설이 있는 집이라기보다는 같이 사는 즐거움이 있고, 규모의 경제적 이득이 있어요. 혼자쓰기에 큰 제품 등 시설을 같이 씬으로서의 이득이 있어요. 그리고 제3의 운영자가 있는 쉐어하우스가 저희 소셜스탠다드가 지향하는 모습이에요.

온드림 사업비를 통해 통의동에 쉐어하우스 1호집을 짓게 됐어요. 정림건축문화재단과 파트너십을 통해 같이 할 수 있게 되었구요, 공동체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재단이었기 때문에 의기투합 후 통의동집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통의동 집에 대해 더 말씀드리면 매물 찾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공유를 위한 공간, 일정규모 이상의 집, 생활자원이 풍부한 지역 이 3가지 기준을 갖고 찾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신림동 고시원집을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었어요. 고시원 주인과 관악구청과의 협의 중에 정림문화재단의 적극성에 결과적으로는 통의동으로 선정이 됐어요. 통의동 같은 경우는 뛰어난 접근성, 직장인들이 많은 경복궁 지역이기도 했어요. 이미 서촌의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1층에 정림문화재단사무실과 라운더바웃 그리고 지하는 공용부엌이 있어요. 여기는 독립적인 공간이어서 친구를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친구들을 데리고 오면 1층이나 지하로 가게 되죠. 지하에서 만나면 적극적으로 이야기 하다가도 2층 복도에서 만나면 조금 달라지는. 공간의 성격에 따라 행동양식도 변화하는 경험들을 얘기했을 때 부듯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공간에 대해 설명을 더 하자면, 공용공간 안에서도 개인수납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모여서 빵을 만들기도 하고, 1층에서 업무를 보거나, 강연을 듣기도 합니다. 가족이 쓸 수 있는 집을 방으로 바꾸고, 주방을 샤워 및 세탁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서 같이 쓰고 있어요. 서촌의 오래된 기와집을 볼 수 있는 큰 장점이기도 해요.

저희가 프로모션을 하기 위해 재밌는 것을 했었는데, ‘땡땡을 공유해도 될까요?’ 라는 이름으로 했었어요. 예를 들면 매트리스를 준비해야해? 손가락을 준비해야해? 팀내에서 갈등이 있었어요. 손가락을 같이 쓸 수 없다는 친구와 있다는 친구 등 공유의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 같이 쓴 경험이 적은 것 일수록 공유하기 어려운 사유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쉐어하우스는 건축적으로 보면 새로운 도전인 것 같아요. 2차세계대전 이후 주택이 굉장히 모자랐을 때 합리주의자들이 굉장히 신리적으로 접근했었어요. 시민아파트의 경우도 화장실 공유했었지만 더 이상의 아파

트는 이런 평면이 없죠. 이유는 너무 더러워서 같이 쓸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점점 더 나만의 쓸 수 있는 화장실 그리고 공간을 추구 했죠. 그렇게 상품화가 되어갔던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준 주거로서의 웨어하우스로 분류를 하고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를 유지할 수 있는 공간, 공용실 면적분포 등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최소폭 등의 연구함과 동시에 부엌의 경우 마주보고 사용하는 것이 가치있기에 이러한 기준들을 도면화 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저희 혼자하는 것이 아니고 영국, 일본 등 필요한 면적 기준들이 제시되어 있어요.

## 2. 민달팽이 유니온 / 권지웅

청년주거문제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주거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 이야기를 소개해드릴게요. 일단 집은 청년에게 재산이어야 하는게 아니라 보금자리를 필요로 하고 있는거죠. 친구들이 집 값 버느라고 일 끝나고 집에 와서 여력이 없어서 치우지 못하고, 혹은 집이 너무 좁아서, 성향과 상관없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주택문제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대한민국의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있는데 중간정도 버는 사람이 1년에 저축 가능한 금액이 600만원이에요. 중간정도 아파트를 사려면 75년을 저축해야지 살 수 있어요. 20살 때 일을 시작하면 95살에 아파트를 살 수 있는 현실인거죠. 혹여나 돈을 2분위가 되면 2300년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서울의 주택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 되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매매가 아니라 전세를 알아보면 2000년대 대졸초임 자기 연봉에 2.4배를 곱하면 전세를 구할 수 있어요. 그간 10년동안 경제규모가 커지고 발전했다고 말했지만 연봉에 비해 전세가가 더 올른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임대료를 보시면 2013년도 네이버 부동산이 있을 때 40개 대학을 18개 권역으로 나눴고, 옥탑, 고시원이 아닌 경우의 원룸에서 저가로 10개씩 180개를 골라서 임대가 41만원, 임대료 외에 유틸리티 포함 49만원정도가 나왔어요. 서울에 올라와서 고시원이나 지하방이 아니라 집이라는 곳에 혼자서 머무른다고 하면 이 정도 돈이 필요한 거예요. 내년도 최저임금 558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한 달에 자기 주거비를 벌려고하면 100시간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만큼 높은 상황을 볼 수 있어요. 지하, 옥탑, 피씨방 등에 사시는 분들을 주거 빈곤으로 규정해 전국에 13%였고, 청년들은(20-34세) 14.6%, 1인 가구로 좁혀보니 23% 였어요. 서울에 살고 있는 20-34세 1인 가구 청년이 주거 빈곤 1/3인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전국의 주거 빈곤율은 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근 15년 만에 회복한 것인데 국가가 도와준 것보다는 주민 스스로 극복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유일무일하게 서울 1인 청년들에서는 2000년대부터 이런 경향을 벗어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때부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거문제가 더 악화되고 있는거죠. 인구 총 조사를 가진 데이터인데 2015년엔 더 악화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보는 것은 주택 가격이 높아지고 임대료도 높아지는 상황에서 고용이라도 풀리면 관참을 텐데, 겹쳐지면서 지금의 청년들은 주거공간을 포기하게 되면서 1인이 살아야 할 공간에 2-3명이 사는 상황이에요. 1인 청년 주거 빈곤율을 시별, 구별로 나눴는데 서울시가 단연 가장 낮고 구별로 보게 되면 동작구, 관악구가 낮게 나왔어요. 70-80%는 주거 빈곤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대학을 분포시켜보니 대학이랑 주거빈곤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청년들이 소득에 비해 주거비나 얼마나 큰지 비교해 봤습니다. 2012년도 자료인데, 30~40% 사용이 31%, 40~50%이상 사용이 16%, 심지어

50%이상을 쓰고 있다 답변한 사람이 10%가 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거비가 자기 소득의 30%가 넘어간다고 하면, 주거비로 인해 다른 소득을 줄인다고 사회적으로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먹어야 될 것, 입어야 될 것을 하고 있지 않은거죠. 그런 청년들이 57%가 되고 있는 거죠.

서울의 주거문제 발생 이유를 알아보게요. 다른 지역과 달리 유일하게 20대가 유입하고 있는 곳입니다. 반대로 지방의 경우 30대부터 유입하고 있죠. 이게 사실은 일자리나 교육과 관련 서울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주거문제는 크게 세대별로 접근하면 청년과 노인의 문제입니다. 서울은 노인의 주거문제가 전국기준으로 거의 없는 편이에요. 전국은 60대 이상부터는 주거문제가 발생해서 실제로 지방 같은 경우는 노인문제가 부각되는데 서울의 주거문제는 단연컨대 청년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보통 민간기업에서 재무설계를 해줄 때 하는 표입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는 원룸 30만원, 식비 30만원, 교통비 7만원, 통신비 10만원정도 쓰면 80만원을 쓰고 있는거예요. 부모님의 도움을 못 받는다고 전제하면 초기부터 지출이 나가게 되면서 결혼을 늦추거나, 아이를 낳지 않거나 하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부모에게 도움을 받지 못한 청년은 한국의 청년들은 주거약자로 볼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 사회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것은 출산율 그래프인데, 한국의 출산율은 이례적으로 빠르게 감소 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인구예측을 하고 있는데, 2010년도 그래프에서 보면 40-60대 매우 두텁게 형성되어 있고 20-30대는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출산율이 낮아지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서울의 10개의 트렌드 중 2번째로 본 것이 부양비 증가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2배 상승 예측을 하고 있고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하게 되요.

해결책을 2가지 해 드릴텐데 하나는 방을 주는 겁니다.

구조적 문제를 인지하게 되면, 공공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60% 정도는 집을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비소유하고 있어요. 이들의 커뮤니티가 거의 없어요. 실제 법으로 임대료를 제어하자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최대2년에서 6년-8년 등 국민들을 보호해줄 수 있겠죠.

해외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독일은 주택문제해결 특이한 케이스예요. 주택문제는 민간셋방 %가 높으면 주거불안정한데, 독일은 민간셋방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적정임대료 규정하고 있어요. 면적에 따라 분류, 건축연도, 거리 등 평당 임대료 결정하는 지역임대료기준표가 있어요. 민법으로 다루고 있어서 기준의 20%를 가지게 되면 벌금을 내게 제도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관계지만 국가가 개입해서 형벌을 주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은 지역별 등 세입자협회가 지역별, 건물별로 발달되어 있어요. 협회의 기능은 집주인이 세입자를 마음대로 내쫓을 수 없는 것, 그리고 임대료가 올라도 세입자가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실제 변호사를 고용해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서 판례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덜란드가 전형적으로 주택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공공임대주택을 매우 많이 공급하고 있어요. 임대주택 거주 40%가 고소득층이고, 10곳 중에 4곳이 공공임대주택이에요. 그러나 한국은 아직도 5%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민달팽이 배경을 소개해드릴게요. 저희는 사실 NGO라 집을 공급하고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고 있는 임대료가 높으니 만들어보자. 땅을 내달라했는데 부지가 비싸니 컨테이너로 만들어보겠다 얘기를 해봤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되진 못했어요.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필지 구입하려 했으나 너무 비싸서, 30평만 필요하지만 100평짜리가 기준이다 보니 못 샀어요. 그렇게 여러 방향으로 알아보다가 법인격을 갖추고 준비를 하자 내부의견을 종합해서, 주택협동조합 올해 4월에 창립총회를 했어요. 현재 출자금 모아서 남가좌에 달팽이집을 공급하게 됐습니다. 작지만 다세대주택 같은 층 2호를 빌려서 공급하게 되었고, 오늘 내일 안으로 공고가 들어가고 9월에 입주가 가능할 꺼 같아요.

또 하나는 서대문구 홍은동 협동조합형 공공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코디가 모집을 받고, 모집과정에도 교육과 동의 후 선발되고, 그들이 입주가 완료되면 협동조합을 꾸리고 구성하고 그 협동조합이 관리하는 모델 시도하는 거예요. 가양동과 만리동에 협동조합 공공주택이 진행되고 있고, 청년으로는 홍은동 처음이에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건 한국의 주택정책이 일정부분 퇴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SH 공사에서 공기업 정상화 등 정부에서 슬로건을 걸고 크게 2개의 공기업을 비판하고 있어요. 한국전력과 LH인데, 그들은 사실 공기업이기 때문에 부채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악성부채가 아니라 팔면 값을 수 있는 부채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임대주택에 손을 놓아버린 상황이에요. 그들이 꺼낸 카드는 주택기금에 100조를 도시재생 기금으로 하고, 그 기금으로 공공리츠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민간 임대 주택 공급하면 해결 될 것이라는 사고인데요, 근데 저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주택이 없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임대료의 문제인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민자 기숙사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교가 땅을 대고 공급을 했지만, 학생들에게 주거를 제공해주지 못하고 더 나

쁜 기준을 만들어버린 상황인거죠. 그 것을 똑같이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견지에서 건축과 공간을 공부하는 이들이 같이 대응해야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 3. 질의응답

박혜민 : 왜 이 일을 일자리로 시작?(시간/공간/감정적)

김하나 : 결혼이라는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지 않으면 살집이 없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회장님 집 그만 만들고 내 집부터 지어보자라고 생각했어요.

권지웅 : ‘친절한 미분양’ 이라는 다큐를 찍었는데 돌아다니면서 감정적으로 주택문제에 대해 화가 났어요. 그 때 다큐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미분양주택 관찰하면서 그 당시에 나꼼수 팟캐스트가 유명했었는데, 영상작업을 했었는데 아직도 마무리가 안되어있어요.

박혜민 : 어떻게 자립하고 계세요? (재정/공간)

권지웅 : 원래 신촌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같이 썼던 단체들이 다 없어지면서 혼자 임대료를 못내는 상황이어서 허브에 기거하고 있어요. 재정적으로 230명 조합원이 계시고 그 분이 내주시는 월회비가 있고 나머지는 7명 직원이 있는데, 서울시 뉴딜일자리사업 신청 및 지원 4-5명 일 자리 지원을 받고 있고 나머지는 연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민 : 1년이 끝나면 4-5분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김하나 : 저희는 지금 2,3호 운영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무실을 구하려

고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서초 창의허브에 셋방살이 중이구요, 계약기간이 끝나 나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희의 수익구조는 크게 3가지인데, 주택임대관리수익, 연구용역, 부동산 개발업이에요.

이가은 : 쉐어하우스와 하숙집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김하나 : 하숙집과 같아요. 사실 쉐어하우스를 구분할 때 사업자개입형 쉐어하우스와 DIY형 쉐어하우스를 분리해서 부르고 있어요. DIY형 쉐어하우스는 주거협동조합의 형태로 같이 살게되는 형태인데요, 하숙집 아주머니와 같은 운영자 쉐어하우스가 있는 형태예요. 그 것이 장기적으로 오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11시 이후에 세탁기를 돌릴 수 없다는 규칙이 있는데 만약에 규칙이 없다면 사소한 트러블 때문에 같이 안살게 되는데, 규칙이 있기에 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이처럼 운영 뿐만 아니라 공간으로서의 해법장치로서 사용할 때 불편함이 없는 것이 목표예요.

박혜민 : 규칙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김하나 : 사실은 자율적이예요. 우주에서는 말하길 통의동집 세입자들이 천사들이기에 그렇게 말하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다른 대답일 수 있겠지만 저희가 하숙집 아줌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SNS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통의동 집에 살고 있지 않기에, 불편한 사항들을 마주보고 이야기 하기 보다는. 미디어가 원거리에서도 관리하고 있어서 서로 더 편한 것 같아요.

박혜민 : 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권지웅 : 저한테는 직업이기도 하고,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실제로 집을 잃어버린 것은 삶을 잃어버린 것이고, 지금 청년들은 집이 있으면서도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공부하는 카페에서, 씻는 것은 헬스장에서하고, 잠자는 공간으로 밖에 인식을 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삶의 기능들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런게 아닌게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김하나 : 물건을 좋아하는데, 내방은 창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나의 물건들만 쌓여있는 것 아닌가? 통의동 집의 재밌던 점은 집에 입주할 때는 좋은 주방에서 매일 도시락을 싸야지 하는 결심을 하지만 한 번도 못한 분이 계세요. 사실은 생활습관을 바꾼다는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워낙 바쁘기도 하고 외식산업이 잘되어서 해 먹는게 더 비싸고, 주방사용을 거의 안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을 불러 요리를 해 먹는 경험이 되게 좋았던 거예요. 남을 위해서 음식을 해주는 경험, 전화를 해서 마중을 나와 달라는 부탁 등을 할 수 있는거예요. 너무 사회가 서비스화와 기능화 되는 반면, 거기서 조금 돌아볼 수 있는 쉐어하우스에서 가능한 삶이구나를 느끼고 있어요.

박혜민 : 이 집에서 사람들이 살게하려면 해결되어야 할 세 가지가 무엇이 있을까요?

김하나 : 부동산이 망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고시원이 공실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기대수익이 높으세요. 때문에 쉐어하우스로 변환을 한다면 공유공간의 낮은 이해도가 보편적이예요. 높은 토지가격이 지금 현재 큰 문제요. 나라에서 100년 무상 토지 제공 등 충분히 재밌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땅을 가지신 분들이 저렴하게 내주었으면 하죠.

권지웅 : 너무 토지비가 비싼거 같아요. 보통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감

당할 수 없는 정도가 된거죠. 먼저 이것들을 자리잡게 해야할 것 같고, 집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해요. 2000년대와 달리 2014년인 지금 우리는 투기해서 돈 벌 수 없는 세대이고, 재테크으로 집을 생각지 않는 이 바뀌는 상황이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젊은 세대에서는 충분히 합의해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월숙 :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지금은 과도기가 아닌가 생각되네요. 점차 점차 손해를 보더라도 자금이 흘러가면서 움직여줘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요. 인식이 변화되면 패러다임이 변한다고 생각해요.

박혜민 : 개인의 문제가 아닌 나눠서 해야하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박혜민 : 아파트에서 쉐어하우스가 가능할까요? 경기도 인천 수도권 지역에 텅빈 집들이 많이 있는데, 청년주거문제해결 방안으로 가능할까요?

김하나 : 하루 가사 노동 시간 한국평균 2시간이고, 도시의 삶은 시간에 쫓기는 삶인 것 같아요. 미분양 아파트 청년들이 들어가서 쉐어하우스 가능하지만,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야 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권지웅 : 미분양 주택을 국가가 매입한다고 한들 취약계층이 들어갈 수 있을까? 차가 있어야 시외도 가능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어있는 공간에 대해서 국가가 손을 못 대고 있어요. 민간기업은 건들 수 없는 상황인거죠. 여기에 대한 생각이 확장되어야 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도시자체도 공유할 수 있는 의식을 전환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박혜민 : 요즘 이것만 잘 되면 참 좋을텐데 한게 무엇이 있을까요? 단체

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권지웅 :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마음먹은 이상 돈이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정부의 기금을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쓸 수 있게끔 효과지표가 나와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가 생각하는 주거문제해결의 지표가 있어야 되는거죠. 얼마에 어떤 집을 공급했는지에 대한 지표가 거의 없는 게 현실이고, 막연한 주변평가사에 80%이 이견데, 감정평가사의 장난질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지원의 근거가 미약하니 잘 하려는 주체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김하나 : 작전을 달리해서 그 공사를 딸 수 있는 기업으로 가자는 생각이예요.

박혜민 : 지난 시간동안 잘했다 싶은 것은?

김하나 : 공간을 계획하는 사람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안에 사는 입주자들이 공간에 대한 기쁨을 느낀 이야기 들을 들을 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있기에 해결하기 어렵고, 극도의 개인주의, 자신만 잘 살면 되는 생존주의 등으로 전환을 해야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의 실천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권지웅 : 민달 활동을 2010년부터 시작했었는데, 집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에서 우리의 문제로 생각한 것이 제일 잘 한일이지 않나. 구조의 문제를 사회의 문제로 생각한 점이 귀한 것 같아요.

박혜민 :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계획인가요?



(한달/6개월/일년)

김하나 : 발표 내용이 도시의 리노베이션, 일의 리노베이션 건축이라는 학문을 공부하고 설계사무소의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거나 같은 문제인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하나의 일이 아니라 두세 가지의 일을 하게 되고 형태들이 다 달라진 것 같아요. 친구들과 같이 일하기 때문에 조직구조가 유연해서 가지는 장단점이 있어요. 내년 일 년으로 회사로서 성장하기 위한 고민이 많아요. 사실 롤모델이 없는 상황에서 소셜스텐다드가 나아가는 방향과 업무 등의 고민이 일년동안 같이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권지웅 : 최근에 서울시명예부시장 역을 맡게 되었어요. 주거비문제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것이 아니라공적자원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요. 청년 컨퍼런스를 만들어서 시정이 청년들도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약자들도 함께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문승규 : 지역에서 운영하면서 지역의 주민들과 갈등이라던지, 에피소드 등이 궁금해요. 지역에서의 공간이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김하나 : 통의동 집은 반칙 같은 공간이에요. 서촌은 뜨는 지역이죠. 지역에 굉장히 문화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들과 네트워크가 있었어요. 통장님, 방범대 등 그분들이 주민이기에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을과 관계 맺기는 앞으로 해나가야 할 숙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마을보다는 1인에 중점이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에피소드는 극도로 상업화 시점이어서 4층 주민들의 위압감을 느끼고 있어요. 지가 상승 등의 흐름들 가운데 집들이 나가고 카페, 술집 등의 변화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집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환영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사람이 사는 공간이니까요.

권지웅 : 이제야 서대문구 청년 네트워크를 경험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아직 지역 경험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상황이고 제가 고민인 지점은 공간 거점을 어떻게 만들까가 고민이에요.

문승규 : 조합가입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권지웅 : 주택협동조합 5만원이고 나중에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이고 월 회비 1만원이 있습니다.

박혜민 : 추천도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권지웅 : 2007년도 발행한 '부동산 계급사회' 책인데 지금 두고 봐도 최신 통계로 봐도 엄청난 책이겠다라고, 심지어 정치 성향까지 나와 있어요. 한국사회경제를 꿰뚫어보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아파트게임' 이 책은 픽션 같은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요. 아파트를 사서 중산층이 되고 중년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그 시대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김하나 : '주거해부도감' 이 책은 그림책이에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해할 수 있지만 굉장히 전문적인 책이에요.

권지웅 : 실제로 집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궁금해요.

이지원 : 저도 일을 할 때는 잠만 자는 공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한 건 과연 큰 집이 필요할까? 그러던 중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공간이 꼭 큰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도는 일정하다라는 내용을 담은 다큐였어요. 평수가 작더라도 높이를 높이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어요. 사람이 있는 곳이 더 편안 곳과 있고 싶은 곳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강명석 : 큰 그림의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단지 마을분야이기에 청년들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하나의 정책으로 소스가 될 수 있게 하는 역할인 것 같아요. 이런 기회들을 자주 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박희정 : 혼자 사는 사람이 서러운 이유는 같이 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집에 왔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이유는 왔을 때 한 번씩 물어봐주는 관계에서 주는 편안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집은 관계 안에서 사람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더불어서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들이 1인 주거에는 요소들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김하나 : 저는 저한테 하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면 구조적, 사회적 문제인데 정책을 내거나 사회적 반응을 보면 공급자 위주의 주택들만 나오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열악한 구조로 갈 수 밖에 없는거죠. 정책이나 법규에 반영되는 것은 결국 힘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기에 온전한 사용자 중심의 구조이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인식하는데, 연대도 부담스러운 상황일 때가 많아요. 정치에 대한 깊은 무관심이 자리잡고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일을 해결해 나가려는 모습이 있어서 과연 이 문제를 내 삶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인 것 같아요.

권지웅 : 여기 왜 오셨는지 질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세대가 IMF이후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면서 매우 개인화되었다는 생각해요. 내가 날 위해서 쓰는게 선이라고 배워왔고 우리, 집단이라는 의식 부족한거죠. 결국 여기에 우리가 모이는 이유를 잘 찾아야지 집단이라는 공

정, 정치라는 긍정을 찾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해요. 우린 그걸 왜 두려워했지 라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진 : 여기 온 것은 업무적이기도 하지만 짧은 경력이다보니 틀에 박힌 생활과 생각을 많이 하는거 같아요. 여기서는 여러 사람들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앉아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생각을 변화시켜 나가는 곳인 것 같고 그리고 연대에 대한 실천은 아직 사회초년생이나 부족하지만, 마을 안 공동체들의 연결고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많이 보고 듣고자 해요.

동준모 : 건축공부를 하다가 지금은 디자인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협동조합형식의 학교예요. 협동조합이라는 단어는 처음 들었어요. 학교 첫 수업이 자기가 쓸 책상을 버려진 자재들로 자신이 만드는거예요. 그러면서 가구 수집하러 다니는 동네가 북아현동, 서교동 그런 재개발지역이었어요. 그 곳에 가면 2,3세대 들이 살면서 놔뒀던 집기와 흔적들이 재밌는데, 사라진다고 하니 아련한 게 있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살던 곳이 아니니 라는 무관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사회적 기업 공부를 더 하다가 베네핏 에디터 지원을 했다가 쉐어하우스에 대한 글을 쓰고 네이버에 올라가서 엄청나게 비판을 받으면서 반성을 하게 됐어요. 충격을 받고 제대로 공부를 하고 더 알고 싶다는 마음으로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내 스스로 가치관 정립하고 있는 시기예요.

박희정 : 연대와 실천의 연장선에서, 청년이든 아니든 마을에서든 작은 데에서 시작하는 것에 맞는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조금씩 힘이 되고 견고하게 되고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런 아카데미에 오게 되었습니다. 마을 안에서 청년들이 살 수 있는 고민을 혼자하지 말고 사람들하고 같이해보는 것이 시작인 것 같아요.

박가을 : 전남에 살고 있고, 건축 전공학생입니다. 졸업을 앞두고 실질적 주거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특강, 예술특강, 라운더바웃 건축특강, 젊은 건축가 프로젝트 등을 듣다 답답한 마음으로 청년허브 도시재생학교를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서울에 5년 동안 곳곳에 살면서 서울에 대한 애착, 공간에 대한 애착들이 생겨 같이 고민들을 나누고 싶어 이곳까지 오게 되었어요.

문승규 : 저는 사실 3-4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 만나는 것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개인주의적 성향이 있고, 혼자 있는 시간이 좋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부담감도 있고 이런 시기를 겪으면서 대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건축을 공부하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일종의 서비스업이고 누군가에게 제공해줘야 하는 입장이고 너무 허무함을 느끼면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이후에 대학원을 도시설계로 가게 되고 마을과 커뮤니티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고향에 대한 커뮤니티에 대한 향수가 없었던 상황에서 공모전 계기로 이 마을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주민 분들과 아이들을 만나면서 좋은 삶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하면서 청춘플랫폼을 만들게 되었어요. 우연의 연속으로 재밌는 일들이 발생하면서 이 것이 커뮤니티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요.

이가은 : 작은 것이 정치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옳다는 것은 항상 바뀌지만. 지금 함께 하고 싶은 것들을 충분히 전달해서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게 정치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 3장. 지역 : OO은대학 + 오늘공작소

“지역커뮤니티 기반으로 청년들이 어떻게 자립할 수 있을까?”

#### 1. 오늘공작소 / 신지예

신지예 : 저희는 작년부터 시작했구요, 마포구 망원동을 중심으로 ‘이글루망원’이라는 커뮤니티활동을 4개월정도 지속하고 있어요. 마을살이 얘기를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뉴스를 보게됐어요. 어제 비행기가 폭격되고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시대가 변하고 있구나를 느끼고 있고, 동시에 국가라는 것이 무엇인지? 많은 분들이 회의를 느끼기 시작하게된 것 같아요. 왜 청년들이 마을살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까? 라는 질문을 해보면, 사회와 국가에 대한 질문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마포구를 맨 처음 살기 시작 했었을 때는 삶이 아니라, 잠을 자기 위한 공간 이였어요. 옆집아저씨가 누군지 밑에 유치원 꼬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뒷집에서 가끔 소란스러운 부부싸움이 일어나도 상관없이 살다가 회사를 때려치고 나와서 고민하다가 ‘마을’이 떠올랐어요. 내가 살고 있는 불확실한 시대에서 환경을 생각하는 일들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을이라는 게 뭘까 고민해보면 삶 터 인 것 같아요. 삶을 살아가기 위한 공간인 것 같아요.

오늘 공작소를 시작하면서 마을을 정의 내리면서 한 것이 삶터였어요. 삶터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 사실 청년들이 하는 마을살이는 단순히 지역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늘공작소 친구들이 가장 집중하는 것이 오십만원 비즈니스예요. 일본의 3만엔 비즈니스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 시대적 전환기에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2가지인데. 첫번째로 지식인들이 힘을 잃는다라는 거였어요. 그 당대의 교수도 기자도 혹은 활동가들

이 모두 힘을 잃게 되어서, 자신이 내야 하는 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었어요. 두 번째로 일이 분업화된다는 것인데 옛날에는 한 사람이 몇 가지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광고의 음악, 이미지, 제작하는 사람이 분산 된 것처럼. 분수화된 시대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이 일이 겹잡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분이 제안하신 것이 겸업하라는 거였어요. 분수화 된 시점은 인류사를 통틀어서 얼마 되지 않는데, 시대의 전환기 빼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일들을 겸업해서 하지 혼자하는 건 없었다는 거예요. 미술 했던 사람이 전원을 한다거나 그러나 요즘 시대는 대학을 나오면 반평생 하나의 일만 한다는 것이죠.

한 달에 삼만엔만 버는 일들을 너네가 스스로 만들고 겸업해라 하셨어요. 한 친구가 사진찍기를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인물사진을 너무 잘찍는데 풍경사진을 너무 못찍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수 없어서 낙담했는데 교수가 영정사진을 찍어라 그리고 한 달에 3만엔만 벌여라라고 한 거죠. 3만엔이 한국 돈으로 50만원 정도하던 시절이었어요. 이런 식의 일감들. 자신이 할 수 있는 장점들을 발휘해서 친구들이나 마을에 필요한 일들을 만드는 것이었죠.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일감을 만들기 주거 만들기 생활 만들기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50만원 비즈니스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요리하는 친구, 건축하는 친구, 자전거 만드는 친구 등 여러 명이 있구요. 각자가 자신의 일감을 만들고 도전해 나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이 50만원으로 어떻게 사냐고 질문을 하세요. 저는 가장 중요한 지점은 이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적게 번다는 게 아니라 자신이 어떤 삶을 살고 싶고 그거에 맞는 일감을 만들고 남는 시간을 친구와 같이 돈 벌고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예요. 현대시대는 자신의 삶을 사유하는 것이 부족하다 보니 고민 없이 대학가고 취업하고 눈 깜박하면 30, 40대인 삶을 살고 있는 거 같아요. 저는 이런 지점에서 자신의 삶을

사유한다는 것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재미난 책을 읽었어요. 일본이 산업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아시오 방산이라는 구리 광산을 발전하게 되는데 구리를 채광하고 더 많이 파는 것이 목표가 된 거예요. 이로 인해 광산은 많은 개발이 일어났고 주변에 피해가 가게 됐어요. 비가 오면서 농작물에 침투되고 주민들은 병이 일어나고 동물들은 병이 걸리고 이런 시점에 '다나카'가 반평생 넘는 시간동안 생태계운동을 하신 내용의 책이었어요. 당시에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을 하면 안된다 라고했던 것이 반근대운동이 된 거예요. 그분이 문명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세계 인류 대다수는 문명에 집어삼켜지고 있다는 것이었고, 마을을 죽이지 않고 인간을 죽이지 않는 것이 문명이다라는 거였어요.

지금 현재 진행형인 세월호 사건과, 사대강 사건을 보더라도 지금 한국 곳곳에 문명들이 파괴되고 있는 것이 현 고민인 것 같아요. 마포구에 40년된 부흥주택이라고 있어요. 그 공간에는 40년 동안 삶의 터전이신 어른들이 있어요. 그러나 집주인은 그분들을 내쫓고 싶어하시는 거예요. 그분들과 마을활동하면서 청년 입장에서 보면 자기 삶을 꿈꾸는 거지만 그것이 더 지속된다면 마을 도시 그 나라를 꿈꾸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문승규 : 어떤 50만원 비즈니스?

신지예 : 함께하고 있는 친구 중 한 친구는 영어를 잘해요. 그 친구는 일이 세 가지인데 한 가지는 공작투어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게스트하우스가 등장하면서 여행 오신 분들이 색다르게 투어를 하고 싶어하세요. 그래서 그 친구가 공짜투어를 하면서 걸어다니는 투어를 해줘요. 투어를 하면서 주고받는 이야기는 예전의 월드컵 망원이야기를 하면서 외국

인들이 재밌어하고 있어요. 인터넷에는 올라와있지 않은 정보들을 공유 하면서 서로 즐거워하고, 그 일을 통해 팁을 받게 되요. 두 번째는 성미 산 마을 청소년들과 어린이들 같이 다른 방법으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친구는 요리를 잘해서, 이글루 공간에 부엌이 있는데 거기서 자리를 잡고 점심시간마다 점심을 만들어서 팔아요. 한끼에 4000원이구요, 입주한 청년 6명은 항상 사먹어요. 사람이 많을 때는 20개 까지 팔려요. 얼마전에는 망원 시장분들이랑 이야기가 돼서 강정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이십만원씩 팔린다고 하더라구요. 자전거를 만드는 친구가 있는 그 친구는 상품을 만들고 있는 단계여서 아직 수입은 없어요. 건축을 하시는 친구도 있는데 건축을 토대로 망원동을 맵핑 하는거랑 아이들을 건축하는 워크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입은 월마다 다른 것 같아요. 겨울이나 가을 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되서 투어해주는 친구가 잘되요. 저희가 아직은 안해봤는데, 50만원 비즈니스를 매뉴얼화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가계부를 모아서 얼마버는지 공유해야겠다라는 얘기하고있어요 (웃음)

이현진 : 사례를 들어주신 것은 지역을 기반한 아이템들인가요? 아니면 혹시 외부와 연결 돼서인가요?

신지예 : 자전거를 하는 친구는 외부와 연계해서 팔고 싶어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저희도 꼭 지역에 관련된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규칙이 있어요. 저희 스스로도 지역주민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항상 서로 사고 그러는 것 같아요. 물물교환형태도 생기더라구요. 이게 지역기반이 아니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가장 하고 있는 고민은 어떻게 오십만원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 예요. 매력적인 부분은 하루 종일 아니고 일할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휴식기간도 있고. 그런데 월세를 어떻게 충당을 할까고민을 하다가 이글루 망원 옆에 '부흥주택'이라고 40년된 주택이 있어요. 한 집당 4.5평정도 되고, 2

층으로 총 100호가 만들어져 있어요 .50퍼센트가 비어있어서 우리가 들어가자라고 논의하고 있어요. 곁에 보면 낡았는데 옛날건물은 튼튼하게 잘 지어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승규 : 혹시 오늘공작소는 기업의 형태?

신지예 : 주식회사 형태이고, 세금은 철저하게 내고있습니다.

문승규 : 그러면 오늘공작소라는 이름으로 수익활동을 하면 퍼센트?

신지예 : 100퍼센트 전해줘요. 샤워실비 25만원씩 내고 있어요.

이현진 : 그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모이게 되었나요?

신지예 : 다양하게 모였어요. 사회적 기업에 다녔던 친구, 대안학교 선생님했던 친구, 영리기업에서 돈을 벌다가 일의 회의감 때문에 온 친구, 망원동 주부분도 계시구요.

이현진 : 오늘공작소의 일원이 되려면 매달 25만원을 내면 되는건가요?

신지예 : 네 그런데 각자 사정에 따라 달라요.

박혜민 : 그러면 일원이 늘어 나는거에 대해서는?

신지예 : 딱 10명까지만 가자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현진 : 혼자 있을때와 다르게 가정을 각자가 꾸린다고 하면 지속가능성이 궁금해요

신지예 : 제 생각은 포커스가 50만원이 아니라 비즈니스에 맞춰져 있는 거 같아요. 삶을 사유해야 된 다는게 중요한 거 같아요. 어떤 결혼을 할 것 이고, 어떤 여자와, 그 애를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어떤 집에 같이 살 것인가? 라는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 거 같아요. 문제는 그런 고민 없이 한다면 신자유주의의 토피바퀴 안에 실려갈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 전에 자신이 생활양식을 만들어 가야되는 것. 그러나 내부에서는 각기 다르게 가고 있어요. 중요한건 너무 많이 일하지 않는거예요.

서슬기 : 아이디어는 서로 모여서 공유하나요 아니면 각자 고민하나요?

신지예 : 저희는 수시로 주고 받아요. 서로 헬프 요청이 끊임없이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박혜민 : 일을 안 하실때는 무엇을 하세요?

신지예 : 원래는 책도 좀 읽고 기타치고 밴드만들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현실은 잠시 쉬고 있어요. 생각의 집합이 중요한 거 같아요. 끊임없는 공유 하는 것, 사유가 결집 되있는 것이 중요해서 아카데미는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지금은 건축사에 대해 배우고 있어요.

이현진 : 아까 10명이라고 하셨는데 더 많이 확장시키면 좋을꺼 같은데 10명을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신지예 : 50만원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이글루 망원이 커지는게 아니라 , 다양한 집합체들이 많아져야겠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커지는게 아니라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만들고 마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게 생각해요.

문승규 : 이글루 2호점 계획은 있으신가요?

신지예 : 생각하고 있어요. 이글루라는 것을 지을 때도 말이 많았어요. 지금 청년들에게 이 시대가 겨울같다. 그 겨울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아지트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죠. 나중에 이글루 상암. 이글루 은평 등등 많아 졌으면 좋겠어요.

문승규 : 오늘공작소도 주민제안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은것이고, 행정적인 부분이 쉽지 않고, 누군가 한명은 총대를 매야 되야하는 것인데, 일을 나누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신지예 : 현재는 제가 다 하고 있고, 프로젝트별로 나누려고 하고 있어요.

박혜민 : 말아서 총대를 하시지만, 이 일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신지예 :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다른 분들이 보시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오늘공작소일은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들이는 시간이 시급으로 환산되는거가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자기가 뭔가 조금이라도 손해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점점 멀어지는거 같은데, 그러지 않다는 게 중요한거 같아요.

이현진 : 새로 받게 되는 멤버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지예 : 기준은 따로 없어요. 저희가 공간을 2월에 만들었는데, 저희 팀 안에서도 약속은 정했지만 시작할 때 약속이되고 공동체는 유기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너무 안 맞으면 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따로 면접을 보거나 서약을 한다는 생각은 안하고 있어요.

박혜민 : 요즘 가장 필요한 거 있으세요?

신지예 : 망원정축제라는 공동사업을 진행하고 있는게 있는데 축제가 잘 됐으면 좋겠고, 잘 조직화 됐음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문승규 : 왜 오늘 공작소에요? 이름의 의미는?

신지예 : 다들 내일을 위해 사는거 같아요. 사실은 인생이 그 때까지 살 수 있을지 알 수 없고, 그냥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야되지 않나? 라는 의미로 지어졌어요

박혜민 : 마을공동체는 지역주민과 스킨십을 하려고 애쓰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그런 활동은 어떻게 있을까요?

신지예 : 마을살이를 하다보면 어쩔수 없이 많이 만나는거 같아요. 최근에 도 전화가 어르신이 오셔서 집에 물이샌다고 하셔서 청년들이 가서 도와드렸어요. 저희 일감을 사시기도 하시고 밥도 드시러 오세요.

박혜민 :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신지예 : 공간이 지역에 있는게 중요한 거 같아요. 공간이 열려 있는게 중요한 거 같아요

서슬기 : 망원동에 산책을 자주 다니는데 망원동에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음식점을 하시면서 사회적인 일들을 하시는 분. 그런 분들 하고도 얘기를 하고 계신가요?

신지예 : 저희는 모모학교를 만들려고 해요. 망원동에 좋은 강의가 너무

많아요. 전광수 돈까스 되게 유명한데 주인분이 신자유주의에 대해 침을 튀기며 얘기하시는거예요. 저런 분이 마을에 학교 선생님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점찍어놓고, 재미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있어요.

박혜민 : 그럼 망원이라는 지역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신지예 : 차가 너무 많은거 같아요. 자전거 길이 되어있는데, 차가 모든 시야와 경계를 흐려놓더라구요. 축제를 하려고 해도 차 때문에 못 하는 것이 조금 불편해요. 서울에 차도를 하나 없애고 있던데, 그 것을 주차장으로 만들거나 공중정원처럼 만들면 재밌겠다라고 생각해봤어요. 이러한 상상이 청년들 사이에서 나와야되는데 마을살이를 하지 않는 분들은 지역에 대한 관심이 없다보니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 2. oo은 대학 / 조한비

조한비 : 저는 oo은 대학이라는 곳에서 전략사업프로젝트 하고 있어요. 비영리 사업을 하고 있고, 팀내에서 디자인 팀장으로 있고, 동시에 디자인 프로듀서도 하고 있어요. 지역이라는 주제를 갖고 저의 일상을 생각해보니 사는 곳은 해방촌인데 현재는 이틀정도만 머무르고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은 불광에 있는 사회혁신에서 일하다 새벽에 들어오고, 강화풍물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모두의 별장 리뉴얼 봉사를 마치게 되면서, 떠돌이처럼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지역을 물어보시면 지역이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지역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이 아닌 oo은 대학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해봤을 때 플랫폼으로 확산하다 보니까 oo은 대학을 설명하기는 힘들어지고 있어요. 지역의 문제들을 청년들이 어떻게 풀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oo은 대학은 지역커뮤니티를 만든다를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만드

는 쪽이 차라리 빠르겠다고 생각했어요. oo은 대학 처음시작한건 시부야 대학인데, 지역을 하나의 캠퍼스로 놓고 재생시키는 방법으로써 교육이라는 것을 갖고 왔어요. oo은 대학은 직접적으로 시작된것이 마포는 대학이에요. 30년 된 이발소가 있다면 거기서 교육의 자원을 만들어내는 프로젝트로 시작되었어요. 누구나 가르치고 어디서나 배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시작을 했어요. 하면서 느낀점은 정말 중요한 것은 질이 아니라 과정의 밀도라고 생각해요. 주민이 뭔가 가르칠 수 있는 자존감을 주고, 수평적인 관계를 쌓아가면서 관계를 얼마나 촘촘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느냐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정의내리는 커뮤니티는 망이라고 생각해요. 일대일의 관계로는 만들어질 수 없는 다양한 네트워크인거죠.

oo은 대학에서 교육플랫폼했던 것 중에 누디나 교육플랫폼1기때 있었던 일을 소개해드릴게요. 지역에서 강사가 될 수 있는 주민들 만나 보는 프로젝트였는데, 강사와 함께 기획자가 기획 하는거예요. 장어집 사장님이 룸바를 강의하는 기획을 만들었는데, 그 분이 프로는 아니지만 열정에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강사분을 모시고 홍보를 하고 기획을 하고 수강생들을 모집하는 것은 관계를 처음 맺는 시기죠. 실제로 지역특성상 마포에서는 지역 덕을 많이 보기도 했었어요.

교육플랫폼2기 (2011-12)때 oo은 대학이 노리단에서 독립한게 2012년인데, 조직의 형태와 사업의 형태가 변했어요. 2-3배정도 지역대학들이 생겼고, 청년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작업의 중심으로 옮겨가게 된 시기예요. 그리고 수강생이라는 단어보다는 청년기획자라는 말, 내부에서는 솔래(지역의 문제를 찾아서 잡는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때부터 자생이라는 화두가 떠오른거죠. 저희가 실제로 자생했어야 되는 시기구요. 이 당시의 미션은 언제까지 평생교육관 같은 사업을 할 것인가? 청년들이 어떻게 일거리를 찾아낼 것인가? 였었어요.

지역문화기획자/활동가플랫폼(2013-지금) 이 시기때에는 큰 변화가 있었어요. 기존의 oo은 대학은 유지되면서 성북에서는 성북 협동조합으로 신설하게 되면서 법인이 됐어요.

oo은 대학을 운영하면서 마주하는 문제를 프라브럼이 아니라 퀴즈로 보는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러한 마음으로 보면 지역커뮤니티가 없는 줄 알았는데 나타나는 재미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다 사업으로 확장되는 경우도 있고, 일을 진행하면서 기반을 마련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지역대학들이 독립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자립이 가능한 거겠죠?

지금 '구로는 별별시장'을 몇차례 진행하고 있어요.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주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어요. 하지만 자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딜레마예요. 이런 사업은 수입을 낼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사업들을 정부가 해야되는데 저희같은 단체가 대신 하고 있는거예요. 실제로 이사업을 통해 얻어내는 금전적인 부분을 바라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계속 하고 있는 이유는 주민들 때문에 하고 있어요.

### 3. 질의응답

박혜민 : oo은 대학 구성원은 10명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조한비 : 독립한 대학은 스스로 자생해서 부담하고 있고, 독립하기 전까지는 oo은 대학연구소에서 대부분을 담당해요.

박혜민 : oo은 대학은 비즈니스 모델이 생기면 좋을까요? 이거만 잘되



면 좋을 텐데 뭐가 있을까요?

조한비 : oo은 대학을 솔직한 마음으로 바라보니 밀도가 약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대로도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확산을 하게 되니 부작용이 보이는 것 같아요. 개인적 판단은 oo은 대학이 확산하는 것은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조직의 변하는 속도가 개인의 변화의 속도가 다르다 보니 어려운 지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비즈니스 모델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도 되는가? 라는 것부터 질문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속을 위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수익을 위한 비즈니스라면 우리가 그것을 해도 되는 조직인가? 라는 질문이 먼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책을 주문했어요. 저도 그런 것에서 부대끼는 지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밀도를 높이고 싶어요. 내 조직의 밀도, 내 사람의 밀도, 그런데 확산하는 모델에서는 밀도를 올리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뭔가를 만들어 내야하는 것인가? 이것이 요즘 고민이에요

박혜민 : 모든 청년들의 고민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궁금한거 있으신가요?

문승규 : 이런 지역들은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조한비 : 보통은 먼저 제안을 하는 시스템지만, 관이나 문화재단에서 요청이 와서 가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아니면 다른 쪽에서 뭔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구요. 내부의 룰 같은게 있는데, 자원 혹은 일할 사람이 있거나 정말 협력할 파트너가 있다면 3개 중 2개 이상이 충족되면 한다는 것이 내부룰이에요.

박혜민 :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에 커뮤니티를 만들고 싶은 욕구가 다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조한비 : 음.. 잘모르겠어요. 저희 직원 중에는 부모님과 같이 사는 지역 이니까 못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저같은 경우는 제가 뭔가 하고 싶은 지역에 살아요. 현재는 삼청동과 해방촌을 떠돌이처럼 살고 있어요. 저는 지역친화적인 사람이 아니어서 그런지 아 직도주민들을 만나면 어려운 것 같아요.

이현진: 시작한 계기는 무엇이에요?

조한비 : 일단 저는 대안학교를 다녔고, 그때부터 고민들이 많았어요. 하고 싶은 일, 잘하는 일, 의미 있는 일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는가? 라는 고민을 했었고, 그 이후의 삶을 생각하다가 대안비즈니스 플랫폼을 20살 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군대 다녀와서 oo은 대학에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이현진 : 서로서로 연대가 쉽지 않을꺼 같은데 어떻게되고 있나요?

조한비 : 청년들이 아직까지는 정보가 부족해서, 일주일에 한번 회의를 하는데 고민을 공유하기도 하고 사업을 공유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잘 돌아가기가 힘들어요. 다른 oo은 대학을 이해하기 힘든 지점이 분명히 있고 공감대가 약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서로 그것을 이해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이 고민이에요

문승규 : 기획의 한계인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공작소는 생산을 해나는 거잖아요. oo은 대학은 기획이 주된 포지션이다보니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거 같아요. 생산에 대한 고민은 어떠신가요?

조한비 : 기획과 활동의 영역이 다른거 같아요. 활동이 더 많고. 생산이라는 그 지점에서 고민이 없으실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생산을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데 그것보다는 처음에 주민들과 관계 맺을 때 중요한건 내 자신이 아마추어인거예요. 어설픈게 중요한 지점이 되는 거죠. 그럴 때 라포 형성이 되는 것이고, 기획을 업으로 삼는 단계에서는 프로가 되어 되는거잖아요. oo은 대학은 자생하려고하니 어떤 분야에 프로가 되어 되는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에 대한 프로야? 아직 모호하죠. 그 답이 정말 필요한 건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김동리 : 저는 오늘공작소에 그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그 곳에 모인 친구들이 특기 장점들이 있는데, 만약에 활동에 의지만 있고, 생산이 없다면 팀을 꾸릴 수 있는지 궁금했어요.

조한비 : 저는 지역기술을 만들고 싶지 않아요. 구조로 들어오고 싶지 않아요. 구조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 방향이 oo은 대학과 맞나 라는 질문을 하고 있죠. 아직은 결론이 지어지지 않았어요.

조한비 : 저는 여러분한테 ‘작은 마을 디자인하기’ 책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두 분이서 편지를 주고 받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민이 훨씬 날 것으로 드러나 있어요. 마을과 커뮤니티와 관련된 일을 하려는 사람에게 좋은 지침서인 것 같아요. 알겠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의 남의 이야기니까 속사정 모르잖아요.

신지예 : 마을 안에 들어와서 3만엔 비즈니스를 한다면 어떤 종류의 일을 만나고 싶은지?

서슬기 : 제가 갖고 있는 기술 중 마을이 도움이 되는 기술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저는 사진을 찍는 걸 좋아하고, 설계를 하고 있지만 그런 쪽의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지원: 저는 저글링이나 등산 같은 것을 안내를 해줄 수 있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현진 :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꺼 같아요. 내가 과연 기존 사회 말고 시작할 수 있는 지점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졸업밖에 할 수 있는게 없는 거 같아요. 바람이라고 하면 기획을 해보고 싶다는 일을 생각해보고 있어요.

조한비 : 내가 어떤 도움이 된다고 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중요한 거 같아요. 쉐어하우스를 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하면서 살고 있는데, 아직은 현실적으로 재정에 부담이 되고 협동조합을 만들면 쉐어하우스가 100개가 된다면 어떨까? 상상해요.

전홍재 : 못해봤다는 갈증에 대해 큰 입장을 갖고 있는 저로서는, 가정문제나 부부간의 문제에 대해 사람을 모아서 책을 읽거나 토론을 하고 싶어요. 삶에 설계를 해주고 싶어요.

신지예 : 동네 상담소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주민 분들이 가장 처음 하는 고민인 아들 딸 고민. 마을에 상담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문승규 : 저는 장사를 하고 싶어요. 저희는 디자인을 하다보니까 디자인의 한계가 있는거 같아요. 시간이 오래걸리는데, 장사는 명확하잖아요. 그런 직관적인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 단순한 일을 하고 싶어요.

김동리 : 공감하죠. 건축 디자인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어요. 디자인으로 서비스가 끝이 아니라 시공으로 넘어가니까 큰 돈이 필요한거예요. 그래서 지역사람들이 변화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동네에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주자.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동네에서 하고 싶어지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량이죠. 너무 일을 많이 하지말고, 옆 집 가서 밥 얻어먹고 그렇게 지내고 싶어요.

박혜민 : 저는 하고 싶은 것이 되게 명확했었거든요? 재개발과 주거 관련된 변호사 그런데 요즘 들어서 고민이 많아졌어요. 쓸데 없이 의미 없는 일들을 하고 싶어요.

“지역과 관계를 맺으며 어떻게 새로운 마을문화를 만들어 가는가?”

### 1. 남산골 해방촌 / 이한솔

이한솔 : 저희 구성원들은 특별한 목적보다는 잡지 자체에 관심이 있어서 모임이 시작됐어요. 편하게 생각하면 동네친구들을 만나는거죠. 구성원들은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이 다양하게 모여있어요.

내가 청년으로서 어떻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이 질문을 항상 고민했었고, 일반적인 형태에 매몰되고 싶지 않았어요. 이상적인 생각이지만 그런 충동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 때는 마을이라는 단어가 낯설 때였는데, 동네에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었어요. 동네에서 자원이 순환 될 수 있다면 큰 틀에서 벗어나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게 뭘까라고 했을 때 지역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었어요. 뜻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동네에서 신문이나 잡지를 만들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없어서 찾기가 힘들었어요. 후암동에 살고 있는지 17년이 됐는데 동네친구가 다 사라졌더라고요. 그러다가 해방촌의 잡지 만들어보지 않겠냐고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시작하게 됐어요.

2012년 3월에 처음 모여서 5월에 활동이 시작됐어요. 참여자 수가 비슷하데 잡지에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은 관심있는 분들이 들어오세요. 새로 들어오시고 힘드신 분은 자연스럽게 나가시면서 유지가 되더라구요. 요즘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동네에서 뭐하고 있는거지? 생각해 보면 꾸준히 활동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거 같고, 아카이빙 하는 행위자체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남산골은 남산 하얏트 호텔에서 서울역 내려가는 길에 있어요. 특이한 점은 해방촌은 윗동네 아랫동네로 구분하는데 윗동네는 기존의 주민분들, 아랫동네는 개발을 통해 새로운 이국적인 음식점이 들어오고 있어요. 두가지 모양의 문화가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만날 수 있는 지점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초반에 모일 때는 한달 동안 자기소개를 했었고, 앞으로 어떤 잡지를 만들어갈지 두 달 동안 고민했어요. 소통의 방식과 지속성에 대해서도 무겁지 않게 논의했었어요.

다른 활동보다는 발행의 돈이 쓰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건 돈 문제, 예산문제, 발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펀딩을 받기도 하였고, 용산구 지원 등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광고를 받으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광고를 안 받는 이유는 비정기 관행물이다보니 꾸준히 나갈 수 있다는 상황이 아니고, 사실 독립적인 출판이라고 얘기하기 힘들죠. 자본이 지원금으로 진행되다보니깐 나름대로 우리가 자율권을 가지고 콘텐츠 면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재미있었던 기사들을 몇 편 소개하자면 우선 '벽화전쟁' 이라는 기사가 있어요. 동네가 외국인이 많다 보니까 흔하게 그래피티를 발견할 수 있어요. 사진 속 보이는 저 곳이 그래피티의 핫플레이스이고, 그 장소에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가족의 여러 가지 형태의 그림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덮고 다시 그리고, 자기들의 생각을 알리는 듯한 전쟁이라고 이름 붙인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 장소가 부정적 충돌이 아니라 긍정적 충돌인 것 같아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용산구 의회 회의록과 예결산을 살펴봐서 요즘

우리 동네 도시디자인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기사를 쓸 예정입니다.

사실 제가 바라는 모습은 사람들이 너무 즐거워하면서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스스로가 바뀌어가면서 잡시가 아닌, 꾸준히 하는거예요. 이것도 문화가 될 수 있으니까요.

## 2. 공공공간 / 신윤예

신윤예 : 처음에 저희가 이름을 짓고 공간을 만들고 했을 때 주민분들이 낮설어하셨어요. 혹시 빵집이나라는 재밌는 질문들도 있었고, 특이한 이름이다라는 반응도 있었어요. 저희는 지역재생을 위한 커뮤니티 아트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공공공간은 여러 가지를 담은 이름이에요. 항상 공공성을 했을 때 지자체에서 정해놓은 것들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개인 개인 지역안에서 서로 마주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특이한 이름을 생각했죠.

저희가 이 공간을 만들게 된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전공이 미술이에요. 미술을 하면서 큰 작품 활동도 하고 그래야지 라는 마음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개인전을 했었는데, 너무 허무했어요.

내가 왜 이 길을 가고자 했던거지? 꼬리를 물면서 질문들을 했었어요. 내가 스스로 정의한 예술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고민이 시작된거죠. 고민을 하다보니 사회와 소통하는 예술을 해보자 마음을 먹었어요.

독일에서 재밌는 프로젝트를 하나 했었어요. 코스펠트 라는 독일에서도 관광지가 아니고 구석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블랙위칠 말트 프로젝트를 했어요. 협동조합처럼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예술 공간이에요. 도시의 특징이 인구가 빠져나가는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한계들

을 재밌게 실행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혼자만 기획하는게 아니라 다양한 한국작가들을 모으고 작은 작품들을 작은 포장으로 쌓아서 차근차근 준비를 시작했어요. 준비과정 중 하나의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전시장의 개념을 공간으로 하지 말고 마을로 확대시켜보자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다양한 관계를 만들어 보고자, 이후에 작품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사진과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작은 프로젝트가 지역신문에까지 났었어요. 사람들이 참여를 하면 다양하게 확장할 수 있겠다 라는 깨달음을 얻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고민해보기 시작했죠.

예술프로그램들을 만들기 시작하다보니 기업에서 사회공헌활동으로 초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만난 지역이 창신동이였어요. 창신동을 소개를 하자면 오르막길에 산동네예요. 동대문 의류시장이 다 창신동에 있었어요. 한국에서 옷은 다 여기서 만들고 있구나를 알았어요. 대부분이 도매 시장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새로운 것을 많이 알게 됐어요. 상상할 수 없는 긴 노동시간, 지역산업의 경제침체, 지역의 노후화 그럼 우리가 여기 안에서 예술가로써 할 수 있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아이들과 같이 이 마을을 재 발견해보자 했어요. 저희가 만난 창신동은 매력을 발견함을 통해 자원을 같이 활용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아이들도 자신의 미래를 지역과 연계해서 꿈을 키우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죠. 1년 동안 아이들과 프로그램과 하면서 같이 아이들과 밥을 먹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과 밥을 먹으면서 동네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게 됐어요. 찾아가는 예술을 하지만 뿌리를 내리면 좋겠다 라는 의견에 동의하여, 사회적 기업가로 창업을 하게 됐었어요. 지역에서 고민을 하게 될 때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했죠. 본격적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삶과 예술. 지역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문제를 공유해보고 전시를 하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화의 과정 안에서 해볼 수 있을 것 같았고, 문제를 재밌게 해결해보자 했어요.

처음으로 말풍선처럼 지역에 말걸기를 했어요. 우리 공간에 어떤 말을 남길까? 그러면서 아이들과 동네를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는데, 애들이 진짜 조용한거예요. 저희가 제시한거는 혼자만의 시간 이었는데. 애들이 자기들끼리 연결하기 시작하는거예요. 테이프도 구해오고 바둑판도 갖고 오고 그러면서 공동체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자신이 자발적인 필요에 의해 그것을 결합했을 때 주체적인 활동이 되는구나를 깨달았었어요.

그 뒤에 벽화를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지역의 더러운 벽이 많으니 벽화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는데, 처음에는 왜 벽화를 해야되는지 정말 모르겠는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아이들과 조직하여서, 고민을 근본적으로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관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계속 더러워 질 수 밖에 없는데 그럼 어떤 솔루션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페인트를 칠했어요. 문제 의식을 같이했던 친구들이 모여서 80미터의 벽을 칠했어요.

이 후에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벽화가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지자체에서 시립대학생을 풀어서 몰래 벽화를 그리고 가셨어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구나를 깊이 깨달았어요.

사진을 보시면 외부의 자원들로만 만들어지는게 아니라 주민들의 후원금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작은 도서관이 완성되었어요. 아이들이랑 벽, 바닥, 책꽂이, 페인트 등등을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스스로 만들었어요. 갑자기 생긴 공간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공간이다 보니 커뮤니티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어요.

이름은 '뭉든지'라는 도서관인데, 아이들과 같이 투표해서 만들었어요. 가장 많은 투표를 얻은 이유는 이름지은 친구가 제일 인기 많았던 친구

여서였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커뮤니티를 하다가, 지역에 부모님들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어린이들도 바뀌는게 쉽지않겠다고 생각하고,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해야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팀의 가장 큰 장점은 생각의 전환이라고 생각해요. 동네 특성상 자투리 천이 많이있었는데 봉제공장에서 옷을 만들고 자른 것을 버린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새로운 자원으로 하면 재밌겠다고 생각하였고, 수평적 협업이 필요하고 실제로 비즈니스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양한 일을 진행하다보니 공간이 필요를 느끼게 되어서, 세미나와 카페, 내외부의 사람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더 만들게 되었고, 동시에 지역의 변화 이야기들을 말해주는 산책자를 기획하였어요.

처음 만났던 친구가 벌써 중고등학교를 가면서, 청소년들에게 어떤 대안들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희 공간에서 인턴쉽과 함께 사회적기업의 정신, 스스로 주체적으로 성장 할 수있겟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건 저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참여하면서 함께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커뮤니티아트라고생각해요.

### 3. 질의응답

박혜민 : 어떻게 자립하고 계시나요?(재정/공간)

이한솔 : 저희는 지금 다른 생업이 있고, 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있어요. 공간은 발행인님의 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있습니다. 재정은 초반에 3호까지는 출력지원을 받았구요, 나머지는 개개인의 사비로 조금씩 모아서 하고 있어요. 서울연구원에서 지원을 받고, 지역인들을 기록하고 관심을 갖고 하다 보니 여러지역에서 지원을 해주시더라고요.

발행인 : 사실 저는 공간이 있으면 좋긴 하지만, 일정한 공간은 필요하지 않고, 재정이 더 필요한 시점이에요.

신윤예 : 사실저희는 생업을 걸고 있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이긴 해요. 부잣집 애들을 가르치는 삶을 포기하고 나왔기 때문에 창업을 했어도 저희 인건비로 쓸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그러다 점점 저희도 활동이 쌓이면서 기업에서 어떤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지 강의 제안이 들어오면서, 재정적으로 안정이 됐어요. 이러한 활동들이 언론이 나가면서 현재는 다른 지역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 컨설팅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연락이 오고 있어요. 이 점을 비즈니스 모델로 가져 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진 : 활동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어떤 것들을 위한 것인지?

이한솔 : 내가 배운 것을 가지고 동네커뮤니티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누군가에게 알리고 있는거, 그리고 나도 배우고 있는거, 저는 그런거 같아요. 앞으로도 나름대로 해보고 싶은거 많이 있죠. 자리를 잡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들이 있으면 좋겠다.

신윤예 : 저는 예술가로서의 삶을 자문하면서 이렇게 살았던거 같아요. 제가 예전에 입시강사를 했었는데 정신적으로 힘들더라고요. 저의 작품과 돈을 버는 방식이 분리가 되었고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다 결국은 다른 방식으로 예술가의 삶을 살고 있고, 사회에서 소통하고 개발하다 보면 내가 어떤 예술가가 될지 궁금해요. 지금도 저희는 사회적 기업이지만 예술가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을 충족하기위해서 살고 있는거 같아요.

문승규 : 초반에서 동업하는데 싸운 일은 없었어요?

신윤예 : 그룹작업도 같이했는데 엄청싸웠어요. 취향 때문에 싸웠는데 그런 것들이 피곤했어요. 그런데 신기한것은 둘의 다름이 확장되는 가능성이 큰 것을 발견했어요.  $a+b=c$ 가 나오는거예요. 그런 부분이 흥미롭지만 여전히 많이 싸워요. 그런데 지금은 예전보다 덜 한게 많은 경험의 축적과 육년 반 동안 작업을 하면서 탄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박혜민 : 지역의 문화를 어떻게 발견하고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신윤예 : 저는 문화라는 건 다양성을 담고 있을 때 폭발성이 있는거 같아요. 내외부의 시선. 둘 이상의 다름에서 나오는 강력한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연결점이 필요 한지, 완충제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아이들과 하는 프로그램. 공간이 그럴 수도 있고, 다양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 기획하시게 됐나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관찰에서 오는 거 같아요. 같이 접촉했던 시간에 비례하기도 하고 다른 시선으로 관찰하기도 하고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다름 들을 연결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한솔 : 문화라는 것과 잡지를 연결한다고 했을 때 문화의 개념을 크게 봐야 될 거 같아요. 유형무형의 것들을 발견하고 만들어가는 것은 단계들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저희는 오래산 사람들이 있고, 살고 있는 사람끼리 만났지만 지역 거주민과 만날 기회가 있나? 라고 했을 때 별로

많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 우리끼리 참여하는 사람끼리 각성을 하고, 동네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단계가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경험들 인식을 통해 주민들을 만날 수 있을거 같거든요.

박혜민 : 지역에서 문화가 가진 힘은 무엇일까요? 지역에서 문화가 효과적이라는 믿음도 있으실거 같아요.

이한솔 : 자기 자신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거 같아요. 과정들 자체가 일종의 문화가 된거죠.

신윤예 : 문화가 가진 힘이 있는거 같아요. 커뮤니티 내에서 형성된 거라면 강력 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스러운 ~다운 힘은 대단한 거 같아요. 힘과 두려움이 있어요.

문화라는 것은 재발견하고 재조명해서 가치를 현실에 맞게 해석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만나면 소통 하는게 필요하겠죠.

박혜민 : 지내온 시간동안 가장 잘했다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한솔 : 아직 잡지를 내고 있다는 것이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박혜민 : 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견디고 있다는 느낌?

이한솔 : 아직 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웃음)

박혜민 : 지속성의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발제자 : 만약 힘들어서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모이게 되면 그 모임이 자

연스럽게 없어져도 된다고 생각해요. 작은 모임이 쉽게 만들어지고 힘들면 싸우다가 마음 상하고 그래서 소멸되다가 그러다가 관계망이 생겼기 때문에 뭔가 더 다른 모임이 생기지 않을까요? 끝까지 같이 가는거야(무조건) 이걸 잘 모르겠어요.

신윤예 : 잘 모르겠어요.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된게 잘 한거 같긴한데, 다른 피드백들이 오잖아요. 그럼 또 아닌 것 같고. 뭔가 작은 성공과 작은 실패의 연속. 거기서 계속 배워가고 있는 과정인거 같아요. 별로 없는거 같아요.

문승규 : 아이들과 봉제어른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즐거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신윤예 : 아이들이 자라는 거 보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아이들이 여기서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드는게 희망이에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자기의 길을 잘 찾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혜민 : 요즘 이것만 잘되면 참 좋을텐데가 있을 것 같아요.

신윤예 : 제품이 잘 팔렸으면 좋겠어요. 마케팅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게 제품이 너무 비싼거 같아요. 제로 웨이스트의 운동들도 바뀌가고 있어요. 제품이 정말 잘 되야지 우리도 거기서 수익도 얻고 지역과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는 길일텐데 그 점이 가장 큰 고민지점입니다.

이한솔 : 우리 잡지 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웃음)

박혜민 :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한달, 6개월, 1년)

이한솔 : 한 달 뒤에 잡지가 7월가 나왔으면 좋겠고, 6개월 안에는 하나 더 나왔으면 좋겠어요 1년 안에는 잡지 말고 다른 할거리가 더 있으면 좋겠어요.

신윤예 : 그냥 쉬고 싶어요. 여행도 가고 싶고요.

6개월 후에는 지역에서 하는 프로젝트가 연결된 스토리로 이야기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어요.

일 년 뒤에는 사실 먼 미래일 수도 있는데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라 5년 뒤 10년 뒤를 생각하게 된다. 여기 있는 청소년들이 이 지역에 일어나는 경험들을 밑거름으로 그들만의 프로젝트를 하게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많이 뒷받침 하려고 해요.

소셜 벤처 인증을 받아야 할지 말아야할지 고민이다. 별로 그게 필요는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다.

예술가지만 기업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업으로 더 늘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배움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단순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일했는데 조금 더 설득의 기술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요. 사회적 기업가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겠다 싶어 열심히 강의를 듣고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 둘이서 예술가로서 대안적으로 살아보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일이 커지면서 고용하는 사람도 생겨나고, 이런 일에 관심가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방향들이 바뀌고 있어요.

박혜민 : 여섯 분의 고정비가 많아지지 않나요?



신윤예 :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많은 돈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일하는 비전과 사회적의미를 많이 두고 함께 참여하고 참여하고 있는 중이에요. 너무 적게 줘서 미안 하죠.

이한솔 : '조화로운 삶' 이 책을 추천해요. 직접 집을 짓고 농산물도 키우면서 먹고 자급자족을 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꿈꾸는 삶이기도 하고, 남산골을 처음 참여한 계기가 되었죠.

신윤예 : 이 책에서 예술가로서 생각하는 부분이 언어로서 생각 할 수 있었던 거 같아요. 디자이너이지 않는 디자인은 어떤 것인지를 재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무명의 것들을 재발견 하는 것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요. 너무 많은 생산과 너무 많은 쓰레기가 있는 그 상황에서 삶을 디자인하고, 커뮤니티를 디자인하고. 어떻게 하면 지역과 커뮤니티가 잘 맞는 거 아닐까? 생각해요.

신윤예 : 지역 커뮤니티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거 같아요. 지역 커뮤니티와 나와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관계가 되고 싶으신지 궁금해요.

김현우 : 사람들을 어디서 불러서 만난 약속장소를 정해야되는데, 내가 친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요.

박희정 : 커뮤니티의 상은 조금은 멀리서 바라보지만 주변 언저리에서 머물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신윤예 : 적당한 거리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요. 친해지는건 좋은데 거리감이 필요 한거 같아요. 긴밀한 커뮤니티에서 오는 위로와 힘이 있지만, 적당한 거리에서 오는 즐거움이 있는 거 같아요.

문승규 : 지역에서 3년차로 머물고 있는데 저는 이제 정말 주민이 됐어요.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커뮤니티를 더 모르겠어요. 준비가 되는 날이 올까? 마을은 애초에 그런 성격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박혜민 : 아파트에서 9년 동안 살지만 동네친구가 없어요. 예전에는 골목길 나와 있으면 다 친구였는데 말이죠. 아파트는 굳이 목적 없이 앞에 앉아있지 않으니깐. 아파트 안에 그러한 공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지역 안에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위로를 받고. 다시 느끼고 싶다는 욕심이 있는거 같아요.

이현진 : 저도 한 아파트에서 22년을 살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거 같아요. 내 주변 공간에서 연락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교류도 없고. 그래서 이 것을 오늘 얘기 들으면서도 도대체 내 아파트에서 나는 무슨 커뮤니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머리가 아프네요.

“지역에서 새로운 일감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 1. 서울잡스 / 김영경

청년들이 놓여있는 현실이 마을살이, 지역살이라고 하는 것이 이질적인 얘기이기도 하고, 청년들이 마을에 정착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감을 만든다는 게 쉽지 않은 거 같아요. 오늘 이 주제가 무겁게 다가와서 사실 고민이 많았어요. 저의 얘기를 먼저 하자면, 처음에는 청년유니온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세대별 노조라고 하는 애칭을 갖고 있는 노동조합에서 일했었어요. 초창기 멤버로 2년 정도 같이 활동을 하게 되면서 그 뒤에 수많은 이력이 역이게 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경제민주화가 화두였는데, 경제민주화의 문제에 청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서울시 불공정피해상담센터 주로 노동의 문제로 시작되었죠. 지금 서울잡스를 시작하게 된 것도 이 질문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최저임금도 못 받는 청년들에게 일이라는 것은 평생에서 놓고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왜 일이라는 게 괴로울까? 일이라는 것이 즐거울 수는 없을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됐어요.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들이 다시 나은 삶을 찾아가는 길에 동행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겪었던 경험과 사례들이 겹쳐서 서울잡스라는 일에 고민이 되었죠.

서울잡스는 구직자에 맞는 구인정보를 하고 있어요. 특징은 청년취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취재단은 기자도 아니고 일반 청년들이 서울잡스라는 곳에 와서 인터뷰를 해서 구인정보를 콘텐츠를 만들어서 싣는 곳이 서울잡스예요. 저희가 서울잡스를 고민을 할 때 얻었던 팁이 유럽 같은 곳이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없다보니 노동을 쉽게 옮기긴 하지만 그 다

음 단계를 더 나쁜 직장으로 가지 않는, 정부차원에서도 취업지원이 잘 되어있는 편이고,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시작됐어요. 그 때 우연히 청년허브를 통해 프로젝트매니저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저희가 서울잡스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이라는 것의 키워드를 고민을 하다가 세 가지를 생각했어요. 왜 굳이 대기업과 공무원이 되고 싶을까라고 질문을 하다보면 사회적인 시선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받고 싶다는 게 크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작은 기업일지라도 어떻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지를 부여해주고 싶었고, 그 일의 멋과 다양한 일자리로 다양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희가 서울잡스를 통해 드러내고 싶은 가치는 상세하고 솔직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구직자들이 스스로 필터링 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보자였어요.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꼭 지역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일이 뭘까라는 고민하다 보니까 저의 키워드는 들여다보기였어요. 들여다 본다 라는 것이 새로운 일을 탐색하는 것에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의 곤란함을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의 시작점이 아닐까 생각해요. 청년취재단을 운영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사진이 청년취재단인데 이 친구들이 경험이 없다보니 어떻게 질문하는 것을 몰라서 실제로 이 친구들을 데리고 교육을 해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어디서 기인하는 가를 고민하면서 여러 부분이 스스로 고민하는 거 같아요. 저희가 주로 가는 곳은 사회적 기업이나 서울중소기업, 어떻게 보면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거나 그런 기업을 다니고 있어요. 저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생스러움을 보다보니 들여다보니 중소기업도 나쁘지 않네 라고 생각을 하다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 다시 들여다보면서 사회적 가치 사회적 변화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중요하고 효과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실제로 들여다본다 라는 자세로 새로운 일거리 2곳을 소개를 했어요. 지역에서 공간을 내고 공간에서 관계를 맺다보니 새로운 일거리를 찾는 사례를 찾아봤어요. 공공공간을 하나의 사례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건 미술학원 선생님이로 가셨다가 지역문제 관심을 가진 거잖아요. 결국은 지역이라는 곳을 깊숙해서 밀착해서봤기 때문에 여러 프로젝트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봐요. 두 번째는 마포 민중의 집이에요. 공간대여사업도 하고 낮에는 토끼 똥 이라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공방도하고 지역현황을 갖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단체와 단체를 연결하고 공간을 통해 새로운 일감을 내고 있는 사례로 볼 수 있는거 같아요. 지역에 현황을 들여다봄으로써 생긴 사례가 아닐까 생각해봤어요.

결론을 얘기하자면 어쨌든 일을 발견한다고 하는 건 들여다 본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 새로운 일이 발견 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스쳐지나간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요즘 저성장이라고 표현을 쓰잖아요. 양질이 어려운 입장에서 새로운 일 생존과도 비슷한 조건에서 들여다보기 키워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속가능성에 있어서는 여전히 어렵고 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삶을 살아 갈 것인가라는 그 질문에 새로운 것이지 않을까요?

## 2. 엔스페이스 / 정수현

일의 영역 중에 다양한 전형적인 대기업이나 공공기업 말고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있어요. 요즘은 평생 직장보다는 프로젝트를 따와서 아웃소싱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 그런 공간 코워킹 공간을 하고 있어요.

핵심 컨셉은 당신을 선택시킬 공간이고요. 전 항상 구글 오피스를 보여드리고 시작하는데요. 세계적인 혁신기업은 공간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는 에버노트라는 회사데 복도 자체가 화이트보드예요. 사진에 나타는 곳들이 사무실이에요. 이런 공간을 갖고 온 이유는 이런 큰 회사 뿐아니라 창조적인 회사들이 직원들이 자기자리만 있지 않고 일의 생산성을 도와주는 회사 안에 공유공간들에 머무르고 있어요. 좋은 결정들은 복도나 식당에서의 즉흥적 만남과 토론에서 시작된다라고 하죠. 공간을 어떻게 기획하느냐에 따라 거기서 머무는 사람들의 의사결정과 관계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한다고 해요.

코워킹 공간이라고 하면 여럿이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작은 조직과 모임들이 커뮤니티 문화활동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인 3000여개 국내에는 20개 이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요. 왜 코워킹 오피스로 나오냐? 조사를 했어요. 결론적으로는 80%이상이 소셜네트워크가 있고 사회적 관계망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를 개인이지만 글로벌한 조직에 흐름이 되는거예요. 사례로는 첫 번째로 임팩트 허브라고 있어요. 전세계의 다른 직업을 가진 코워커들이 하나의 기업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54개의 공간 7000명 이상의 코워커 멤버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기업문화 투자기업들이 모여 있어서 그 자체로 하나의 조직이 되어버린 사례입니다.

또 하나로는 오픈소스 카페라고 있어요. 아이티에서 오픈소스활동이 재밌는 활동이에요. 누구나 쓸 수 있도록, 500명의 커뮤니티가 모여있어요. 일본은 특이하게 커뮤니티활동이 협동조합으로 잘되어있어요. 각종 300개 되는 코워킹이 서로 잘 될수있게 도와주고 있어요. 유능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강의가 열리고, 세미나도 열리고, 프로그래밍 교육도 시키는 재밌는 모델들이 열리고 있어요. 같이 여러명이 재능을 공유할

수 있는. 국내는 20개의 공간들이 준비 중이에요.

새로운 일문화로 임대비로 인해 시름하는 부분은 줄어들 꺼 같아요. 저희는 코워킹 플레이스가 일 공간을 넘어서 생산성도 있으면서 문화도 있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공간이 이러한 목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용 대상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어야 되고, 공간대관서비스, 그리고 창의적이고 재밌는 공간 문화, 단순히 일이 아니라 커뮤니티 활동.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오픈콘텐츠 랩이에요. 동그라미 재단이 하고 있는데 놓고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재단에 공간 나눔 사업이 되어서, 저희는 오픈콘텐츠라고 해서 자기 콘텐츠를 오픈하는 사람에 대해 무료로 대관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활동한 내용을 사람들에게 공유를 해주 시면 콘텐츠를 모아서 라이브러리로 구축하는게 저희 사업이구요. 지식 활동 모임, 창작활동 다 포함되니까 저희가 서포트를 해드리고 CCL형태로 누구나 퍼갈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어요. 멤버가 되시면 5개월동안 공간을 빌리실 수 있어요. 평상시에는 오피스처럼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간을 빌리시면 캘린더에 표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강연을 보고 들어오셨다가 멤버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어요. 테드에서 저희의 사례 소개를 하는 경우도 있었구요, 언론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세미나 중에서 정책자들이 많이 오세요. 우리지역에 만들면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라 라고 소개하고 있고, 지금 현재 오픈콘텐츠가 증가하고 있어요.

### 3. 질의응답

박혜민 : 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시간적, 공간적, 감정적)

김영경 : 저는 사실 대학 다닐 때 학생 운동을 했었어요. 작은 경험이지만 목소리를 내고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경험 했던거 같아요. 그런데 지

금은 공동체가 무너져 있는 걸 발견하고 있어요. 등록금이 오르고 있는 문제에 대해, 욕을 하지만 행동으로 가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으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는 청년들이 동네 북 같은거예요. 너네가 능력이 없고 게을러서 청년들이 문제인걸로 그게 저는 억울하면서도 왜 목소리를 내지 못할까? 목소리를 내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러한 경험들이 청년유니온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지지와 격려를 받으면서 사회적으로 환원하고 사회에 도움을 되는 방향으로 쓰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박혜민 : 어떻게 자립하고 계시나요? (재정/공간)

김영경 : 저는 사실 풍족한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부끄럽기도 한데 청년허브에서 인큐베이팅을 받고 있는 거죠. 청년허브의 여러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 해서 독립하겠다는 거예요. 저희도 1-2년 정도는 정보를 전달해서 이직률이 낮추고 통계로 잡히면 독립해서 비즈니스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공간은 허브에서 쓰고 있어요. 2년 후에 오픈콘텐츠랩을 찾아가든지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정수현 : 지금은 투자를 받으면서 3년 정도 버텨야 되요. 회원들이 차는 기간이 2-3년 정도이기 때문이죠. 투자금으로 유지해야 될 것 같고, 오픈 콘텐츠랩은 재단의 사업의 일부여서 운영금이 거기서 일부가 나와요. 투자사와 좋은 연결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좋은 투자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큰 투자는 아니지만 이 팀이 잘 투자해서 사회문제 +비즈니스를 위해 투자하는 회사예요. 국내에는 프라이머, 소풍이라는 팀이 있어요. 그런 팀과 컨택을 하시면 성장해서 사회적으로 임팩트를 줄 수 있으면 좋은 성장모델이지 않을까요?

이월숙 : 공간이 24시간 사용가능 한가요?

정수현 : 월-토 운영 하고 있어요. 24시간이 쉽지는 않은데 시간이 지나면 하고 싶어요.

박혜민 : 청년세대에게 일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정수현 : 저는 사실 일을 좋아해요. 취미가 홈페이지 만드는거예요. 청년 세대에게는 파트원이에요. 창조적으로 마음껏 해볼 수 있고, 그랬을 때 무모 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청년 때는 무모한거 많이 해봤으면 좋겠고, 기업이 정신적으로 재밌는 것의 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정적인 것에 너무 심심하게 젊음을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파트투가 더 재밌어지겠죠.

김영경 : 저도 비슷한거 같아요. 유니온의 경험이 업을 찾게 된 거 같아요. 자신의 업을 찾는 계기로 일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직장을 찾는게 아니라 직업을 찾는 것으로 접근을 하면 40, 50대가 풍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요.

박혜민 : 지역에서 일을 어떻게 발견하고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정수현 : 특히 구체적으로 수도권 밖에서 사는 사람들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지역에서 일거리를 만들어야 확산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지점에서 아이티 혁신 콘텐츠혁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공장이나 제조 기반 없이 환경을 만드는건 기술혁신이 있어야되고, 스타트업들이 그 영역에 관심이 많아요. 최근에 아이티기업들이 제주도로 가고 있는데 그것도 재밌는 실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코워킹 오피스가 마을 이장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코워킹 매니저를 잘 발굴해서 지역마다 코디네이터를 하는 것이 좋을꺼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박혜민 : 기술혁신이 없으면 어떻하죠?

정수현 : 새로운 기술혁신과 중간세대가 그룹들이 기획역할들이 많을 것 이라고 보고 있어요.

김영경 : 같이 할 팀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저는 지역에서 들어가서 일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인 거 같아요. 익숙치 않는 마을 살이를 하면서 청년으로써 일감을 만드는 것은 뽀뽀해져야되는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혼자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이 지역에 미칠 수 있는 동료가 있으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도 벤치마킹을 많이했어요. 내가 당장 뭔가를 만들기는 어렵지만 청춘플랫폼을 벤치 마케팅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똑같은게 만들어졌어요. 이런 플랫폼 같은 것을 차용해서 지역에 맞게 수요를 하다보면, 가볍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박혜민 : 일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 이라고 생각해요?

김영경 : 가치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보다는 일이라는 것을 들여다 봤을 때 어떤 일도 다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가치를 홍보하거나 의미를 홍보하는게 아니라 영업실적이 얼마나 돈을 얼마나 벌었다 자본 주의적 위주로 홍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수면위로 올라오지 않은 가치를 드러내고 싶어요. 그러다보면 만족하고 조금은 즐겁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희망고문이 아니라 정말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에도 가치는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홍보하고 싶어요.

정수현 : 저는 이 질문을 장난스럽게 받아봤어요. 페이스북을 만든 사람이 하버드 해킹하면서 시작됐거든요. 구글도 전산학교 2명이 창고에서

데이터 도서관을 만들자는 재밌는 발상에서 시작됐어요. 저희 세대에서는 대의적인 것보다는 내 스스로가 재밌고 스스로 흥미가 느낀 부분에서 확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스티븐잡스가 한 말에서 마음에 남는 말은 잠들 때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게 아니라, 오늘도 내가 멋진 걸 해냈다 이거였어요. 이렇게 잠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반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해요. 자기가 사랑하고 매혹적이고 끌리는 일에 집중하면, 몰입이 되면서 대중도 끌어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김정연 : 청년들이 창업을 하려면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까요?

정수현 : 단계적으로 창업해야지 하는 분들은 1년 정도 하시고, 요즘은 창업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의지적으로 바로 할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점은 아이템과 비즈니스모델 확보하는게 중요한거 같아요. 처음보다는 비슷한 분야에서 5-6년 정도 하신분이 나중에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거 같아요. 아이템에 따라 자기가 어느 정도 스스로 수요를 만들어 낼 수 있냐에 따라 시기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김영경 : 저도 케이스마다 다르긴 한데. 창업이 똑같은 일의 경험이고 학습의 과정이어서 처음에는 어려운데 두 번째 세 번째는 빨리 되는거 같아요. 어떤 자원을 끌어다 쓰는지 몰랐기 때문에 청년유니온은 일 년 정도 걸렸어요. 서울잡스 같은 경우는 허브라는 자원이 있었기 때문에 한 달 만에 됐어요. 이걸 자원이 있으니 가능한거였죠. 한 번 해본 경험이 있어서 빨리빨리 해보게 될 거 같아요.

박혜민 : 지내온 시간동안 가장 잘했다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김영경 : 서울잡스시작하면서 사회혁신공간 이사장으로 계신 분인데 함께 일하는 재단 사회적 기업을 한국사회에 독립 하신분이예요. 그 분이

이제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 새로운 일을 찾는 것은 경계와 경계를 넘나드면서 해야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얘기가 굉장히 남는 것 같아요. 서울잡스는 운동이라기보다는 대안을 만드는 새로운 영역인거든요.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를 하고 싶은 청년들을 만났는데 그것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모습에서 충격을 만났어요. 이 청년들이 활력이 있는거예요. 경험과 고민이 깊어지고 투트랙 쓰리택이 같이 가야되는거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양한 주체를 만나서 해결해야 되는거죠. 복잡한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섹터를 넘나드는 활동을 한 일이 가장 잘 한게 아닐까요?

정수현 : 저는 스페이스 노아 창업 이었던 거 같아요. 새로운 코워킹 공간을 부동산 문제의식 청년문제의를 잘 녹여냈기 때문에 스페이스 노아 사업을 투자해주겠다. 하루는 정말 못 잔적이 있어요. 비영리에서 6년 동안 하다가 내가 책임을 지게 된 것은 큰 공포였어요. 비영리는 아쉬운 점이 펀드레이징이 었어요. 이 사람들이 더 발전시키지 못하는 돈의 문제 지속가능성 비즈니스를 경험해보고 싶다는 경험이었어요. 한번 다른 길도 가보자고 했던 점이 제일 좋았던 거 같아요.

박혜민 : 요즘 이것만 잘되면 참 좋을 텐데 싶은게 있을까요?

정수현 : 주거안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비교적 안정적인 부분이 부모님이 서울에 계신거 같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청년들이 무모한 것을 시도할 못하죠. 왜냐하면 생계의 안정성이 없기 때문이죠. 그 부분만 해결된다면, 청년들의 주거문제가 안정된다면 노동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박혜민 : 엔 스페이스에도 이것만 잘되면 좋을텐데?

정수현 : 내년 정도에 착한 월세 프로젝트를 하는게 있는데 좋은 주거와 좋은 일자리의 관계성 만드는 것이 저희 안에 고민이에요. 지금은 수요 조사로 파악하고 있는게 토지 희년함께와 서비스적으로 풀어가고 싶어요.

김영경 : 저는 워커홀릭이에요. (웃음) 개인적으로 저는 잡스를 하면서 참 어려웠던 부분은 제가 아이티를 잘 몰라요. 저는 도대체 플랫폼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너무 미션을 중심으로 왔던 거죠. 기능을 너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단순히 기능을 장착하는 문제가 아니라 마인트섹팅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의 확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공부를 해야겠어요.

박혜민 :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한달 / 6개월 / 1년)

정수현 : 공유기업에 선정이 됐어요. 공유서비스 개발이 되겠죠? 6개월 공간은 1000개 사용자는 만명, 일년 동안 회원을 늘리는 작업을 해야 되요. 하면서 착한월세 프로젝트 사이트가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계획을 하고 있어요.

김영경 : 연봉이 기준이 되는 일자리보다는 우리세대가 생각하는 일자리 기준을 세우는게 낫지 않을까요? 좋은 공간, 좋은 조직문화 그리고 복리후생을 고민 하고 있어요. 우리세대가 생각하는 좋은 기준이 이런거다라는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먼저 적립하고 성립해보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좋은 일자리의 기준을 만들고 그것을 사용하면 기업문화를 유도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보자 이런 방향으로 호르고 싶어요.

김영경 : 박원순 시장님이 당선되고 청년들에게 새로운 일감을 도전을

해보자 청년취재단 24개 팀이 자신이 담고 싶은 기업의 인터뷰를 한거예요. 그들이 담은 100개의 일자리를 찾은 경로를 보여준거예요. 서울시에게 낸 책이기 때문에 창업하라고 들릴 수가 있잖아요 왜 어려운 구조에 있는 지를 한국사회의 어려움이 어떤거고 이런 부분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전문가의 멘트가 담겨있어서요. 해외사례도 있고 한국사례도 있어서 아이디어도 얻고 재미있지 않을까? 해서 추천해드려요.

정수현 : 저는 '린스타트업' 이라는 책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완성된 제품이나 완성된 비즈니스를 다 준비해서 시작 하라는게 아니라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반응을 보고 조금씩 제품을 완성해가면서 대중과 호흡하라고 말하는 책이에요. 좋은 창업 방법론 중에 창업이 아니더라도 혁신적인 일을 하고 싶는데 눈에 보이는 문제가 발생했는데 해결하고 싶으면 보기 좋은 책이에요. 작은 목표를 이루어가는 방법을 다루고 있는 책이어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은 제일 좋은 책 인 것 같아요. 다른 책은 '사회문제의 경제학' 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막스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경제학 책인데, 자본론은 돈 많고 기업 묶어서 사회문제를 거시적으로 공산화 했다면 헨리조지 자본가를 두 개로 나눴어요. 그 부분이 토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땅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격차 문제 빈민문제는 땅의 문제 누가 그 땅을 누가 한사람이 소유하는게 옳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으로 풀어낸거고. 저한테는 터닝포인트 됐던, 헨리조지 만나고 인생이 만나고 바뀌었어요. 인문학적으로 혁신을 고민 하시는 분은 교과서라고 생각해요.

정수현 : 어떤 꿈을 꿈꾸시는지 궁금해요. 선택하는 일의 기준, 좋은 일감. 지향하는 일의 가치가 궁금하네요.

이지원 : 대학교와서 별다른 목표 없이 살아가다가 학군다도 나왔으니까 대기업을 가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었어요. 그게 가장 바라보는 직업이었죠. 그런데 사회경험을 해보고 진도 갔다 와서 사회경제제에 관심이 많

아저서 과연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많은지 지금도 아직도 알아보고 있어요. 내가 마을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떤 협업을 해서 얻는 것은 무엇이고 나누는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선택하게 됐어요.

이현진 : 영혼을 놓는 곳에서 2년 정도 직장생활 하다나온지가 4개월 정도가 됐어요. 다들 나올 때는 넥스트를 생각을 하고 나와야지라고 말했는데 저는 찾고 싶어서 나왔어요. 지금도 찾고 있는데 그림이 뭐다라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신감이 요즘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 계속 해서 큰 구조 속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만을 키워왔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 보다 내가 가진 것보다 훨씬 낮은 능력을 가졌을 때 아침에 일어나면 되게 작아지는 것 같아요.

김정연 : 저는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교사가 됐어요. 제가 가면 바뀔 줄 알았는데 구조가 탄탄하고 치밀해서 국어교사를 하다가 과목을 진로로 바꿨어요. 왜 힘들까 생각해보니 뜻 맞는 동료교사를 만들기 힘들어요. 관심 있는 분야가 학교 밖에 관심이 많아서 학교 밖과 학교를 연결 해서 애들이 숨도 쉬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게 살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진 : 사무실도 답답하고 모든게 정해진 룰이잖아요. 무엇을 하나를 하더라도 삼십년 일하신 분들은 관례화가 있어요. 대학교를 다니다가 현실적인 문제들을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다 생각되는 게 없는거예요. 학교를 그만두고, 공무원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들어와서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단혀있고, 사무실 공간부터 바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답답함을 느끼고 있어요. 소통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람의 생각을 듣고 공유해야 되는데 부족한 점을 느끼고 있어요.

박희정 : 저는 일을 선택할 때 가치는 즐거움이어서 가치라고 표현하기 모호한 단어이긴 한데 항상 바뀌어요. 근데 그게 제일 재밌는거 같아서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대기업 인턴으로 2개월 동안 했다가 다시는 안가겠다고 결심하고 나온게 제일 힘들었던 때 인거 같아요. 그 이후에는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항상 찾아가서 했던 거 같아요. 앞으로 하나만 하고 싶진 않아요. 재밌는 일 계속 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어요. 일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고, 재밌는 일이 계속 내 눈에 보였으면 좋겠어요.

박혜민 : 저도 워커홀릭이어서, 인권활동을 시작하면서 일이라는 사회적 경험을 하다가 2학년 들어가서 여름방학 때 그만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가 소진되는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연하게 위즈돔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일의 가치에서 가장 중요하게 동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다니 느끼고 있어요.

문승규 : 저는 설계사무소에서 2달 동안 일할 기회가 있었어요. 기대를 하고 갔는데 1-2달 내내 지하에서 모형만 만든거예요. 왜 그런 배경지식은 전혀 없이 모형만 만들게 된 거예요. 설계사무소라는 것이 너무 기계적으로 만드는 공간이구나.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 신입사원들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거예요. 굉장히 소모적인 일들을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주체적인 일은 위에서 하고 실제로 밑에 있는 사람들은 기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회사에 들어가지 말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던 거 같아요. 그러면서 대학원을 가고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기계적인 일을 지양 해야겠다라고 생각 하고 있어요. 블랭크를 만들어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하기 싫은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고 싶은 일을 못하는 일이 생기고, 요즘 생각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하기 싫은 일을 적절히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 같아요.



이월숙 : 제가 하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그 가치는 제가 만드는거 같아요. 저는 지금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 있어요.

김영경 : 블랭크와 청춘플랫폼의 매력이 무엇일까요?

이현진 : 이런 공간을 저도 만들 수 있을까요? 낮에 한번 와야겠어요. 매력적인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파생 될 수 있는게 많은 거 같아요. 이런 공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지원 : 취업 때문에 구직을 하는 입장이라서 혼자 올라와서 사는데 그런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하다가 평소에 위즈돔에서 자극을 많이 받아서 마침 마을 아카데미를 봐서 참석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오늘 공작소도 만나고 참여하게 된 거 같아요. 이런 자리가 더 많아져야 될 거 같아요.

문승규 : 일과 생활이 겹쳐져있어서 고민이 많이 되는거 같아요. 낮에는 공유오피스, 저녁에는 커뮤니티공간으로 쓰고 있어요. 공간의 정체성이 애매모호한 공간이라서 커뮤니티의 성격을 강화 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일에 대한 부분은 독립적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박혜민 : 저는 처음에 좋았다고 생각한 점은, 아주머니 할머니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닫혀있는 듯 열려있는 애매모호함이 느껴지고, 특히 투명하게 문과 창문을 만드셔서 오가는 길에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박희정 : 공간적으로 블랭크가 좋은 것은 큰 편이 아니잖아요. 오후부터 있었는데 한 순간부터 아카데미의 공간으로 본거예요. 블랭크 같은 경우는 마을아카데미를 들었을 때 이 분들을 꼭 만나야겠다. 친해지고 싶은

상태예요.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 만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미진 : 하루에 딱 막혀있었는데 딱 툭어있는 느낌이에요. 여기서 뭔가 하시잖아요. 자유로운 분위기니까 좋더라구요. 뭔가 하고 싶은게 있을 때 여기서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정연 : 상도동에 생겼다는 자체가 충격이었구요. 신선하고 좋았어요. 일곱시에 시작해서 열시까지 달리시는데 중간 중간 구성들과 질문들을 너무 잘하시는거예요. 고민한 이런 것들이 좋았구요 모이신분들도 적극적이고, 그 에너지가 힘이 되는 것 같아요.